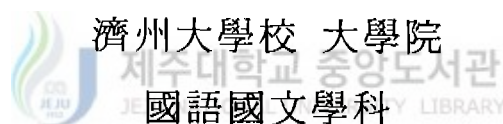


博士學位論文

제주 방언의 부정 표현 연구



文 舜 德

1999年 12月

제주 방언의 부정 표현 연구

指導教授 姜 榮 峯

文 舜 德

이 論文을 文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12月

文舜德의 文學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9年 12月

A STUDY OF NEGATIVE EXPRESSION
IN CHEJU DIALECT

MOON, SOON-DEOK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YOUNG-B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9. 12.

제주 방언의 부정 표현 연구

차 례

I. 서 론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사 개관	3
1.3. 연구 방법과 범위	4
II. 부정소의 부정 표현	10
2.1. 단형 부정문	13
2.2. 장형 부정문	28
2.3. 이중 부정문	48
2.4. 부정 아닌 부정문	53
III. 어휘의 부정 표현	59
3.1. ‘말다’의 부정 표현	60
3.2. ‘엇다’의 부정 표현	86
3.3. ‘아니다’의 부정 표현	95
3.4. ‘모르다’의 부정 표현	103
IV. 부정 응답 표현	113
4.1. ‘의문-응답’에서의 부정어	113
4.2. ‘명령-응답’에서의 부정어	120
4.3. ‘칭유-응답’에서의 부정어	124
4.4. ‘평서-응답’에서의 부정어	126
V. 결 론	130
참고 문헌	136
Summary	143

I. 서 론

1.1. 연구 목적

중양어 부정법(否定法)은 변형 생성 문법 이론이 적용되면서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중양어에서 부정법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된 이유는 부정소¹⁾ ‘아니·못’이, 한 긍정문에 대응하는 두 유형의 부정문²⁾ 즉 단형·장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데 있었다. 이 두 유형의 부정문에 대한 의미 해석과 동의 여부에 대한 기저 구조의 설정에 여러 견해가 있었다. 그 결과 두 부정문에 대한 기저 구조의 설정, 표면 구조로의 변형, 부정소들의 의미 등에 대해서도 논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부정법 논의는 이후 통사·의미·화용(담화)론적인 면은 물론, 통시적인 연계성까지 확대해서 연구되었다.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담화 상황에 따라서 문맥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더욱이 방언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며, 중양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 방언 부정 표현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중세 국어에서부터 중양어로의 변화 속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문법 체계와, 변화된 체계 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중양어에서 쓰이고 있는 부정소와 통사 환경이 유사한지 다른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등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제주 방언이 중양어와 전혀 다른 독자성(특이성)을 갖는다고 보다는 언어의 역사성 속에서 더디게 변화되어 왔음을 밝히고, 자료들이 사라지기 전에 부정 표현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연구는 제주 방언의 부정 표현을 공식적으로 기술하여 중

1) 중양어에는 부정소 ‘아니’·‘못’이 있으며, 부정 어휘 ‘말다’에서 ‘말-’을 부정소로 다루기도 하는데, 이는 부정소 ‘아니’나 ‘못’과 같이 자립성을 띠며, 동사 뒤에 위치하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부정 어휘로 다루었다.

2) 학자에 따라서 부정소 ‘아니·못’이 쓰인 부정문을 단형 부정, I형 부정, 제1형 부정, 선행 부정, 단문 부정이라 하고,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못하다’·‘말다’에 의한 부정문을 장형 부정, II형 부정, 제2형 부정, 후행 부정, 복문 부정 등으로 부르는데, 이 연구에서는 전자를 단형 부정문, 후자를 장형 부정문이라 하고자 한다.

양어의 문법 체계와 제주 방언의 문법 체계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통시적인 고찰도 아우르며, 또한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부정 표현에 대한 통사·의미 특성 등을 밝히고, 제주 방언 부정 표현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 연구가 방언 문법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방언 문법 체계도 중앙어의 문법 체계와 유사함을 구명하고 그 일부임을 알아 보기 위해서이다.

부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① 부정은 긍정과 함께 한 의미체를 만들면서도 서로 섞이지 않는 상대자로만 인식된다(김동식 1980 : 4), ② 부정 서술문은 이에 맞서는 긍정과는 다른 언어 행위가 된다(이기동 역 1985 : 167~168) 등이다. 이를 요약하면 ‘부정이란 긍정에 대립되는 개념이면서 독자성을 지녔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범위에서 보듯이 부정문이라고 하면 주로 ‘명시적인 부정소가 쓰인 문장’을 일컫는다.

이 연구에서는 명시적 부정소인 ‘아니’·‘못’이 쓰인 단형·장형 부정문과 부정 응답어가 쓰인 문장, 명시적 부정소가 쓰이지 않았으나 부정의 의미를 가진 어휘인 ‘엇다’·‘모르다’·‘말다’와, 부정의 의미가 없는 부정 아닌 부정문과 이중 부정문 등에 대해서도 통사·의미 특성을 논의하며, 통시성과 아울러서 공시적인 특성을 연구 범위로 해서 여러 특성을 찾고자 한다. 특히 부정 응답에 쓰이는 부정 어휘 ‘말다·엇다’의 의미·통사 특성을 살펴보고, 그 의미가 명제로 주어질 때와 응답에 쓰일 때의 의미가 같은지, 다른지도 구명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부정소에 의한 단형·장형 부정문의 의미·통사·담화 기능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제주 방언과 중앙어의 여러 기능이 별 차이가 없음을 구명하며, 중세 국어의 흔적이 남아 있는 통사 특성도 살펴본다. 이중 부정문과 부정 아닌 부정문의 특성도 논의한다.

3장에서는 주로 ‘말다’의 기본 의미와 부차 의미를 파악해 보고, 본동사의 기능 외에 보조동사, 보조사 등의 통사 기능이 있음도 살핀다. 아울러 ‘말다’와 ‘하다’의 대립쌍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말다’는 논자에 따라서 ‘중단·금지·그만두다’ 등을 기본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행위 금지’를 기본 의미로 정해서 여러 기능을 살펴보겠다. 부정 어휘 ‘엇다’·‘모르다’와 ‘아니다’의 여러 특성도 살펴보고자 한다.

4장은 3장과 더불어 이 연구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문장 종결형에서 부정 응답 표현인 경우 중앙어와 그 쓰임이 다름을 논의하고자 한다. 즉 판정 의문문에서 부정 응답으로 ‘아니다’ 자리에 존재 부정인 ‘엇다’가 쓰인다. 명령·청유문에서는 ‘싫다’ 자리에 단독으로 ‘말다’가 실현되고 있음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서문에서도 ‘엇다’가 쓰이고 있다. 이 부정 어휘들이 부정 응답으로 쓰일 때의 의미·통사·담화 기능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사 개관

중앙어 부정법 연구에서 전통 문법으로 다룬 연구에는 박승빈(1935), 최현배(1971)이 있으며, 변형생성 이론을 적용한 부정법 연구에는 박순함(1967), 이홍배(1970), 성광수(1971), 송석중(1967/1971/1973/1977/1981/1993), 오준규(1971), 임홍빈(1973/1978/1987), 양동휘(1976), 박상규(1977), 이정민(1977), 한 길(1977), 이기용(1979), 이상복(1979), 김동식(1980/1981/1990), 서상규(1984), 전병쾌(1984), 장석진(1985), 신원재(1987), 구종남(1992) 등이 있고, 중앙어 부정법에 대한 연구의 각 특징을 요약·정리한 것에는 김동식(1990)이 있다.

중앙어 부정법에 대한 여러 논자들의 논의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두 유형의 부정문이 동일 구조인가 아닌가 하는 통사론적 관점과 담화(화용)론적 관점에 따른 동의성 문제가 논의되었다.
- (2) 부정소 ‘아니’와 ‘못’의 기본 의미 규정과 통사 특성이 논의되었다.
- (3) 부정 보문소 ‘-지’와 명사화소 ‘-기’의 동일 기원설 문제가 제기되었다.
- (4) 부정소와 통합되는 ‘하다’의 문법적인 기능과 그에 따른 명칭 문제(형식 동사, 대동사, 포괄동사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 등)가 다루어졌다.
- (5) 부정소 ‘못’은 동작 동사와만 어울리고, ‘말다’는 명령·청유문에서만 실현되는데, 부정소 ‘아니’는 통사상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이를 부정소의 기본형으로 다루기도 했다. 따라서 평서문, 의문문에 쓰이는 부정 서술어와 명령·청유문에서 쓰이는 부정 서술어가 다름도 논의되었다.

(6) 부정의 영역에 따른 의미, 즉 중의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위에서 보듯이 중양어 부정법은 형태, 통사, 담화(화용)의 전 분야에 걸쳐서 연구되었지만, 명확한 방법과 결론이 도출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제시한 문제들이 서로 맞물려서 논의되었고, 연구 방법과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을 보이기 때문이다.

제주 방언 부정 표현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는 강정희(1992)가 유일하다. 이 글은 제주 방언 부정 응답 표현에서 중양어의 ‘아니다’, ‘싫다’ 자리에 ‘말다/마우다’, ‘엇다/엇수다’가 쓰이는 상황을 형태·통사·담화론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판정 물음-부정 응답”에서는 기존의 ‘아니다’ 외에 존재 부정의 ‘엇다’가 쓰이며, “명령·청유-부정 응답”에서는 ‘아니’, ‘싫다’ 대신에 의지 부정의 ‘말다’가 쓰이고 있음을 보여 주어서 제주 방언만의 특성임을 제시하고 있다. ‘판정 물음’에서 ‘아니다’와 ‘엇다’가 같은 자리에서 부정 응답어로 기능할 때에는 ‘아니다’가 추상적인 부정이라면, ‘엇다’는 이에 비해서 좀더 구체적이며 명백한 부정의 의미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있다/없다’의 식별 작용이 ‘이다/아니다’에 비해서 구체적인 인식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사적인 물음에서도 ‘말다’가 쓰이는데 역시 부정 응답과 같은 기능으로 다루고 있다.

중양어 부정법은 여러 면에서 많은 논란 거리가 되어 왔는데, 방언에서의 연구 결과는 1편 정도이다(강정희 1992). 이렇게 방언 부정 표현 연구가 미진한 원인은 방언의 부정 표현 현상이 중양어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1.3. 연구 방법과 범위

중양어 부정법에서는 주로 하나의 긍정문에 대응하는 부정문으로 두 유형이 있는 것과, 그 의미가 동일한가 아닌가 하는 동의설과 이의설, 기저 구조의 설정 문제, 부정소가 미치는 범위에 따른 해석 등이 논의되었다.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서 부정의 영역, 두 유형의 부정문에 대한 동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서 단 하나의 해답을 유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앙어에서 다양하게 논의된 부정법의 논점들이 제주 방언에서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겠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어 부정법의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 방언인 경우 단형 부정문의 심층 구조를 기저 구조로 해서 장형 부정문이 생성된다는 두 유형이 동일 구조임을 설정하고, 부정소의 이동과 그에 따른 제약 현상, 부정의 영역과 중의성 문제 등도 논의해 보겠다. 부정소 ‘아니’·‘못’의 기본 의미와 부정 어휘의 기본 의미를 찾아보고, 문맥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특히 어느 한 문법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중앙어의 연구 성과를 적용해서 제주 방언과 중앙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통사의미론적 관점에서 논의한 후 담화론적 관점에서도 그 의미를 살펴보겠다.

연구자는 제주 지역에 살고 있는 제주 방언 사용자로서 언어 직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언어 직관이 주관적일 수도 있어서 객관성을 결여할 단점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감안해서 이 연구에 이용될 자료는 이미 조사, 기록된 문헌을 기초로 활용하고 한편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 한계를 보완했다. 따라서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 관련 문장들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등을 확인해서 정리했다. 기초 자료는 1960년대부터 1998년까지 조사·보고된 것이다.³⁾ 이 기간

3) 이 연구에 쓰인 제주 방언 자료는 기초 자료를 참고했으며, 실제 발화되는 문장이다. 예문이 소개될 때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여기에 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방언 자료

강영봉(1994), 제주의 언어 1, 제주문화/ 강영봉(1997), 제주의 언어 2, 제주문화/ 박용후(1988), 제주방언 연구(자료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제주도 부락지 I(1989 : 1984~1988), 제주도 부락지 II(1990 : 1978/1981/1983), 제주도 부락지 III(1990 . 1972~1974, 1985), 제주도 부락지 IV(1991 : 1975/1977/1989)/ 제주 설화 집성 I(1985),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제주어사전(1995), 제주도/ 진성기(1976), 남국의 민담, 형설출판사/ 현용준(1980),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신구문화사/ 현용준·김영돈(1980~1982), 한국 구비문학대계, 9-1·9-2·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평효(1985), 제주도 방언 연구(자료편, 수정판), 태학사.

* <제주도 부락지>는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술조사 보고서를 편집한 자료이며, 여기에 실리지 않은 것은 <국문학보 1992~1997>, <백록어문 1992~1998>에 있는 자료를 참고했다.

② 한국방언자료집(II·강원도 편 1990, I : 경기도 편 1995, VIII 경상남도 편 1993, VII·경상북도 편 1989, VI : 전라남도 편 1991 V : 전라북도 편 1987, IX : 제

동안의 자료 속에서 제주 방언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문서화된 자료여서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조사 자료를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중양어화되거나, 사라지는 등 단어의 변화형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필요할 때마다 확인 과정을 거쳤다.

제주 방언의 기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소에는 ‘아니·아이’, ‘뭇’과 축약형 ‘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 서술어 역시 ‘아니하다·아니여·아이다’, ‘뭇하다’와 축약형 ‘안하다(않다), 아녀다’ 등 이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방언 기초 자료의 문헌화는 1970년대부터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에 현장 조사를 한 것이며, 또한 계속해서 쓰이는 문장이어서 지금까지도 이 표현들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기초 자료로 선택했다.

우선 부정소 ‘아니’ 형의 쓰임을 보면 1980년대까지는 “아이>안>아니”의 분포인데(>는 빈도수의 크기임),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안>아이>아니”의 순서가 되었다. 그런데 장형 부정문인 경우에는 “안하다(않다)>아녀다>아니하다”로 축약형의 쓰임이 우세하며 ‘아이다’ 형도 드물게 나타난다. 또한 단순 부정의 ‘아니’, ‘아니하다’가 타의 부정의 ‘뭇’·‘뭇하다’보다 사용 빈도가 높다. 이것은 부정문을 쓸 때 화자의 의사를 더욱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제주 방언 토박이 화자들의 문법 의식임을 짐작할 수 있다.

기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형 부정문이 장형 부정문보다 사용 빈도가 다소 높음도 확인되었다. 이것은 실제 회화시에 간단, 명료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화자의 의식과 발음상 노력의 경제성과도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연구에 쓰인 방언 자료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사용 빈도가 높으며, 연령층이 낮고, 중양어 교육을 받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잘 쓰지 않는 표현도 있다. 그러나 제주 방언의 본래 모습을 통해서 부정 표현을 찾아 보고자 하는

주도 편 1995, IV : 충청남도 편 1990, III : 충청북도 편 19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③ 중세/근대 국어 자료 <문헌명, 간행 연도, 약호>

용비어천가(1447, 용가)/ 훈민정음언해(1447, 훈언)/ 월인천강지곡(1447, 월인)/ 석보상절(1447, 석상)/ 월인석보(1459, 월석)/ 두시언해(초간본 1481, 두초)/ 번역노걸대(1547, 번노)/ 번역박통사(1547, 번박)/ 노걸대언해(1670, 노언)/ 박통사언해(1677, 박언)/ 남광우(1971), 고어사전(보정판), 일조각/ 유창돈(1964), 이조어사전, 연세대 출판부.

것이므로, 과거에 주로 사용하던 내용을 자료로 활용했다.

이 연구에서는 김동식(1990)이 제시한 부정문의 범위⁴⁾에 근거해서 연구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 보통 부정문이라고 하면 부정소 ‘아니’·‘못’이 쓰여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부정 어휘인 ‘말다’·‘엇다’·‘모르다’는 부정

4) 김동식(1990. 454)에서는 부정문의 범위에 대하여 여러 논자들의 견해를 대강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 명시적 부정소가 쓰이고 부정의 의미를 가진 류

가. 장·단형 부정문

나. 접두 부정어가 쓰인 문장

다. 부정 대답어가 쓰인 문장

② 명시적 부정소가 쓰였으나 부정의 의미가 없는 류

가. 확인문, 회의문 등

나. 화용적 맥락에 의해 비부정으로 인식되는 문장

다. 이중 부정문

라. 부정소가 단순 부사로 인식되는 문장

③ 명시적 부정소가 안 쓰였으나 부정의 의미를 가진 류

가. ‘없다, 모르다, 말다’ 등 본유적 부정어들이 쓰인 문장

나. ‘반대하다, 거부하다’ 등 반의·상대어가 쓰인 문장

다. 화용적 맥락에 의해 부정으로 해석되는 문장.

부정법 논의에 있어서 부정소 ‘아니’·‘못’의 적용 범위에 따라 성분 부정과 문 부정으로 구분된다. 박순함(1967)은 한자어 부정 접두사(非, 無, 不 등)를, 김석득(1971)은 한자어 부정 접두사와 고유어 부정 접두사(‘선-’, ‘날-’ 등)까지도 포함해서 성분 부정이라고 했다. 김동식(1980)은 성분 부정은 힘춤(‘)이나 힘(√)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문장 부정은 동사인 서술어만 부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정소에 쓰인 문장 전체가 부정되는 문장을 뜻한다. 즉 문장 부정은 서술어 부정으로 나타난다. 한 길(1977)은 성분 부정은 부정 접두사에 의한 부정이고, 문장 부정은 ‘아니다, 없다, 말다, 아니하다, 못하다, 모르다’ 등 부정소 외에 부정 어휘까지 포함하고 있다. 박정규(1995)는 통사적 부정문을 문 부정이라 하고, 형태적 부정문을 성분 부정이라 했다. 서정수(1974)에 따르면 문 부정법이란 “한 문장의 서술어에 부정 요소가 직접 작용하는 것이며, 성분 부정법이란 문장을 구성하는 한 단어(서술어 제외)나 특정 성분에만 부정 요소가 직접 작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부정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를 뜻하는 데, 이 때 성분 부정은 부정 접사가 결합된 ‘명사’만 부정하는데, 문장 부정은 부정소(부정 부사)가 서술어와 통합된 경우 부정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서 문장 부정이라 한다. 그러나 임홍빈(1973)에서 국어 부정법의 문 부정은 인정하지 않았고, 다시 임홍빈(1987)에 이르면 단형 부정문을 ‘서술어 부정’으로, 장형 부정문을 ‘명제 부정’으로 규정하였다. 김석득(1971)이나 김동식(1980)에서 서술어 부정은 문 부정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 길(1977)의 분류인 문장 부정이 연구 범위에 해당된다.

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부정소가 문장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부정문이란 용어 대신에 ‘부정 표현’이란 용어를 쓰고자 한다. 즉 부정소란 ‘부정의 의미를 지닌 형태소’이며 말하자면 부정 부사로서 동사에 선·후행한다. 부정 어휘란 부정소처럼 위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며, 하나의 단어로써 서술어의 기능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말다, 엇다, 아니다, 모르다’ 등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부정 어휘로 다루고자 한다. 이와 같이 부정문의 범위를 보면 부정문이란 “명시적인 부정소가 쓰인 문장은 물론,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정 어휘가 쓰인 문장”이라 할 수 있어서, ‘부정문’ 대신에 ‘부정 표현’이란 용어를 쓴다.

따라서 ‘부정 표현’이란 명시적인 부정소인 ‘아니’·‘못’에 의한 단형·장형 부정문과, 부정의 의미가 있는 ‘말다, 없다, 모르다, 아니다’가 쓰인 부정 어휘를 뜻한다. 이 연구에서는 부정소가 쓰인 부정문과, 부정 어휘가 쓰인 부정문을 모두 다루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논의할 부정 표현의 쓰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가. 난 학교 아니 가켜. (나는 학교 안 가겠다.)
나. 난 글 못 쓴다. (나는 글 못 쓴다.)
다. 어디 강 도둑질 할 수도 못 돼고.
(어디 가서 도둑질할 처지도 못되고/도둑질할 수도 없고.)
- (2) 가. 방이 깨끗하지 아녀우다. (방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나. 문 열지 못 햐켜. (문 열지 못하겠다.)
다. 그 자리를 떠나들 못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했다.)
- (3) 가원 아니 웃지 아니햐저. (그 아이는 안 웃지 않았다.)
- (4) 저기 큰 당 있지 안햐여? (저기 큰 당 있지 않아?)
- (5) 가. 학교 가지 말켜. (학교 가지 않겠다.)
나. 나 한 뭉 콩 말햐 햐여? (나이 많은 말 콩 싫다고 하느냐?)
다. 가의 공부 햐이랑 마랑 잠져. (그 아이 공부하기는커녕 자고 있다.)
라. 늙신디 곤지 말랴. (남에게 말하지 말라.)
- (6) 난 아덜이 엇다. (나는 아들이 없다.)

- (7) 우리 어머님이 아니여 (우리 어머니가 아니다.)
- (8) 난 가의 몰르쿠다. (나는 그 아이 모르겠습니다.)
- (9) 가. ㄱ. 밥 먹었수과? (밥 먹었습니까?)
- ㄴ.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 *마우다.
- 나. ㄱ. 느 장개 가라. (너 장가 가라.)
- ㄴ. 말다/마우다, *엇다/ *엇수다, *아니다/ *아니우다.
- 다. ㄱ. 밧되서 일ㅎ게. (밭에서 일하자.)
- ㄴ. 말다/마우다, *엇다/ *엇수다, *아니다/ *아니우다.
- 라. ㄱ. 가의 무신 병 안 들렸수다. (그 아이 무슨 병 안 걸렸습니다.)
- ㄴ.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 *마우다.

예문에서 보듯이 제주 방언 부정 표현이 중양어와 대동소이한 것 같지만, (1다)에서 부정소 ‘못’이 ‘없다’ 자리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다)처럼 중세 국어에 쓰였던 보문소 ‘-돌’이 지금까지 쓰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5)에서 부정 어휘 ‘말다’의 통사·의미 기능을 짐작할 수 있다. (9)는 부정 응답에서 부정 어휘 ‘엇다’와 ‘말다’가 쓰이는 제주 방언만의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존재 부정의 ‘엇다’가 부정 응답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말다’로 응답할 때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제주 방언에서 부정 어휘의 의미가 중양어에서보다 그 쓰임이 더 확대되었는지를 찾아 보고자 한다. 부정소, 부정문은 통사상의 특성이므로 우선 기본 의미와 통사적인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화용론적인 측면에서 부정의 영역과 의미를 아울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주 방언은 구어(口語)⁵⁾라는 점에서 화용론적 측면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였다. 따라서 화용론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구어인 방언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부정 표현의 여러 의미·통사 특성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5) 방언에는 구어적 방언과 문어적인 방언이 있는데, 현지 조사를 통해서 토박이 화자들의 발화 상황을 조사한 것이어서 구어라는 용어를 쓴다.

II. 부정소의 부정 표현

이 장에서는 주로 부정소가 쓰인 단형·장형 부정문의 여러 특성들에 관하여 논의하겠다. 우선 단형 부정문인 경우 부정소 ‘아니’·‘못’과 공기하는 서술어에 제약이 있으므로,⁶⁾ 이런 통사상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형 부정문이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두 유형의 부정문이 의미·통사상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다만 부정소와 결합할 수 있는 용언의 선택에 제약이 있을 뿐이다. 즉, 단형 부정문이 장형 부정문보다 더 이전의 형태⁷⁾이며, 제주 방언의 토박이 화자들이 실제 발화시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단형 부정문을 자주 사용한다. 여기서는 제주 방언과 중앙어의 부정소나 통사 구조가 다르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그 특수성을 구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중앙어와 제주 방언 간에 부정 표현의 공통성을 찾는 데 역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제주 방언의 부정 표현의 체계를 세워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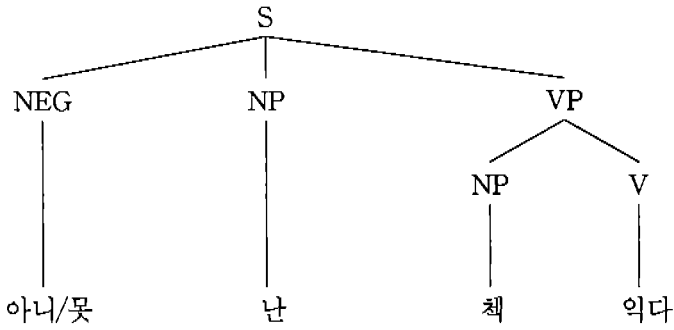
(1) 단형 부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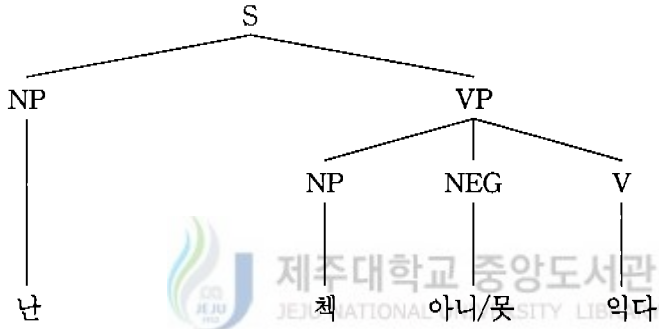
6) 15세기에 이미 두 유형의 부정문이 쓰였지만 류광식(1990: 79)에 의하면 “15세기 국어에서 동사의 단형 부정법은 생산적인데, 형용사인 경우 비생산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두 유형의 부정문이 존재했지만 좀더 쓰임이 자유로운 장형 부정문이 출현했다고 생각된다.

7) 박병채(1989·199), 황병순(1980가 126)에 의하면, 단형 부정문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부정문으로 고대 국어 특히 향가에 나타나며, 장형 부정문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대 국어 후기로 보고 있다. 두 유형의 부정문이 병행해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5세기인데, 이때부터 이미 보편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단형 부정문이 더 이전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가. 심층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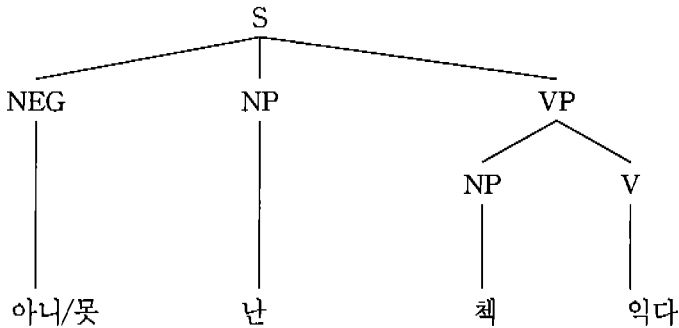


나. 표면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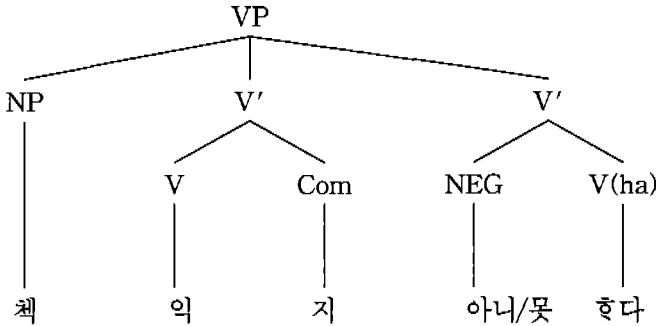


(2) 장형 부정문

가. 심층 구조



나. 표면 구조



(1가)의 심층 구조에서 머리의 부정소가 동사 앞으로 이동하면 (1나)의 단형 부정문이 되고, (2나)처럼 부정소가 동사 뒤로 이동하면서 '하다'와 통합하면 장형 부정문이 된다. 즉 두 유형의 부정문의 표면 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심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방언도 중양어와 마찬가지로 부정소에는 '아니'와 '못'이 있으며 '아니'의 이형태로 '아이'가 있다. 이 장에서는 중양어에서 쟁점이 된 부분과 관련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가. 난 책 읽으쿠다. (나는 책 읽겠습니다.)

나. 난 책 아니/못 읽으쿠다. (나는 책 안/못 읽겠습니다.)

다. 난 책 읽지 아니ㅎ쿠다/못ㅎ쿠다.

(나는 책 읽지 않겠습니다/못하겠습니다.)

(3)에서 하나의 긍정문에 대응하는 부정문으로 두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유형의 통사 구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가

8) 제주 방언에서는 부정소 '아니'·'아이' 등이 혼용되고 있다(난 아이 먹엇저/이건 사름이 아이란.). 음운론적 측면에서 보면 '아니'에서 '-니'의 '-ㄴ'이 약화되어서 '아이'로 발음된다. '아니'의 축약형 '안'도 이미 보편화되었으며, 실제 발화시에는 거의 '안'과 '아이'가 쓰인다. 노인층에서 그 쓰임을 보면, '아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앞에서 잘 발화되지고 않고, 자음일 때는 잘 발화된다. 부정소 '아이'는 강원·경상 방언에도 나타난다.

있어서 다양하게 논의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부정소 ‘아니’·‘못’이 (3나) 처럼 동사 앞에 놓여서 동사인 서술어를 한정하게 됨으로써 그 서술어가 일차 부정의 대상이 된다. (3다)도 부정소 ‘아니’·‘못’이 동사 뒤에 놓여서 ‘하다’와 통합되어서 선행 동사를 부정하는 서술어가 되었다. 여기서 장형 부정문일 때는 보문소 ‘-지’의 선택이 필수적이다. (3가)에 대한 부정으로 (3나, 다)의 두 형식이 있는데, 단형·장형 부정문에 대한 긍정문은 동일하다. 동일 긍정문에 대한 부정문에 두 개의 부정소(‘아니’와 ‘못’)가 각각 쓰인다는 것은 부정소 ‘아니’와 ‘못’의 기능이 다름을 짐작할 수 있다. 둘 다 [否定]의 뜻을 내포하면서도 각각의 기본 의미가 다른데, 그 다른 점이 무엇인지도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은 부정 영역과 의미 해석의 문제인데, 초점 대상에 따라 두 유형의 부정문 모두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원론의 측면에서 제주 방언의 부정 영역을 논의할 수 있다. 여기서 부정소 ‘아니’·‘못’의 부정 대상은 한 문장 내에서만 영향을 미친다.

2.1. 단형 부정문



단형 부정문은 부정소 ‘아니’와 ‘못’이 후행 동사⁹⁾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 의미와 통사·담화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2.1.1 부정소 ‘아니’의 기능

부정소 ‘아니’의 의미에 대한 여러 논자들의 정의를 정리하면, ① 객관 부정, 자의 부정(김동식 1980 : 68), ② 의도 부정, 진행 부정, 상태 부정(신원재 1987 : 97), ③ 행위 부정(박상규 1977 : 20 ; 여찬영 1975 : 170), ④ 단순 부정(박병채 1989 : 199), ⑤ 객관적 서술 부정(류광식 1990 : 24), ⑥ 거부(김민수 1971 : 281) 등이 있다.

따라서 부정소 ‘아니’는 화자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동사와 쓰일 때는

9) 이 연구에서 동사는 형용사를 포함한 용어이며,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사는 동작 동사, 형용사는 상태 동사라 칭한다.

‘의지 부정’의 의미가 강한데, 단순히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단순 부정’을 기본 의미라 할 수 있다. 부정소 ‘아니’가 쓰인 단형 부정문에서 대체로 주어가 [+유정]이고 동작 동사가 서술어이면 그 의미는 ‘의지 부정’이 되고, 주어가 [-유정]이고 서술어에 동작성이 없으면 그 의미는 ‘단순 부정’이 된다(김동식 1980 : 69). ‘의지 부정’이라고 할 때는 주어인 동작주와 서술어와의 공기 관계에 의하기 때문에, 부정소 ‘아니’의 기본 의미를 ‘단순 부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음은 통사 기능을 살펴보겠다.

(4) 가. 난 학교 아니 가켜.¹⁰⁾ (나는 학교에 안 가겠다.)

나. 난 책 아니 익으쿠다. (나는 책 안 읽겠습니다.)

다. 우리 아원 집의 아니 와서.¹¹⁾ (우리 아이는 집에 안 왔다.)

라. 느 생각 아니 헛저.¹²⁾ (네 생각 안 했다.)

마. 이 옷 아니 곱다. (이 옷 안 곱다.)

바. 이 집 아니 좋다. (이 집 안 좋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10) (4가)에서 ‘가켜’는 ‘가+(으)크+이어’로 형태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으)크-’는 주어가 1인칭일 때 화자의 의도·의지나 추측을 뜻하는 제주 방언의 선어말어미이며, 중앙어의 ‘-겠-’과 문법 기능이 같다(홍종립 1993 참조)

(4나)에서 ‘익으쿠다’는 ‘익+(으)크+우+다’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우-’는 제주 방언 상대 존대 선어말어미이며, 선행 형태소가 개음절이면 ‘-우-’가, 폐음절 형태소이면 ‘-수-’가(엇수다) 결합된다(정승철 1994 ; 홍종립 1993 ; 현평효 1985 참조).

11) (4다)에서 ‘와서’는 ‘오+아시+어’로 분석되며, 시제 선어말어미 ‘-아시-’에서 ‘-시’를 추출할 수 있다. ‘-아-’는 완료의 상 형태이다. 물론 ‘-암시-’를 미완료 존속상, ‘-아시-’를 완료 존속상으로 하나의 형태소로 다루기도 한다(문순덕 1999 ; 현평효 1985 ; 홍종립 1975 참조).

12) 제주 방언 종결어미에 ‘-저·-주’가 있다. 현평효(1985 : 200-202)에 의하면 “-저’는 평서·의도법 어미로만 사용되며 1인칭 주어의 강한 의욕, 의도를 나타내며, 해라체에 쓰인다. ‘-주’는 평서, 청유, 허락, 의도, 추측의 서법과 관계하며 호여체에 속한다. 평서법으로서의 ‘-저, -주’는 동작상 형태가 선행 요소이며, 그 외 서법에서는 어간에 직결된다.”고 했다.

제주 방언의 과거 시제 형태소에는 ‘-앗/엇-’, ‘-아시/어시-’가 있는데, ‘-저, -주’ 앞에서는 ‘-앗/엇-’이 쓰인다. ‘-아/어-+-시-’에서 ‘-시-’는 원래 어간 형태소 ‘이시/시-’(有)에서 문법화되었다.

사. 우리 어멍 아니 ㄴ트다. (우리 어머니 안 같다.)

(4)에서 부정소 ‘아니’는 동작 동사, 상태 동사 모두와 공기하는 특성이 있다 우선 ‘아니’는 (4가~라)처럼 후행 요소인 ‘가다, 읽다, 오다, 하다’와 같은 동작 동사와 통합했으며, (4마~사)에서는 ‘곱다, 좋다, 같다’인 상태 동사와 공기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차 부정 대상은 후행 동사가 된다. 그러나 부정소 ‘아니’는 동사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소의 부정 영역은 한 문장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라)에서 ‘하다’ 동사(13)인 ‘생각하다’가 부정되는 경우 ‘생각’과 ‘하다’ 사이에 부정소가 놓인다. 즉 ‘하다’ 동사인 ‘생각하다’ 앞에는 부정소가 올 수 없고, 명사 어근과 ‘하다’가 분리 가능한 동작성 명사일 때만 ‘하다’ 앞에 부정소가 올 수 있다. ‘한자어 명사+하다’인 파생어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어근 분리가 가능한 ‘하다’ 동사인 경우 명사 어간과 ‘하다’ 사이에 부정소가 개입하는 것은 부정소의 특성상 동사에 선행한다는 조건에 맞다. 따라서 이때의 ‘하다’는 접사가 아닌 단어로서 동사이며 명사 어간과 쉽게 분리된다.

(4라)를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여기서 “*~~는~~ 아니 생각했지”는 비문법인데, ‘생각’과 ‘하다’를 분리해서 동사 ‘하다’ 앞에 부정소가 위치하는 ‘아니 하다’는 성립한다. 즉 동사가 다음절어여서 대체로 단형 부정문은 성립하지 않고 장형 부정문만 성립하는데, 단 명사 어간과 ‘하다’를 분리할 수 있는 ‘하다’ 동사인 경우에는 단형 부정문이 성립한다(공부 안 한다). 서술어가 일·이음절(14)이면 단형·장형 부정문이 성립하지만, 다음절 상태 동사이면 단형 부정문이 성립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한 길 1977 : 12). 그런데 송석중(1993 : 114

13) ‘공부하다, 생각하다’에서 명사 어간과 ‘하다’를 분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분리가 가능한 명사를 서정수(1975, 1994)에서는 ‘동작성 선행 요소’라 하고, 김동식(1980)에서는 ‘선행 명사+하다’를 분리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명사적 동사’라 하며, 이상복(1979)에서는 ‘하다’ 동사(동사적 명사 : 선행 요소가 동작성의 명사이다)라 부르고 있다. 물론 ‘하다’가 동사인지 접사인지에 따라 합성어, 파생어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조어법의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연구에서 ‘하다’ 동사는 ‘명사+하다’를 가리킨다.

14) 다음절어는 하나의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이고(곱다, 출다), 이음절어는 두 음절로 된 단어이며(비싸다, 어둡다), 다음절어는 셋 이상의 음절로 된 단어를 가리킨다(아름답다, 생각하다).

에서 아래의 예문을 인용했음.)은 좀 다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5) 가. 학생이 공부한다.

나. *학생이 아니 공부한다.

다. 학생이 공부 아니 한다.

라. 학생이 공부를 한다.

송석중(1993)은 (5가)는 (5라)에서 목적격조사의 수의적인 생략으로 만들어진 문장으로 보고 있다. 즉 (5라)를 기본 문장으로 보고 있다. 부정문으로 만들 경우 (5라)에서 본동사가 '하다'이므로 부정소 '아니'는 동사인 '하다' 앞에 놓여서 '아니 하다'가 된다는 견해이다. 물론 (5라)에서 목적격조사가 생략되어서 (5가)가 되었고, 그 부정문은 자연스럽게 (5다)가 되며 (5나)는 비문법이 된다는 논리이다. '하다' 동사가 단형 부정문이 될 때는 명사 어간과 '하다' 사이에 '아니'를 삽입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모든 '하다' 동사가 명사 어간에 결합된 목적격조사가 생략되어서 파생된 통사적 파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것은 명사 어간과 '하다'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하다' 동사를 어휘적 파생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주 방언 역시 부정소 '아니'는 다음절 상태 동사 앞에는 올 수가 없다.

(4마~사)도 상태 동사가 다음절어(곱다, 좋다), 이음절어(ㄱ트다)여서 부정소 '아니'에 의한 단형 부정문이 성립하고 있다. 즉 다음절어(상태 동사)인 경우에는 대체로 장형 부정문만 성립한다.

그런데 제주 방언에는 이와 다른 통사 특성도 있다. (6)에서 보면 제주 방언인 경우 단형 부정문에서 부정소 '아니'가 다음절 상태 동사 앞에 올 수 있는데 비해서 중앙어인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6) 가. 곱닥하다(곱다) → 안 곱닥하다/ 곱닥 안 하다/ 곱닥하지 안하다.

나. 딱땃하다(따뜻하다) → 안 딱땃하다/ 딱땃 안 하다/ 딱땃하지 안하다.

다. 부치럽다(부끄럽다) → 안 부치럽다/ 부치럽지 안하다.

라. 거멍하다(거뭇다) → 안 거멍하다/ 거멍 안 하다/ 거멍하지 안하다.

- 마. 노랑^ㅎ다(노랏다) → 안 노랑^ㅎ다/ 노랑 안 ^ㅎ다/ 노랑^ㅎ지 안^ㅎ다.
- 바. 퍼렁^ㅎ다(퍼렁다) → 안 퍼렁^ㅎ다/ 퍼렁 안 ^ㅎ다/ 퍼렁^ㅎ지 안^ㅎ다.
- 사. 벌경^ㅎ다(벌경다) → 안 벌경^ㅎ다/ 벌경 안 ^ㅎ다/ 벌경^ㅎ지 안^ㅎ다.
- 아. 하양^ㅎ다(하얏다) → 안 하양^ㅎ다/ 하양 안 ^ㅎ다/ 하양^ㅎ지 안^ㅎ다.
- 자. 엇디 늦거샤 罷^ㅎ시잇고 아니 비골뜨며 긱^ㅎ브니잇가.

(내훈2 上 : 21b, 이태욱 1996 : 151)

(6)에서 부정소 ‘안(아니)’은 다음절 상태 동사 앞이나, 상태 동사 어간과 ‘^ㅎ다’ 사이에 위치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굽다, 거뿔다, 노랏다, 퍼렁다, 벌경다, 하얏다’ 등 상태 동사에 ‘^ㅎ다’가 결합되어서 선행 요소를 동작화하는 기능이 있다. 특히 색채어인 경우 ‘^ㅎ다’가 결합되어서 동작화되는 것이 제주 방언의 특징이다(강정희 1988). 이 어휘들은 어근 분리가 가능하므로 이 때의 ‘^ㅎ다’는 파생접미사가 아니고 일반 동사라 할 수 있다. 제주 방언의 특이성이라면 ‘상태 동사+^ㅎ다’에서 부정소 ‘아니’가 ‘^ㅎ다’에 선행하는 것은 물론, 단형 부정문도 성립하는 것이다. (6가, 나)는 ‘상태 동사+^ㅎ다’인데 부정소 ‘아니(안)’가 동사에 선행하거나, 어근과 ‘^ㅎ다’ 사이에 개입해도 성립함을 알 수 있다. (6다)는 ‘^ㅎ다’ 동사가 아닌 다음절 상태 동사이지만 단형 부정문이 성립하는 것은 중양어와 다른 점이다. (6자)에서 부정소 ‘아니’가 다음절 상태 동사에 선행하고 있다. 이는 (6다)와 같은 통사 특성인데, 음절수에 제약을 받는 중양어와는 달리 중세 국어 역시 단형 부정문이 음절수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실현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6)에서 다음절 상태 동사이지만 중양어에 비해서 부정소 ‘아니’의 통사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7) 가. 야원 간세^ㅎ다(게으르다) → *안 간세^ㅎ다/ 간세 안 ^ㅎ다.
- 나. 므슴이 벤헛저(변하다) → 안 벤헛저/ *벤 안 헛저.
- 다. 이견 문작문작^ㅎ다 → *아니 문작문작^ㅎ다/ 문작문작 아니^ㅎ다.
- 라. 벨이 빈쩍빈쩍^ㅎ다 → *아니 빈쩍빈쩍^ㅎ다/ 빈쩍빈쩍 아니^ㅎ다.

(7가)처럼 ‘하다’ 동사인 경우에 부정소 ‘아니’가 다음절어 앞에 올 수 없는

것은 중양어와 같다. (7나)에서 ‘벤’은 단음절어이면서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헛다’와 분리가 안 되며, 단일어처럼 쓰여서 부정소가 동사 앞에 놓였는데 이것은 중양어와 같다. (7다, 라)는 부사 상징어인데 부정소 ‘아니’가 부사와 동사 ‘헛다’ 사이에 삽입됨을 알 수 있다. 부사는 자립 형태소이며 ‘헛다’와 쉽게 분리가 가능하므로 부정소 ‘아니’가 동사 ‘헛다’와 통합한 것이다. “문작문작”은 ‘물건이 연하고 아주 부드러워서 만질만질하다’는 뜻이고, “빈찍빈찍”은 ‘반짝 반짝 빛난다’는 뜻이다.

다음에는 의문문에서 부정소 ‘아니’의 통사·담화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8) 가. 는 학교 아니 감시냐?¹⁵⁾ (너는 학교 안 가느냐?)

나. 책 아니 익으크라? (책 안 읽겠느냐?)

다. 우리 아원 집의 아니 와시냐? (우리 아이는 집에 안 왔느냐?)

라. 나 생각 아니 헨다? (내 생각 안했느냐?)

마. 이 옷 아니 고우냐? (이 옷 안 곱니?)

바. 이 집 아니 좋으냐? (이 집 안 좋니?)

사. 우리 어명 아니 ㄱ트냐? (우리 어머니 안 같니?)

(8)에서 부정소 ‘아니’는 ‘단순 부정’의 의미가 강하다. 물론 (8마~사)에서 부정소 ‘아니’는 평서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8가)에서 화자는 청자가 당연히 학교에 간다고 믿고 있는데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질문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소 ‘아니’는 단순히 ‘가는 동작’이 실행되지 않은 ‘단순 부정’이다. “왜 안 가니? 학교에 가라”라는 명령, 제안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8나)에서 부정소 ‘아니’는 읽는 동작을 부정하는 ‘단순 부정’의 의미이며, “너는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왜 읽지 않느냐”는 화자의 반문, 질책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8다)는 ‘오는 동작’이 부정되고 있으며, 집에 올 시간이 되었는데, 또는 지났는데 무슨 이유로 도착하지 않았느냐는 화자의

15) ‘감시냐’는 ‘가+암+시+냐’로 형태 분석할 수 있으며 ‘-암-’은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상 형태이다.

염려, 불안한 심리, 청자에 대한 원망 등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당연히 ‘집에 올 줄 알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여서 부정으로 질문할 수도 있다. (8라)는 “내 생각을 해 주지”라는 화자의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 화자는 청자의 행위를 기대했는데 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묻고 있다. 따라서 부정소 ‘아니’는 단순 부정의 의미이다.

(8마)에서 “이 옷이 정말 안 곱니?”라는 청자의 의견을 묻는 것일 수도 있고, “나는 이 옷이 곱다.”라는 화자의 단정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청자의 의견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싶은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8바)에서 “너는 이 집이 마음에 안 드니?”라는 청자의 생각을 묻는 것일 수도 있고, “나는 이 집이 좋다, 마음에 든다.”라는 화자의 긍정적인 생각, 단정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또는 화자가 판단에 자신이 없을 때 청자의 판단에 따르려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부정소 ‘아니’는 후행 상태 동사의 어떤 성질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8사)는 “우리 어머니 같다”라는 화자의 판단을 청자에게 확인하거나, 청자가 화자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아닌지를 묻고 있다. (8마~사)에서 보면 ‘곱다, 좋다, ㄹ트다(같다)’는 대체로 어떤 상태를 단순히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 의문문에서 부정소 ‘아니’는 부정 평서문에서보다 단순 부정의 의미가 강함을 알 수 있다.

평서·의문문에서 부정소 ‘아니’는 후행 요소로 동작 동사, 상태 동사 모두와 공기함을 알 수 있다. 부정소 ‘아니’에 의한 단형 부정문은 부정소 ‘못’보다 통사상의 제약을 덜 받으며, 후행 동사가 다음절어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도 제주 방언과 중앙어의 공통점인데, 차이점이라면 제주 방언의 경우 색채어와 몇몇 상태 동사에서는 단형 부정문이 성립함을 보았다. 부정소 ‘아니’는 거의 모든 동사와 공기하는데, 부정 어휘 ‘없다’·‘모르다’·‘알다’와는 공기하지 않는 통사 제약이 있다.

다음은 부정소 ‘아니’가 쓰인 단형 부정문에서 기본 의미인 ‘단순 부정’ 외에 발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담화상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9=4)가. 난 학교 아니 가켜.

- 나. 난 책 아니 익으쿠다.
- 다. 우리 아원 집의 아니 와서.
- 라. 느 생각 아니 헛저.
- 마. 이 옷 아니 곱다.
- 바. 이 집 아니 좋다.
- 사. 우리 어멍 아니 ㄱ트다.

부정문에서 초점이란 부정 대상(부정소 ‘아니’의 수식 대상)이며, 이것은 강세와 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부정 대상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므로 부정문은 중의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1)에서 보았듯이 부정소 ‘아니’의 일차 부정 대상은 후행 동사이다.

(9가)는 “다른 사람이 학교에 가든 말든 상관 없이, 나는 학교에 갈 생각이 없다”, “가기 싫다”는 뜻이다. 물론 선어말어미 ‘-(으)크’가 있어서 화자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화자가 일인칭이면 당연히 화자의 의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즉 화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거부’ 의사도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부정소 ‘아니’가 의지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서술어인 ‘가다’가 부정되면 그 영향이 부사어인 ‘학교’와 주어인 ‘나’에까지 미쳐서 문장 전체가 부정된다. 따라서 부정소가 쓰이면 그 문장은 부정문이 되는 것이다.

(9나)가 초점이 중립일 때 “책 읽는 행동을 멈추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들어 있다 즉 부정소 ‘아니’의 일차 부정 대상은 동사 ‘읽다’이며 ‘읽는 행위’를 제외한 다른 행동은 할 수 있다는(책을 만지거나, 그냥 보거나, 놔두거나 등) 뜻이기도 하고, 단순히 읽는 행동을 부정하는 뜻이기도 하다. 단순히 책을 읽지 않겠다는, 읽기 싫다는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일 수도 있다.

(9가, 나)에서 ‘화자의 의지’가 개입된 것은 형태소 ‘-(으)크’가 있어서이며, 주어가 일인칭일 때 선어말어미 ‘-(으)크’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아니’는 단순 부정의 의미이다.

(9다)에서 부정소 ‘아니’의 직접 부정 대상은 ‘오다’이며, ‘오다’의 주체는 ‘우리 아이’이므로 문장 전체가 부정되고 있다. 초점이 ‘우리 아이’에 놓이면(우리

아원 집이 아니 와서.) “우리 아이만 제외하고 다른 아이들은 왔다.”는 뜻이 되며, ‘오다’가 부정 대상이 되면(우리 아원 집이 아니 와서.) 단순히 ‘오는’ 동작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여기에 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갔다든가, 그냥 그곳에 있다든가 등, 우리 아이는 오기로 되어 있는데, 아니면 올 시간이 지났는데 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기서 ‘아니’는 단순히 오지 않은 사실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단순 부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부정소 ‘아니’가 화자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결어미 ‘-저’ 때문이며 ‘하다’를 한정, 부정하고 있다.

(9라)에서 명사 ‘생각’은 ‘하다’와 분리할 수 있는 어근이어서 부정소 ‘아니’가 ‘생각’과 ‘하다’ 사이에 개입되어서 ‘하다’를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하는’ 대상이 ‘생각’이 된다. 이 때 부정소 ‘아니’는 단순 부정인데, 종결어미 ‘-저’가 있어서 ‘의지 부정’의 의미를 지닌 것처럼 느껴진다. “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하기 싫어서 안 했다” 등의 뜻이다.

(9마)에서 부정소 ‘아니’의 부정 대상이 ‘웃’이면 다른 것에 비해 “이 웃은 네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해석이 되며, 부정 대상이 ‘곱다’이면 “이 웃은 곱지 않고 다른 웃은 곱다”는 뜻이다. 이 문장에서 지시어 ‘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해석이 가능하며, ‘안 고운 정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부정소 ‘아니’는 ‘단순 부정’의 의미이다. (9바)에서 초점이 ‘집’에 놓이면 지시어 ‘이’가 있어서 더 확실하지만 “이 집은 안 좋고 다른 것(집과 관련된 사물들, 집의 구조 등)은 좋다.”가 될 수 있다. 초점이 ‘좋다’에 놓이면 “이 집은 안 좋고 다른 집은 좋다.”는 뜻이다. 물론 ‘안 좋은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9마, 바)에서 상태 동사 ‘곱다, 좋다’가 부정이 될 때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어서 감정적인 좋고 나쁨(好, 不好)이 선택된다. 즉 화자의 주관적인 심정, 심리 상태가 표현되었다.

(9사)에서도 부정소 ‘아니’는 ‘같다’를 부정하며 그 주체인 ‘우리 어머니’까지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 같은 정도’를 의미하므로 이 때의 부정소 ‘아니’는 ‘단순 부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9마~사)에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하는 ‘~한 정도’를 나타내므로 부정소 ‘아니’를 ‘단순 부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이 내포되어 있다.

(9가~라)에서 부정소 ‘아니’에는 ‘주어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으나, (9마~사)에서 상태 동사와 쓰인 부정소 ‘아니’에는 ‘주어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는 ‘단순 부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웃, 집, 우리 어머니’가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부정소 ‘아니’가 ‘의지 부정’으로 해석되는 것은 주어인 동작주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어가 1인칭일 때는 당연히 주어의 의지·의도가 내포될 수밖에 없다. 부정소 ‘아니’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순 부정’인데, 담화 상황에 따라서 ‘의지 부정’의 부차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9마~사)는 1인칭 ‘나’가 생략된 문장이다. 즉 “나는 -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 따라서 ‘아니’는 동작 동사, 상태 동사와 공기할 수 있고, 그 의미가 ‘단순 부정’임을 알 수 있다.

(9)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소 ‘아니’의 일차 부정 대상은 후행 동사인 서술어이며 부사로서의 한정 기능을 갖고 있다. 서술어의 주체, 대상 등이 초점에 따라 부정되므로 부정의 영역은 문장 전체라고 할 수 있다. 단형 부정문이 장형 부정문보다 제약이 있는 것은 부정소 ‘아니’에 후행하는 동사의 성질에 따른 것이며, 의미 또한 후행 동사와 동작주의 관계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부정소 ‘아니’가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후행 요소와 담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즉 부정소 ‘아니’의 기본 의미는 ‘단순 부정’인데 화자의 의지가 내포된 경우에는 ‘행동주의 의지 부정’(또는 자의 부정, 의도 부정, 행위 부정)이라 하며, 단순히 객관적인 상황일 때는 ‘단순 부정’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부정소 ‘아니’는 ‘화자의 의지’ 유무에 의해서 의미 구별을 하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단순히 부정의 의미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1.2 부정소 ‘못’의 기능

앞에서 부정소 ‘아니’의 쓰임을 보았는데 여기서는 부정소 ‘못’의 여러 기능

을 살펴보겠다.

여러 논자들이 정의한 부정소 '못'의 의미를 정리하면, ① 능력 부정(박상규 1977 : 20 ; 신원재 1987 : 97 ; 여찬영 1975 : 170 ; 류광식 1990 : 24), ② 타의 부정, 평가 부정(김동식 1980 : 68), ③ 불능(박병채 1989 : 199 ; 김민수 1971 : 282), ④ 불급 부정(임홍빈 1987 : 80), ⑤ '능력', '가능성'에 대한 부정(한 길 1977 : 19) 등이 있다.

따라서 부정소 '못'에는 '타의 부정'의 의미가 강함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여러 의미 기능으로 실현되는 것은 부정소 '못'에는 '외부 원인'이라는 상황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10) 가. 난 글 못 쓴다. (나는 글을 못 쓴다.)

나. 난 말 못 골았저. (나는 말을 못 말했다.)

다. *가원 못 으망저. (*그 아이는 못 야무지다.)

라. *나 모습엔 이디 못 좋다. (*내 마음에는 여기가 못 좋다.)

(10)에서 부정소 '못'은 후행 요소인 '쓰다, 골다(말하다)' 등 동작 동사와는 공기하는데, '으망저다, 좋다' 등 상태 동사와는 공기하지 못하는 통사 제약이 있다. 따라서 부정소 '못'은 동적인 의미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후행 요소에 제약이 있는 것은 부정소 '못'에 후행 동사의 동작을 실행할 수 없다는 '불능', '타의 부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소 '못'은 주로 동작 동사와 결합되며, 서술어가 상태 동사인 경우 "이 집은 좋지 못하다."처럼 장형 부정문에서만 성립한다.

(10)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소 '못'이 '-르 수 없다'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능력 부정', '타의 부정'의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때 "~할 수 없는 이유"가 외부에 있다. 즉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경우 모두가 가능하다. 부정소 '아니'와 마찬가지로 부정소 '못'도 '주어진 명제'를 단순히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작 동사와만 공기하면서 '타의 부정'의 기본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부정소 '못'은 '할 수 없음', '불가능'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의미는 동작성과 결부되

어야 하기 때문에 동작 동사하고만 어울리며 동작성이 결여된 상태 동사하고는 공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부정소 '못'의 의미가 후행 동사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소 '못'에는 부정적인 상황이 존재하는데, 이 '상황'이라는 것은 화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상황의 개입이 있어서 동작 동사를 필요로 한다.

다음은 의문문에서 부정소 '못'의 의미·통사 기능이 어떤지를 알아보겠다.

(11)가. 는 글 못 쓰크냐? (너는 글 못 쓰겠니?)

나. 는 말 못 곶아시냐? (너는 말 못 했느냐?)

다. *가원 못 으망지냐? (*그 아이는 못 야무지냐?)

라. *느 믱슴엔 이디 못 좋으냐? (*네 마음에는 여기가 못 좋으냐?)

(11가)에서 화자는 청자가 당연히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질문하고 있다. 즉 “왜 못 쓰겠니? 글을 써라”라는 명령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쓰지 못하는’ 이유가 외부, 내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1나)는 ‘말을 못한’ 이유가 청자의 능력이나, 처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 라는 나무람의 뜻도 있으며, 단순히 의사 전달이 안 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11가, 나)에서 부정소 ‘못’에는 청자에 대한 질책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11다, 라)는 부정소 ‘못’에 후행하는 요소가 상태 동사여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됨을 알 수 있다.

(11)을 (10)과 비교해 보면, (11)에서 부정소 ‘못’의 기본 의미는 ‘타의 부정’임을 알 수 있다. 명령·청유문이 되려면 ‘-지 말다’에 의한 장형 부정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정소 ‘아니’·‘못’은 평서·의문문에서만 성립한다.

(12)가. 영희가 청소를 {아니/ 못} 했다.

나. 오늘은 아니 춡다/ *못 춡다.

(12)는 중앙어인데 제주 방언인 (10, 11)과 그 쓰임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부정소의 통사 기능을 보면 부정소 ‘아니’보다 부정소 ‘못’이, 장형 부정문보다 단형 부정문의 제약이 심함을 알 수 있다.

부정소 '못'이 상태 동사와 공기할 수 없는 것은 부정소 '못' 자체에 화자의 의지, 의도가 내포될 수 없고 다만 화자의 실행 가능한 능력 여부, 주변 상황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작 동사는 '어떤 동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부정소 '못'과 공기하지만, 상태 동사는 '어떤 상태'만을 나타내며, 상태 동사 자체가 의도적인 행동을 할 수 없으므로 '외부' 원인에 의한 부정소 '못'과는 공기할 수 없는 것이다.

부정소 '못'이 '타의 부정'의 의미 외에 (13)처럼 다른 의미로도 쓰인다.

(13) 가. 어디 강 도둑질 할 수도 못 웬고.

(어디 가서 도둑질할 처지도 못되고/도둑질할 수도 없고.)

나. 임금질할 자격이 못 웬 사람이다.

(임금 노릇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다. 차마 그 양반을 죽이렐 헝기가 못 웬엔 꺾치 드란 살게 웬었수다.

(차마 그 양반을 죽이라고 하기가 안 되어서 같이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라. 느네 이런 짓 헝민 못 웬다. (너희들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마. 사람의 집이 못 웬젠 헝난. (사람 사는 집이 안 되려고 하니.)

(13)에는 부정소 '못'이 쓰이기는 했지만 (10)의 기능과는 다른 문장이다. (13가, 나)에서 부정소 '못'은 '없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13다~마)에서는 부정소 '아니' 대신 쓰이고 있다. 여기서 '못+웬다'가 통합할 때에만 '아니'·'없다'의 뜻으로 쓰인다.

(13가)에서 '못 웬고'는 '도둑질할 수 있는 처지나 상황이 못 된다는 뜻과,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며, "사회적·도의적 양심 때문에 도둑질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부정소 '못'에는 '타의 부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화자가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객관성을 부여하면서 탄식하는 심리 상태가 드러난다. 그래서 간접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없다' 대신에 '못 웬고'를 발화하고 있으며, 부정소 '못'은 '타의 부정'의 의미가 있어서 화자의 의사가 간접적으로 반영됨을 알 수 있다. (13나)에서 '못 웬'이 쓰인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을 ‘타의 부정’의 ‘못’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못 웨다’는 ‘자격이 될 만한 여러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13다)에서 ‘못 웨다’가 ‘안 되다’ 대신 쓰인 것은 “그를 죽게 하는 것은 참 안 된 일이다” 정도로 다시 해석이 되며, 그를 살리려는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단순 부정의 ‘아니’보다 타의 부정의 ‘못’이 쓰여서 화자의 심리 상태가 반영된 내부 원인으로 돌리고 있으며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13라)는 중앙어에서 ‘~하면 못 써’와 비슷하다. 부정소 ‘못’은 ‘나쁜 행동’의 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나쁜’의 조건이 외부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소 ‘못’이 쓰였으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3마)는 ‘집이 망하는 이유’가 외부에 있음을 뜻하므로, 단순 부정의 ‘아니’보다 ‘타의 부정’의 ‘못’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강조한다고 생각된다.

(13)은 중앙어와는 다른 제주 방언의 통사 특성을 보여 준다. 원래 발화시 부정소 ‘아니’나 부정 어휘 ‘없다’ 등 문장에 적합한 부정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웨다’ 앞에서만 부정소 ‘못’이 쓰여서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도 있지만, 화자는 ‘타의 부정’의 ‘못’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중앙어에서 “그는 참 못 됐다.”와 같이 화자의 부정적인 원망, 단정이 들어 있는 문장과 비슷하다. 여기서 부정소 ‘못’의 의미는 “타의 부정+화자의 의도”라 할 수 있다. 물론 ‘웨다’와 쓰여서 부정소 ‘못’의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제주 방언에 쓰인 부정소 ‘못’도 대체로 중앙어에서의 의미·통사 기능과 다를 바 없으나, (13)에서 그 쓰임이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독특하다는 것은 제주 방언 토박이 화자들은 지금도 상황에 따라서 이 문장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물론 중앙어에서도 강조할 때 이 표현은 가능하다.

다음은 부정소 ‘못’의 담화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14=10) 가. 난 글 못 쓴다.

나. 난 말 못 골았저.

다. *가윈 못 으망저.

라. *나 믈스엔 이디 못 좋다.

(14)도 초점에 따라 부정 내용이 달라지지만 초점이 중립일 때는 동사가 부정된다. 예문 (1)에서 보듯이 부정소 ‘못’은 후행 동사를 부정하고 있다.

(14가)에서 부정소 ‘못’은 ‘쓰다’를 한정, 부정하며, ‘못 쓰는’ 대상은 ‘글’이다. “글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화자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외부에 있을 수 있다. 즉 “글을 쓰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손이 아파서, 필체가 안 좋아서, 쓸 줄을 몰라서” 등 화자가 처한 상황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글을 쓰기 싫어서’ 하는 발화일 수도 있다. 이 때에 화자는 청자에 대한 강한 거부나 저항의 뜻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14나)에서 ‘말하지 못한’ 원인이 외부에 있을 때에는 “말할 시간이 없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등이며, 화자가 의도적으로 말하기 싫은 경우나, 청자에 대한 거부일 때에도 이 표현이 가능하다.

(14다)가 비문법적인 것은 상태 동사 ‘으망지다’가 자신의 의지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성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의 부정인 ‘못’과는 공기할 수 없다. ‘그 아이’의 능력과 관계없이 제삼자가 판단하기 때문이다. (14라)가 비문법적인 것 역시 부정소 ‘못’이 상태 동사 ‘좋다’와 쓰였기 때문이다. ‘좋다’는 화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평가여서 그 원인을 개인의 능력이나 외부로 돌릴 수 없다.

(14다, 라)에서 ‘으망지다’, ‘좋다’는 주어의 의지나 외부 원인 등이 개입할 수 없으며, 화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는 심리 상태나 가치 평가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여서 ‘타의 부정’의 ‘못’과는 공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부정소 ‘못’이 상태 동사와는 공기할 수 없다는 통사적인 제약도 보여준다. 즉 상태 동사는 능력의 측면이 배제되며 행동주도 설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부정소 ‘못’도 부정소 ‘아니’처럼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부정의 원인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타의 부정’을 기본 의미라 하는 것이며, 부정소 ‘아니’나 부정소 ‘못’의 기본 의미가 다른 것은 두 부정소가 각각 구별 사용됨을 뜻하는 것이다.

단형 부정문에서 부정소 ‘아니’나 ‘못’의 선택은 후행하는 동사 특성에 기인함을 보았다. 단형 부정문¹⁶⁾이 우세한 것은 발음상의 노력의 경제성과도 관련

16) 황병순(1980가: 136)을 보면 “경상도 지역어는 언어의 改新이 이루어지지 않아 口

이 있으며, 화자의 생각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려는 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실제 회화시에는 간단한 의사 전달이 목적이므로 단형 부정문을 주로 사용한다. 다시 말하자면 제주 방언에서 실제 발화시 단형 부정문이 장형 부정문보다 사용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단형 부정문의 여러 기능을 논의한 결과 제주 방언이 중앙어와 공통점이 많았다. 따라서 제주 방언의 단형 부정문은 중앙어와 유사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다른 점이라면 부정소 ‘아니’의 통사 제약 현상이다. 즉 중앙어에서 부정소 ‘아니’는 다음절어에 선행할 수 없는데, 제주 방언에서는 가능했고(예문 (6)), 부정소 ‘못’이 ‘타의 부정’의 의미 외에 부정소 ‘아니’나 부정 어휘 ‘없다’의 의미로 쓰이는 현상도 있음(예문 (13))을 보았다.

2.2. 장형 부정문

중앙어 부정법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하나의 긍정문에 대응하는 부정문이 두 가지로 실현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을 동일 구조로 볼 것인가의 여부, 두 부정문의 의미가 동일한가의 여부, 장형 부정문에 나타나는 보문소 ‘-지’와 명사화소 ‘-기’의 동일 기원설, 포괄동사 ‘하다’의 문법적인 기능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장형 부정문은 부정소 ‘아니’와 ‘못’에 동사 ‘하다’가 통합된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와 ‘못하다’가 보문소 ‘-지’와 함께 쓰인다. 단형 부정문은 후행 요소의 선택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통사상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는 장형 부정문이 출현했다고 보며, 중세 국어에서부터 두 유형의 부정문이 보편화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 절에서는 위와 같은 여러 문제가 제주 방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다.

語的인 표현법인 I 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경상도 방언만의 특징이 아니라 제주 방언에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제주 방언의 경우 중앙어보다 단형 부정문의 쓰임이 우세한 것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기초 자료와 실제 조사 결과임) 여기서 ‘I 형’은 단형 부정문을 뜻한다.

2.2.1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의 기능

최현배(1971 : 397)은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는 “하지 아니함(不爲)을 보이는” 부정 보조동사로 처리하고, ‘-지 아니하-’를 묶어서 하나의 서술어로 다루고 있다. 제주 방언에서는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보다 ‘아녀다’¹⁷⁾가 빈번히 쓰인다. 부정소 ‘아니’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했으므로 여기서는 장형 부정문의 통사·담화 기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장형 부정문의 통사 구조(예문 2)를 보면 단형 부정문을 기저 구조로 해서 부정소의 이동이 나타나면서 동사 ‘하다’와 결합해서 서술어가 되었고, 일차 부정 대상은 선행 동사이지만 단형 부정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초점 위치에 따라 부정되는 대상이 달라진다.

- (15) 가. 난 이디 살지 아니헝키여. (나는 여기 살지 않겠다.)
나. 난 이제 좀 자지 아니헝켜. (나는 이제 잠 자지 않겠다.)
다. 방이 깨끗헝지 아녀우다. (방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라. 그건 어렵지 아니헝우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 날이 어둡지 아니헝다. (날이 어둡지 않다.)
바. 방이 붉지 아니헝다. (방이 밝지 않다.)

(15)에서 보듯이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의 선행 요소는 동작 동사, 상태 동사 모두 허용되고 있으며, 부정 대상은 우선 선행 동사가 된다. 여기에서도 부정소 ‘아니’는 역시 단순 부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부정소 ‘아니’는 통사 제약이 일부 있는 데 비해서(다음절 상태 동사와 쓰이는 경우 단형 부정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는 선행 요소의 제약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보문소 ‘-게’와 호응하는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못하다’의 통사 기능을 살펴보겠다.

17) “아니하다>아니허다>아녀다”가 되었다. 실제 발화시에는 ‘아녀다’가 빈번히 쓰이지만 논의 전개상 ‘아니하다’를 기본형으로 삼는다.

(16) 가. 나가 떡을 먹게 아니했저. (내가 떡을 먹게 안했다.)

나. 나가 책을 보게 못했저. (내가 책을 보게 안했다.)

다. 즐겨 자게 아니하리. (번노 上, 46)

라. 能히 이룰 브르게 못흐면. (능엄경언해 1 : 32, 홍종선 1986 : 255)

(16가, 나)는 제주 방언이며, (16다, 라)는 중세 국어이다. 제주 방언이 중앙어보다 보문소 ‘-게’와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의 공기 관계가 자유로운 통사 특성이 있다.

(16가)에는 주어가 의도적으로 ‘먹는 행동’을 막았다는 ‘의지 부정’의 의미가 있으며, 초점이 ‘나’에 놓이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먹게 했다, 또는 동작 주 스스로 먹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초점이 ‘떡’에 놓이면 ‘떡’을 제외한 다른 것을 먹게 했다는 뜻이 된다. (16나)는 주어가 대상(목적어)으로 하여금 ‘책을 보는 행동’을 막았다는 ‘의지 부정’의 의미로 해석된다. 즉 “일부러 못하게 했다”는 뜻이다 (16다)에서 ‘아니하다’에는 화자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어서 ‘의지 부정’의 의미가 강하고, (16라)에는 ‘타의 부정’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16)은 보문소 ‘-게’와 부정 서술어 사이에 ‘하지’의 생략으로 보지 말고, 부정 서술어가 보문소 ‘-게’와 공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시적으로 타당하다.

다음은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가 쓰인 장형 부정문의 담화 기능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15가)는 주어의 의지가 내포된 ‘의지 부정’으로 쓰이고 있는데, 의도의 선어말어미 ‘-(으)크-’가 있어서 그 의미가 강조되는 것뿐이고, 단순 부정으로 봐도 좋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여기에 살기 싫다”는 뜻이다. 이 문장에서 ‘살다’는 ‘머무르다, 거주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살다’에 초점이 놓이면 ‘거주하는’ 행위를 제외한 다른 행동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15나)에도 선어말어미 ‘-(으)크-’가 쓰여서 화자의 의지 부정을 나타내고 있지만 단순히 발화된 문장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즉 잠을 많이 자서 더 이상 잘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나, 졸리기는 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겠다는 뜻이기도 하

다.

(15다)는 “방이 더럽다”를 전제로 한다. 초점이 ‘방’에 놓이면 “방은 더럽고 다른 곳은 깨끗하다”는 뜻이며, ‘깨끗하다’를 부정하면 ‘더러운 정도’인데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럽다’라는 표현보다는 완곡하고 그 정도가 가벼움을 알 수 있다. ‘깨끗하다’는 다음절어여서 단형 부정문(‘아니 깨끗하다’)은 성립하지 않는데 장형 부정문에서는 성립함을 알 수 있다. (15라)에는 “그 일은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화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 있다. (15다, 라)에서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단순 부정’이라 할 수 있다. 즉 “깨끗한 정도, 어렵지 않은 정도” 등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차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15마)는 화자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역시 ‘단순 부정’의 ‘아니’로 파악할 수 있으며, (15바)도 ‘밝지 않은 것’이 화자의 판단과는 무관하므로 ‘단순 부정’으로 볼 수 있다. (15마, 바)에는 ‘주어의 의지’는 배제되지만 화자의 의사가 조금은 개입될 수 있다. ‘어두운 정도’, ‘밝은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5다~바)에서 ‘더럽다, 쉽다, 밝다, 어둡다’라는 직설적인 표현이 아닌 부정문으로 표현된 것은 화자의 의사가 부드럽게 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쓰인 상태 동사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사회의 통념상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그 의미는 ‘단순 부정’이다.

(15가, 나)는 동작 동사의 행동을 부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뜻으로 ‘단순 부정’으로 쓰이고 있는데, (15다~바)는 상태 동사를 선행 요소로 취하고 있어서 그 상태를 부정하고 있다. 상태 동사(심리 동사)의 부정 기준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화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존해서 판단하기 쉽다.

(15)에서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는 ‘단순 부정’의 기본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형·장형 부정문이 초점에 따라 부정되므로 중의성을 띠며 단형 부정문과 동일한 해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부정소 ‘아니’는 형식상 후행 동사 ‘하다’를 부정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선행 동사를 부정한다. 초점이 중립일 때 단형 부정문에서도 부정소 ‘아니’는 후행 동사를 부정한다. 따라서 단형·장형 부정문의 의미는 동일하다.

단형 부정문은 부정되는 내용이 단정적인데 비해, 장형 부정문은 화자의 의사를 완곡하게 전달하는 심리적인 차이가 있다. 이것은 문장의 길이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강, 약으로 표현하려는 의식적인 발화로도 볼 수 있다.

2.2.2 부정 서술어 ‘못하다’의 기능

최현배(1971 : 397)에서 부정 서술어 ‘못하다’는 “할 수 없음(不能)을 보이는” 부정 보조동사로 다루고 있다. 부정 서술어 ‘못하다’는 부정소 ‘못’과 동사 ‘하다’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이 때 부정소 ‘못’의 기본 의미가 ‘타의 부정’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17) 가. 난 문 열지 못하켜. (나는 문을 열지 못하겠다.)

나. 나 마음이 좋지 못하다. (내 마음이 좋지 못하다.)

다. 난 말을 타지 못해서. (나는 말을 타지 못했다)

라. 난 이 사람을 조들루지 못해서 (나는 이 사람을 괴롭히지 못했다)

마. ?날이 어둡지 못하다. (?날이 어둡지 못하다.)

바. *신선은 늙지 못한다. (*신선은 늙지 못한다.)

사. *난 아프지 못했져. (*나는 아프지 못했다.)

(17가~라)에서 부정 서술어 ‘못하다’는 부정소 ‘못’과 같이 타의 부정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선행 요소는 ‘아니하다’와 마찬가지로 동작 동사, 상태 동사와 공기함을 알 수 있다. (17다, 라)에서 ‘못해서’는 ‘못+호+아시+어’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아시-’는 완료 존속상이며, ‘-어’는 종결어미이다.

(17나)와 같은 상태성 서술어의 경우 단형 부정문에서 부정소 ‘못’은 그 능력 부정의 의미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지만, 장형 부정문은 능력 부정의 의미 특성보다는 “어떤 상태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불급 부정”(임흥빈 1987 : 80)의 의미 특성을 보다 강하게 가져서 성립한다.

(18) 가. *못 곱닥하다 → *곱닥 못 하다/ 곱닥하지 못하다.

- 나. *못 딱딱하다 → *딱딱 못 하다/ 딱딱하지 못하다.
- 다. *못 부치럽다 → *부치럽지 못하다.
- 라. *못 거멍하다 → *거멍 못 하다/ 거멍하지 못하다.
- 마. *못 노랑하다 → *노랑 못 하다/ 노랑하지 못하다.
- 바. *못 퍼렁하다 → *퍼렁 못 하다/ 퍼렁하지 못하다.
- 사. *못 벌겍하다 → *벌겍 못 하다/ 벌겍하지 못하다.
- 아. *못 하얗하다 → *하얗 못 하다/ 하얗하지 못하다.

(6)과 (18)을 비교해 보면 부정소 ‘못’은 단형 부정문에서 다음절 상태 동사와 공기하지 못하며, 부정소 ‘아니’처럼 상태 동사와 ‘하다’ 사이에도 쓰일 수 없다. 따라서 부정소 ‘못’은 단형 부정문에서 동작 동사에 선행한다는 통사 특성이 제주 방언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장형 부정문인 경우 부정 서술어 ‘못하다’는 상태 동사와 공기한다. (18다)에서 ‘부치럽다’(‘잘못해서 부끄럽다, 내성적이어서 부끄럽다’의 의미가 있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인 상태 동사여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 * (19) 가. 못 간세한다/ 간세 못 한다/ 간세하지 못한다.
- 나. 못 벤헛저/ 벤 못 헛저/ 벤하지 못헛저.
- 다. 못 문작문작하다/ 문작문작 못하다/ 문작문작하지 못하다.
- 라. 못 빈쩍빈쩍하다/ 빈쩍빈쩍 못하다/ 빈쩍빈쩍하지 못하다.

(19)가 비문법적인 것은 선행 요소의 특성에 기인한다. ‘간세하다(게으르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인 어휘여서 안 되고, ‘벤하다(변하다)’는 변하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타의 부정’의 ‘못하다’와는 공기할 수 없다. 부사 상징어는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함을 뜻하는 단순 부정은 가능하지만 못하게 하는 원인이 없으므로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통사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부정소 ‘못’의 의미에 따른 것이다.

부정소 ‘못’은 선행 요소가 [+동작]의 의미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부정 서술어 ‘못하다’는 [-동작]이어도 가능하다. 따라서 단형 부정문에 비해서

동사의 선택에 제약을 덜 받는 장형 부정문이 더 생산적일 수 있다.

다음은 보조사와의 쓰임을 통해서 통사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 가. 여즈가 몰 타 보도 아니헛다. (여자가 말을 타 보지도 않았다.)

나. 나신디 주도 안헛 가 불엇다. (나에게 주지도 않고 가 버렸다.)

다. 업영 가도 못흐고. (업어서 가지도 못하고.)

라. 이런 말은 어디 강 잘 듣도 못흐여.

(이런 말은 어디 가서 잘 듣지도 못한다.)

(21) 가. 善容이 對答호디 보도 문흐며 듣도 문거니. (석상 24 : 28)

나. 키 격도 크도 아니흐고. (월인 1 : 26)

(20), (21)에서 보듯이 제주 방언과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도’와 통합될 때에 보문소 ‘-지’의 생략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중앙어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이는 보조사 ‘도’가 ‘또한, 역시’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보문소를 생략해도 문맥 의미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외 다른 조사와의 통사 관계를 보면 (22)와 같다.

(22) 가. 이 배는 크지(가/를/는/만/도) 아녀주/못흐주.

나. 그 사름은 방안에 들어오지 (*가/를/는/만/도) 못헤서/아니헤서.

(22가)에서 ‘크다’라는 상태 동사는 여러 조사와 통합되는데, (22나)에서 조사 ‘가’는 ‘들어오다’라는 동작 동사와는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 즉 조사 ‘가’는 상태 동사와만 통합하고 동작 동사하고는 통합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격조사라고 부르는 ‘-이/가’는 보문소 ‘-지’와 결합되면서 “-이/가’는 정적인 상황과 관련되는 주제 표지를 나타내는 주제격”으로 보는 견해(임홍빈1973 : 23)도 있다. 보조사와의 통합은 부정 서술어의 영향과는 무관하며 선행구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각 조사의 의미 기능과 관계가 있다.

단형 부정문인 경우에는 “부정소+보조사+동사”의 쓰임이 가능하지 않으나 장형 부정문에서는 가능하다 즉 “동사+-지+보조사+부정 서술어”가 성립한다. 이렇게 조사가 있을 때에는 부정문의 의미가 분명해서 중의성이 배제되는데, 조사 개입이 없을 때는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형 부정문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중의성이라고 규정하기가 곤란한데, 이는 단형 부정문의 통사 구조상 조사의 쓰임이 어렵기 때문이다.

장형 부정문에서 부정소 ‘아니’와 ‘못’은 형식적으로 후행하는 ‘하다’를 한정, 부정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서술어에 선행하는 본동사를 부정한다. 초점이 중립일 때에는 단형 부정문과 마찬가지로 동사가 부정되면서 문장 전체는 부정문이 된다.

예문 (17)을 통해서 부정 서술어 ‘못하다’의 담화 기능을 보면 아래와 같다.

(17가)에서 ‘못하다’에는 타의 부정, 능력 부정의 의미가 들어 있으며, 의지의 선어말어미 ‘-(으)크-’가 있어서 화자의 거부 의지가 반영된 것처럼 여겨진다. 화자가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거나, 문을 열기 싫어서 하는 발화일 수도 있다. (17나)는 부정 서술어가 상태 동사인 ‘좋다’에 후행하고 있는데 화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있어서 좋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 부정소 ‘못’은 타의 부정으로 볼 수 있다. 문장이 성립하는 것은 화자의 기준에 의한 평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17다)에서도 부정소 ‘못’의 의미는 타의 부정이라 할 수 있다. “내가 말을 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타기 싫을 때도 이 발화는 가능하다. (17라)에서 선행 동사를 부정하면 주어가 대상을 괴롭히고 싶는데 외부 원인 때문에 괴롭힐 수 없었다는 뜻이다. (17마)에서 ‘날이 어둡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어서 어색하기는 하지만 보통 ‘어둡다’라고 했을 때의 기준이 가능하며, 화자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문장이 성립한다. 즉 어떤 일을 하려면 날이 어두워져야 하는데 아직 어둡지 않아서 시작할 수 없다는,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뜻이다. (17바)에서 ‘늡다’는 인간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어서 ‘늡는’ 이유가 없기도 하지만, ‘신선’은 ‘늡지 않는다’는 고정 관념이 있기 때문에 비문법적이다. (17사)에서 인간은 보편적으로 질병을 원하지 않으므로 화자가 거부하게

나, 아프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타의 부정’의 서술어 ‘못하다’와는 공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화자 자신이 아프기를 바랐는데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아니면 누군가 화자가 아프기를 원했는데 아프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빈정거림의 의미가 들어 있다. (17바, 사)에서 부정 서술어 ‘못하다’가 쓰이지 못하는 것은 부정소 ‘못’에는 ‘완성, 가능성, 긍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이다.

따라서 (17바, 사)에서 ‘늑다, 아프다’인 동사는 외부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타의 부정의 부정 서술어 ‘못하다’와는 공기할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문법적이지 못한 것은 “화자가 원하는 상태가 아닌, 바람직하지 않은 뜻을 가진” 동사이기 때문이다(김동식 1980 : 76). 그러나 ‘늑다, 아프다’는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지 화자의 의지나, 주변 상황에 의해서 그 원인이 제거될 수 없는 동사이다. 그래서 화자의 능력이거나 거부가 반영될 수 있는 어휘가 아니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을 뜻하는 동사일 때는 부정 서술어 ‘못하다’와 공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부정 서술어 ‘못하다’는 상태 동사와 공기하는 데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정소 ‘못’의 의미는 단형 부정문에서의 의미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유형의 부정문이 동일 심층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의미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예문 (15), (17)에서 보듯이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는 통사적인 제약이 없는데 비해서 부정 서술어 ‘못하다’는 약간의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형 부정문에 비하면 거의 제약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에는 부정소 ‘아니’의 의미가, 부정 서술어 ‘못하다’에는 부정소 ‘못’의 의미가 있어서 두 부정 서술어는 의미 차이가 나타난다. 즉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못하다’의 기본 의미가 다르기도 하지만 선행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부정 서술어가 선택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두 유형의 부정문이 갖는 중의성(부정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부정법을 연구한 많은 논자들은 단형·장형 부정문의 중의성을 부정의 영역(범위)과 관련해서 보고 있으며, 부사나 수량어, 보조사 등의 결합 관계에 따

라 의미 해석의 다름을 보이고 있다. 즉 통사적 특성 외에 화용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중양어 부정법에서는 우선 두 부정문의 기저 구조 설정이 논의되어 왔다. 즉 부정소 ‘아니’와 ‘못’이 동사 앞에 오는 단형 부정문과, 동사 뒤에 위치해서 ‘하다’와 결합하는 장형 부정문이 있는데, 이들이 동일한 기저 구조에서 나온다는 일원론과 그 기저 구조가 다르다는 이원론이 대립되었다. 일원론(박순함 1967, 이홍배 1970, 오준규 1971, 서정수 1974, 양인석 1974, 이기용 1979, 김동식 1980)은 두 유형을 한 긍정문에 대응되는 동의문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표면 구조가 다른 두 문장이라 해도 그들이 동의라면, 동일한 기저 구조에서 형성된다는 논리에 따라 당연히 기저 구조가 같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비해 이원론(송석중 1967/1993, 임홍빈 1973/1978)은 우선 통사 구조의 상이성에 따른 의미상의 차이에 두었다. 즉, 두 부정문의 기저 구조가 다르다고 보는 입장이다. 일원론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원론인 경우 단형 부정문은 동사만 부정되고 장형 부정문은 복문이며 문장 전체가 부정되어서 중의성을 띤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두 부정문 모두 중의성을 띤다. 임홍빈(1973)과 송석중(1967)은 중의성을 띤다는 입장에서 일원론을 반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원론의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지만, 이원론의 측면에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원론의 측면에서 임홍빈(1973, 1978)은 단형·장형 부정문의 의미가 다른 것은 수량어나 빈도 부사 등이 있을 때를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수량어, 빈도 부사가 쓰일 때에는 한정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런 요소를 갖고 두 부정문의 의미 차이를 규정하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라 하기가 곤란하다.(임홍빈 1987에서는 단형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3) 가. 난 자주 안 놀았져. (나는 자주 안 놀았다.)

나. 난 자주 놀지 아니했져.

(24) 가. [난 [안 [자주 놀았져]]] / [난 자주 [안 놀았져]]

나. [난 [자주 [놀지 아니했져]]] / [난 [자주 놀지] 아니했져]]

(23)의 긍정문은 “난 즈주 놀았저.”이며, 빈도 부사 ‘즈주’가 쓰였지만 두 부정문의 뜻은 같다. 즉 “나는 놀긴 놀았는데 자주 논 것이 아니고(‘안 논 것이 자주’라는 뜻이다.) 가끔씩 놀았다.”는 뜻이다.

(24)에서 단형·장형 부정문의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 부정의 영역에 따라 중의성을 띠는 것은 두 부정문 모두 같다. 즉 동일 긍정문에 대한 두 유형의 부정 형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5)가. 난 밥 하영 안 먹었저. (나는 밥을 많이 안 먹었다.)

나. 난 밥 하영 먹지 아니했저.

(26)가. [안 [하영 먹었저]] / [하영 [안 먹었저]]

나. [하영 [먹지 아니했저]] / [[하영 먹지] 아니했저]

(25)의 긍정문은 “난 밥 하영 먹었저.”이며, ‘하영(많이)’인 수량어가 쓰인 부정문의 두 형식이다. (25)는 초점이 중립일 때는 “나는 밥을 먹기는 먹었지만 많이 먹지 않고 조금만 먹었다.”라는 뜻이어서 두 부정문 모두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7)가. 그 술 문딱 안 먹었저. (그 술을 전부 안 먹었다.)

나. 그 술 문딱 먹지 아니했저.

(28)가. [안 [문딱 먹었저]] / [문딱 [안 먹었저]]

나. [문딱 [먹지 아니했저]] / [[문딱 먹지] 아니했저]

(27)에 대한 긍정문은 “그 술을 문딱 먹었저”이다. (28)에서 부정의 영역을 보듯이 두 유형의 부정문 모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그 술을 먹기는 먹었는데, 전부 먹은 것이 아니고 일부만 먹었다.”는 뜻과,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부정문에서 수량어나 빈도 부사 등이 있으면 부정 영역이 달라지며 중의성

을 띠는데, 이것은 단형·장형 부정문 모두 적용된다. 수량어, 빈도 부사 등이 부정사의 범위 속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부정 영역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런 요소를 제거했을 때 단형·장형 부정문은 동일한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부정문의 중의성은 두 유형의 부정문의 기저 구조와 관계 없다. 그러므로 수량어나 빈도 부사가 있을 때 중의성을 띤다고 해서 두 부정문의 뜻을 다르게 처리할 수는 없다.

송석중(1967/1993)도 이원론을 주장했다. 그는 동일한 심층·의미 구조에서 서로 다른 표면 구조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심층 혹은 의미 구조에서 같은 표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중앙어 연구자들이 지나치게 동의성에 집착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단형 부정문도 장형 부정문처럼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단형 부정문은 단일 의미로 해석되고, 장형 부정문은 중의성을 띤다고 보는 것은 각 문형의 논항 수가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두 부정문은 한 성분만을 부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어진 문장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29) 가. 가원 낭흐레 아니 갖저. (그 아이는 나무하러 아니 갔다.)

나. 가원 낭흐레 가지 아니헛저.

다. 학생을 못 ㄹ리치켜. (학생을 못 가르치겠다)

라. 학생을 ㄹ리치지 못헛켜.

(29가, 나)의 긍정문은 “가원 낭흐레 갖저.”이고, (29다, 라)의 긍정문은 “학생을 가르친다”이다. 따라서 (29)에서 두 형식의 부정문의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

(23~28)에서 보듯이 이원론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지만 역시 두 유형의 부정문은 일원론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두 유형의 부정문의 표면 구조가 다르지만 동일한 해석이 되는 것은 동일한 심층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며, 앞에서 제시한 두 유형의 부정문의 동일 구조설을 입증한 셈이다. 제주 방언에서도 두 유형의 부정문은 동의성을 띠며 표면 구조가 다를 뿐임을 알 수 있다.

2.2.3 보문소 ‘-지’의 기능

장형 부정문에서 논의의 쟁점이 된 것 중의 하나가 보문소 ‘-지’의 기원설 즉 ‘명사화소냐, 보문소냐’이다. 명사화소로 보는 견해는 ‘-기’와 동일 기원으로 보고, 보문소로 보는 견해는 ‘-기’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서 보문소 ‘-지’의 기원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보문소 ‘-지’에 대한 관점에는 크게 전통 문법에서 부사형 어미(최현배 1971)로 보는 견해, 변형문법론자들이 보문소(송석중 1967/1977)나 명사형 어미(엄정호 1987 ; 이홍배 1970 ; 오준규 1971)로 보는 견해, 보문자(서정수 1994 ; 임홍빈 1987. 그런데 임홍빈 1973에서는 종결어미로 봄)로 보는 견해 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보문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명사화소 ‘-기’와 보문소 ‘-지’가 동일 형태임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송석중(1967/1993)이다. 보문소 ‘-지’는 언제나 부정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명사화소 ‘-기’와 구별되며, 명사화소 ‘-기’와 보문소 ‘-지’를 상보적 분포로 다루고 있다. 명사화소 ‘-기’와 보문소 ‘-지’에 조사 ‘를’, ‘는’이 결합된 문장을 기본 문장으로(먹기를 한다, 먹지를 아니한다) 설정해서 명사화소 ‘-기’와 보문소 ‘-지’의 동일 기원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는 문맥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므로 표면 구조의 필수 성분이라 할 수는 없다. 홍종선(1986 : 266)에서도 ‘-기’와 ‘-디’를 명사화 어미라는 동일 기원으로 보아서 혼용되다가 긍정문에서는 ‘-기’가, 부정문에는 ‘-디’가 쓰이는 상보적 관계임을 제시하고 있다.

김동식(1980 : 37)을 보면 명사화소 ‘-기’에는 여러 격조사가 제한 없이 쓰이며 시제 형태소가 결합되는데, 보문소 ‘-지’는 격조사(‘가, 를’ 제외)의 쓰임에 제약을 받으며 시제 형태소와 결합하지 못해서 동일 기원설을 부정하고 있다. 시제 형태소가 명사화소 ‘-기’에 선행한다는 것은 ‘-기’가 명사화소임을 증명해 주며, 보문소는 동사 어간에 바로 결합된다. 임홍빈(1987 : 83)에서는 명사화소 ‘-기’와 보문소 ‘-지’는 다르며 보문소 ‘-지’는 ‘아니하-’와 같은 부정 서술어가 어휘적으로 선택하는 보문소로 다루고 있다. 서정수(1994 : 862)에서는 보문소 ‘-지’는 동사 뒤에 ‘아니하-, 못하-, 말-’이라는 부정 요소가 뒤따를 때에만 쓰

이는 “후행 부정 전용의 문법 요소”라고 보고 있다.

보문소 ‘-지’의 선행 동사와 부정 서술어는 한 덩어리의 서술어이므로 여기서 보문소 ‘-지’는 명사화소 ‘-기’와 그 기능이 다르다. 물론 보문소 ‘-지’에 목적격조사가 결합되어서 목적어가 될 수 있지만, 조사와의 결합은 선택적인 것이어서 그 선택이 필수적인 명사화소 ‘-기’와 보조사가 선택적인 보문소 ‘-지’의 동일 기능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어에서의 문법적인 기능으로 보아서 두 형태소의 기능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0) 가. 므스거시 가져가디 뎡홀고. (번노 下 66)

나. 므스거시 가져가기 뎡홀고. (노언 下 59)

다. 네 ㄱ장 일 가기 말라. (번노 上 26)

라. 네 ㄱ장 일 가디 말라. (노언 上 24)

중세 국어에서 명사화소 ‘-기’와 보문소 ‘-디’의 혼용을 볼 수 있는데, 부정 서술어 ‘말다’ 앞에서 명사화소 ‘-기’가 쓰인다고 해서 두 형태소의 동일 기원 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영근(1987: 127)에서는 ‘-기’와 ‘-디’를 명사형 어미로 보고 있으며(보문소 ‘-디’와 다르게 봄), “-디’는 ‘-기’와 비슷한 기능을 표시하는 명사형 어미인데 형용사인 ‘어렵다, 슬프다, 똥다’ 앞에서만 쓰이는 통사상의 특징”으로 다루고 있다. 그 예문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31) 가. 내 겨지비라 가져가디 어려볼썸. (월석 1: 13)

나. 나가디 슬흐야. (삼강행실도 열녀도 16)

다. ㄱ장 보디 뎡흐니라. (번박 上 5)

그렇다면 부정 서술어 앞에 쓰인 보문소 ‘-디’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31)에서 ‘-디’는 부정 보문소인데 몇몇 어휘 앞에서는 부정 서술어가 아니지만 명사화소 ‘-기’ 대신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렵다, 슬프다(싫다)’는 부정적인 어휘여서 보문소 ‘-디’가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똥다’는

(30)에서 보듯이 명사화소 '-기'와 보문소 '-디'가 혼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 나타나는 몇몇 어휘에 명사화소 '-기'와 보문소 '-디'가 혼용된다고 해서 동일 기원설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보문소 '-디'가 '-지'로 변하면서 그 쓰임이 명확히 구분되어서 중앙어에까지 쓰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채 완(1979 : 96)에서 보면 명사화소 '-기'는 17세기 『박통사언해』 등 구어체 문장에서 쓰였으며 18세기 무렵에는 보편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 요소를 동일 기원으로 인정한다면 15세기 문헌에 보이는 보문소 '-디'를 원형으로 하면 왜 17세기 이후 명사화소 '-기'와 혼용했을까가 의문이다. 즉 15세기부터 부정 보문소로 '-디'가 쓰였다는 것은 명사화소 '-기'와 상보적 분포 관계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보문소 '-디'는 이미 15세기부터 쓰여졌고 그 이후 명사화소 '-기'가 나타났으며 문법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기원설로 보는 것은 좀더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승욱(1990 : 788)에서는 부정 서술어를 제외하고 중세 국어에서 보문소 '-디'와 통합하는 후행 동사로 '어렵-/쉽-/똥-/늪-/아찰-' 등이 있다고 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보문소 '-디'에 후행하는 동사의 특수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명사화소 '-기'와 보문소 '-디'의 동일 기원설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 왜 보문소 '-디'가 명사화소 '-기'로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위 동사는 보문소 '-지'와 공기하면서 제주 방언에 남아 있다.

남풍현(1976 : 59)에 의하면 15세기에는 보문소 '-디'에 격조사나 부사가 결합된 예가 없다고 했다. '-디'는 부정 보문소이며 명사화소 '-기'와는 기원이 다르다며, 중앙어에서 보문소 '-지' 다음에 격조사 '를/을'이 통합되어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므로 명사화소 '-기'와 보문소 '-지'의 동일 기원설을 반대한다는 견해이다.

(32) 가. 난 이디 살지 아니햏켜/ *난 이디 살기 햏켜.

나. 난 이제 좀 자지 아니햏켜/ *난 이제 좀 자기 햏켜.

다. 방이 붉지 아니햏다/ *방이 붉기 햏다.

(32)에서 보면 보문소 '-지'와 명사화소 '-기'는 상보적 분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보조사를 첨가하면 문장이 성립한다.(난 이디 살기는 흐켜.) 그러나 기본 문장을 비교해서 문장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보조사가 첨가되었을 때 문장이 성립하는 것은 또다른 통사 특성이다. 이것을 놓고 보문소 '-지'와 명사화소 '-기'가 동일 기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정 서술어 앞에서는 보문소 '-지'의 선택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 보문소 '-지'의 원형은 중세 국어 '-디'이며, 17세기 이후 구개음화가 되어서 '-지'로 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에 의해 보문소 '-지'가 선택되는 것이다. 보문소 '-지'에 부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 서술어에 의해 선택되기 때문에 부정 보문소라는 문법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다.

(33) 가. 난 일^ㅎ지 기롭다/ 실프다. (나는 일하고 싶다/ 일하기 싫다.)

나. 난 느 브레지 기롭다/ 실프다. (나는 너를 보고 싶다/ 보기 싫다.)

다. 먹지 그려완 왔저. (먹고 싶어서 왔다.)



정승철(1994 : 47)에 의하면 제주 방언에서 “동명사형 어미 '-기'를 대신하는 어미 '-지'가 '가지 실프다, 듣지 실프다, 먹지 실프다' 등에서 보는 대로 용언 '실프-' 앞에만 결합된다.”고 보았는데, (33)에서 보듯이 '기롭다' 앞에서도 보문소 '-지'가 실현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중세 국어와 마찬가지로 상태 동사와 공기하는 특성이 있다. 보문소 '-지'의 선행 요소는 동작 동사이다. '실프다'에 선행하는 보문소 '-지'의 원형을 '-디'로 볼 수 있는데, 이는 (31)에서 '슬^ㅎ다 (싫다)' 앞에 보문소 '-디'가 쓰인 것과 같다. 따라서 제주 방언 '실프다'가 보문소 '-디'와 공기하는 것은 통시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세 국어 보문소 '-디'는 '-지'로 구개음화되어서 지금도 쓰이고 있다. 중세 국어에서 '슬^ㅎ다'는 '슬프다, 싫다'는 뜻인데 아직도 제주 방언에서는 '싫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 '실프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어휘로서 부정 응답에서 '말다'로 대체되어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 '-지'도 부정 보문소로 볼 수 있다. 제주 방언에서 '기롭다/그렵다'는 '~(하고) 싶다'는 뜻의 보조 용언이

며, 이때의 보문소 ‘-지’는 중앙어 ‘-고’에 해당된다. (31다)에서 보문소 ‘-디’가 긍정 어휘인 ‘똥다’와 공기하는 것과, 제주 방언에서 ‘그럽다’와 공기하는 것은 같은 특성이다.

(33)에서 보문소 ‘-지’는 중앙어의 명사화소 ‘-기’에 해당하지만 이 ‘-지’에는 중세 국어의 기능이 남아 있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 쓰인 보문소 ‘-디’의 기능을 제주 방언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31)과 (33)에서 보듯이 보문소 ‘-디’가 부정 서술어와는 필수적으로 공기하며, 몇몇 상태 동사와도 공기하는 통사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어 보문소 ‘-지’에 해당하는 중세 국어 보문소에는 ‘-디’, ‘-돌’이 있는데 ‘-디’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지’로 변하였고, ‘-돌’은 중앙어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제주 방언에는 그 형태가 남아 있다.

(34) 가. 나가 즌진호고 역불로 들어오들 아니해서.

(내가 자진했지, 일부러 들어오지 않았다.)

나. 늑시 누게 들어가들 아니호여서. (전혀 누가 들어가지 아니했다.)

다. 옛날은 당호 벉긴 부르들 못호였다. (옛날에는 당호 밖에는 부르지 못하였다.)

(옛날에는 당호 밖에는 부르지 못하였다.)

라. 그 자리를 떠나들 못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마. 떡 먹들 말라. (떡 먹지 말라.)

(35) 가. 내 너희들호 꺄장 恭敬호야 업시오들 아니호노니. (석상 19 : 29)

나. 놈 더브러 드토들 아니호노이다. (석상 11 : 34)

다. 妄量엿 혜몰 그치들 못호야. (월인 7 : 45)

(34)는 제주 방언이고 (35)는 중세 국어인데, 보문소 ‘-들’이 부정 서술어 ‘아니호다’·‘못호다’·‘말다’와 공기함을 알 수 있다. 역시 제주 방언 통사 특성에는 중세 국어의 통사 특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거의 사라져가는 표현이며, 중앙어에 더디게 동화되는 통사 특성일 뿐이다. (35)는 주로 노인층에서 쓰이는 문장이며 젊은층으로 내려올수록 잘 쓰이지 않는다. 현장 조사시

확정한 결과 보문소 ‘-들’과 ‘지를’의 축약형 ‘-질’이 혼용됨을 알 수 있었고, 제주 방언 토박이 화자들은 두 형태에 대한 구별 의식이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남풍현(1976 : 59)에서는 “아이가 자들 앓는다.”처럼 중부 방언의 노인층에는 보문소 ‘-들’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신창순(1971 : 11)에서도 경상도 방언에(가지를 못하고 → 가들 못하고) 보문소 ‘-들’의 쓰임이 있다고 했다. 두 방언을 보더라도 어간에 보문소 ‘-들’이 직접 연결되는 형태가 중세 국어에서부터 여러 방언에 이르기까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2.2.4 ‘하다’의 문법 기능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에서 부정소를 제거하면 ‘하다’가 남는데 이때 ‘하다’의 문법적인 기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동사 ‘하다’는 본동사, 보조동사, 형식동사, 대동사, 접사, 포괄동사 등 문법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었다. 부정 서술어에 있는 ‘하-’를 기저에서 주동사로 인정하기도 하고(송석중 1967 ; 이홍배 1970), 형식동사로 취급하기도 하였으며(박순함 1967 ; 오준규 1971 ; 양동휘 1976 ; 서정수 1975/1994), 대문용언으로 처리하기도(임홍빈 1973) 하는 등 여러 견해가 있다.

서정수(1975/1994)에서는 ‘하-’의 문법적인 여러 기능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분리할 것이 아니라 문법의 간결성을 위해서 크게 ‘형식동사’의 범주로 포함시키자는 견해이다. 즉, ‘하-’ 자체에 고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행 요소가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러한 선행 요소와 결합한 ‘하다’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며 대동사, 형식동사, 파생접미사처럼 쓰인다는 것이다.

형식동사로 보는 것은 서술어 ‘하-’의 탈락성,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에서 ‘아니’가 선행 동사를 부정하므로 부정의 문법적 기능은 ‘아니’가 담당하고, ‘하-’는 서술어로서의 형식을 갖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김동식(1990)에서는 장형 부정문에서 ‘아니’가 불완전한 서술어이기 때문에 형식동사 ‘하다’가 첨가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때의 ‘하다’와 지정사 부정 ‘아니다’에서 ‘이다’(‘아니+이다’)는 형식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다.

임홍빈(1973)에서는 ‘아니하다’에서 ‘하다’를 대문용언(형식동사+대동사)으로

보고 있다.

김영희(1984)에서는 ‘하다’는 “일반 대동사인 ‘그리하다’와 다르며, 조용 대동사인 ‘그리하다’와도 다르다”고 보고 있다.

중세 국어에서부터 ‘하-’의 생략이 보편화되었는데 생략이 쉬운 것은 ‘하-’가 형식동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소 ‘아니’나 ‘못’과 결합한 동사 ‘하다’는 수의적으로 생략되는 ‘하-’와는 다르다(어지럽게 (하지) 말라, 걱정(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부정 서술어인 경우 선행 동사와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의 개입이 불가능해서 하나의 덩어리인 서술어로 인식되고 있다. ‘하다’ 동사에서 명사가 자립성을 띠므로 ‘하다’가 본동사로 기능하는 것처럼, 부정소 ‘아니’·‘못’도 자립 형태여서 부정소와 결합하는 ‘하다’도 일반 동사라 할 수 있다. 통사 특성상 부정소의 후행 요소는 동사이다. 부정소는 동사에 선행하는데, ‘돌아가다, 좋아하다’처럼 합성어인 경우에는 부정소가 이 합성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서(안 돌아가다, 안 좋아하다) 부정소와 결합하는 ‘하다’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 이 부정소가 부사이므로 동사를 한정하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부정문의 특성상 부정소 ‘아니’·‘못’이 후행 동사 ‘하다’와 통합하여 복합어처럼 보이며, 부정 서술어이기 때문에 부정 대상이 있어야 한다. 초점이 중립일 때 선행 동사를 부정한다.

따라서 ‘하다’는 일반 동사처럼 온전하지는 않지만 본동사로 보아서 형식동사, 대동사의 기능을 포괄하는 ‘포괄동사’¹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8) 보통 ‘하다’는 형식동사와 대동사, 보조동사, 접사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먹기는 한다”에 쓰인 ‘하다’와, 부정소 ‘아니’·‘못’과 결합하는 ‘하다’, 파생접사로 기능하는 ‘하다’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하다’의 기능 또는 의미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다. 김영희(1984·43)에서는 ‘하다’를 대동사가 아니라 실질 동사의 상위어인 ‘포괄동사’로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포괄동사’의 용어를 쓰고자 한다. 왜냐하면 ‘하다’는 일반 동사이며 어근으로서 부정소 ‘아니’·‘못’과 통합하여 합성어가 된다. 즉 ‘아니하다’, ‘못하다’는 합성어이며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물론 부정 서술어로 쓰인 ‘하다’는 의미 기능이 약하기는 하지만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즉 ‘하다’는 다른 실질 동사처럼 의미, 기능면에서 완전한 독립성은 부족하지만, 실질 동사를 포괄하여 대신할 수 있는 포괄동사로 보고자 한다.

형식동사, 대동사는 문법적인 기능에 초점을 둔 용어이며, 포괄동사는 의미에 초점을 두긴 했지만 문법 기능면에도 초점을 두었다.

(36) 가. 밥을 안 먹기는 했저. (밥을 안 먹기는 했다.)

나. 난 이디 살지 아니햏켜. (나는 여기 살지 않겠다.)

(36가)에서 '했저'는 '안 먹었다'를 대신하고 있다. 즉 '부정소+동사'를 대신하고 있다. (36나)에서 '햏다'는 '살다'라는 선행 동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부정소 '아니'와 결합되면서 '아니햏다'는 '안 살다'의 뜻으로 변했다.

국어의 특성상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오므로 장형 부정문에서 부정소 '아니'와 '햏'은 동사 '하다'에 선행하며 '하다'를 수식하고 있어서, 이 때의 '하다'는 선행 동사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부정 서술어에서 '하다'가 일반 동사인 데 파생접사처럼 기능하며, '하다' 자체가 동사에서 보조동사, 접미사로 문법화되었는데, 그 기능이 분명하지 않고 중간 범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 문장에서도 다른 문법 기능이 있는 것이다. '하다'가 일반 동사처럼 의미나 문법 기능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선행 요소의 자립성 유무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일상적인 회화에서 단형 부정문이 장형 부정문보다 빈번히 쓰이는 것은 언어 경제 원리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박병채(1989:199)에서는 장형 부정문은 고대 국어 후기에 형성되어서 15세기에는 보편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어사적 측면에서 볼 때도 단형 부정문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국어의 부정문이며 장형 부정문이 후대에 나타나면서 두 유형은 공존하게 되었다.

서론에서 제시한 기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형 부정문이 장형 부정문보다 사용 빈도가 조금 높았으며, 실제로 제주 방언 토박이 화자들의 대화시에는 단형 부정문의 쓰임이 우세했다.

단형·장형 부정문의 의미·통사·담화 기능을 살펴본 결과 제주 방언과 중앙어는 서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단순 부정', '타의 부정'의 기본 의미와 부정 서술어의 통사 기능이 같다. 그리고 두 부정문은 일원론임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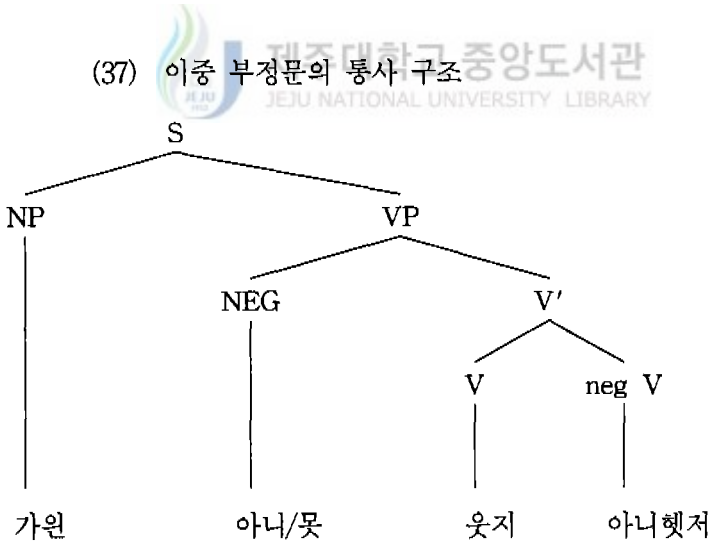
제주 방언과 중앙어가 다른 점이라면 보문소 '-게'와 부정 서술어의 공기 현상이 중앙어에 비해서 보편적이다(예문 (16)). 중앙어에서는 명사화소 '-기'가

쓰이는 데 비해 제주 방언에서는 보문소 '-지'가 쓰이고 있는 점과(예문 (33))·보문소 '-들'의 기능(예문 (34))을 통해서 중세 국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2.3. 이중 부정문

보통 부정소가 쓰이고 부정의 의미가 있는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하는데, 이중 부정문은 명시적인 부정소가 쓰였으나 부정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중 부정문은 문장 형식은 부정문이지만 내용은 긍정이어서 앞에서 논의한 단형·장형 부정문과는 다르게 취급하기도 한다. 이중 부정문이라고 하면 부정소의 겹침을 의미하는데, 이 연구에서 부정 어휘가 쓰인 부정 표현까지도 이중 부정 형식에 포함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37)은 이중 부정문의 통사 구조인데 부정소가 후행 부정 서술어를 한정,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8) 가. 가윈 아니 웃지 아니헛저. (그 아이는 안 웃지 않았다.)
 나. 집이 아니 가지 못헛쿠다. (집에 안 가지 못하겠습니다.)
 다. 그디서 못 놀지 아니헛저. (그곳에서 못 놀지 않았다.)

- 라. *난 밥 못 먹지 못했져. (*나는 밥 못 먹지 못했다.)
 마. 떡을 못 먹게는 못했져. (떡을 못 먹게는 못했다.)
 바. *울지 아니했지 아니했져/ *못했져.
 (*울지 아니하지 아니했다/ *못했다.)

- (39) 가. 는 가의 몰르지 아니한다/ *못한다.
 (너는 그 아이 모르지 아니한다/ *못한다.)
 나. 가의 집이 엇지 아니한다/못한다.
 (그 아이 집에 없지 아니하다/ *못하다.)
 다. 가난한 사름 못할 일 엇다. (가난한 사람 못할 일 없다.)
 라. 나가 아니 갈 수 엇수다. (내가 아니 갈 수 없습니다.)

이중 부정 형식을 보면 (38)처럼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의 복합 형식임을 알 수 있는데, 부정소의 이중 겹침은 허용하지 않고 부정소가 앞에 오고, 뒤에는 부정 서술어가 온다. (39)는 ‘부정 어휘+부정 서술어’의 복합 형식이다. (38)과 비교해 보면 부정 어휘에 이미 부정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8라)는 타의 부정의 ‘못’이 이중으로 사용된 문장이다.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타의 부정의 ‘못’과 부정 서술어 ‘못한다’가 공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38바)가 비문법적인 것은 부정 서술어의 겹침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중 부정문의 구조는 언제나 ‘부정소+부정 서술어’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38)에서 보면 이중 부정문은 ‘부정소+부정 서술어’의 통사 구조로 되어 있으며, 부정의 의미가 두 번 겹침을 알 수 있다.

(39가, 나)에서 ‘모르다’·‘엇다’와 부정 서술어 ‘못한다’가 공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중 부정문은 “부정소+부정 서술어”의 통사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부정소와 부정 어휘에 의한 이중 부정 형식을 띠면서 긍정문이 되고 있으며 긍정의 내용을 확인,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엇다’, ‘모르다’가 부정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이중 부정문은 부정소가 동시에 선행하는 단형 부정문과 동시에 후행하는 장형 부정문의 구조가 복합되어서 나타나지만 “부정소+동사어간+-지+부정 서술어”를 하나의 서술어로 인식하는 단문이라 할 수 있다.

부정소와 부정 서술어가 동일 구조내에서 사용된 이중 부정문은 부정소의 의미가 독립해서 쓰일 때와 똑같이 부정소 ‘아니’는 ‘단순 부정’, 부정소 ‘못’은 ‘타의 부정’의 의미이며 통사적인 제약 현상도 같다. 물론 부정소 ‘아니’나 ‘못’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어진 명체가 긍정문으로 쓰일 때보다 긍정의 의미가 약화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40) 가. 가윈 아니 웃지 아니했저.

나. *가윈 아니 웃지 못했저.

다. 가윈 못 웃지 아니했저.

라. *가윈 못 웃지 못했저.

(41) 가. 날이 아니 좋지 아니하다.

나. *날이 아니 좋지 못하다.

다. *날이 못 좋지 아니하다.

라. *날이 못 좋지 못하다.

2.1.에서 부정소 ‘아니’·‘못’이 동작 동사와 자유롭게 공기하는 특성이 있음을 보았다. (40나)는 주어가 3인칭이어서 단순 부정 ‘아니’와 타의 부정의 ‘못하다’가 공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40라)에서는 타의 부정이 두 번 겹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어와 부정소, 부정 서술어의 공기 관계 제약이라 할 수 있다. (41가)만 성립하는 것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단순 부정이기 때문이다. (41나)가 비문법적인 것은 주어가 3인칭이며 자연적인 현상이어서 단순 부정의 ‘아니’와 타의 부정의 ‘못하다’가 공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형·장형 부정문의 통사 특성이 이중 부정문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41다, 라)에서 부정소 ‘못’이 상대 동사와 공기할 수 없는 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다음은 이중 부정문의 담화 기능을 살펴보겠다. 이중 부정 형식이 긍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면 처음부터 긍정문을 사용하면 될 텐데 왜 이중 부정 형식을 취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8가)에서 부정소 ‘아니’는 ‘단순 부정’으로 쓰이고 있으며, 서술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긍정문인 “가원 웃었다.”보다는 이중 부정문에서의 의미가 좀 약화되었다. 즉 “웃기는 했지만 화자, 청자가 만족할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웃다’라는 동작에 미치지 못하는 미온적인 반응임을 보여주고 있다. “웃긴 웃었는데 시원하게 또는 원하는 만큼 웃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썩 내키지 않는 동작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강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약한 부정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웃다’라는 주어의 동작이 긍정이니까 ‘안 웃다’가 부정이므로 여기에 부정소가 첨가되어서 ‘어느 정도 웃었다’는 중간 단계(판단 유보)가 나타난다. 또는 “청자의 생각보다 크게 웃었다”는 의미도 가능하다.

(38가’)에서 부정의 영역을 보면 부정소 ‘아니’가 서술어를 부정하기도 하고 동사를 부정하기도 한다.

(38가’) 가. [가인 [아니 [웃지 아니했저]]] 도서관
나. [가인 [아니 웃지] 아니했저] UNIVERSITY LIBRARY

(38나)에서 부정소 ‘아니’는 단순 부정이며 뒤의 부정소 ‘못’은 타의 부정으로 볼 수 있다. 선어말어미 ‘-(으)크’가 있어서 화자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 문장에서도 “내가 집에 가겠다.”라는 긍정문보다 이중 부정문의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마지 못해서 가겠다’로 약한 긍정, 미온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집에 가긴 가는데 화자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다”는 뜻이다. 여기서도 그 의미가 긍정의 ‘가다’와 부정의 ‘못 가다’ 사이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강제성, 당위성의 의미가 있음도 알 수 있다.

(38다)는 “그 곳에서 놀 수 있다”는 뜻인데, 앞의 부정소 ‘못’은 타의 부정이며 뒤의 부정소 ‘아니’는 단순 부정이다. 역시 약한 긍정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 장소에서 어느 정도 놀 수 있다”는 가능성이 드러난다. 그런데 타의

부정의 ‘못’이 쓰여서 놀 수 있는 가능성에(시간, 놀이, 방법 등) 제약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청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놀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38마)는 “누군가가 떡을 먹게 했다”는 뜻이다. 화자는 먹지 못하게 막고 싶었는데 화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가 어느 정도(조금은) 먹었다는 뜻이다. 누군가의 먹는 행동을 막지 못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부정소 ‘못’과 부정 서술어 ‘못하다’가 공기할 수 있는 것은 보문소 ‘-게’와 보조사 ‘는’이 통합하고 있어서이다.

(39가)는 부정 어휘 ‘모르다’의 장형 부정문의 형식이지만 내용은 긍정이다. 즉 “너는 그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긍정의 문장이다. 이중 부정문의 형식을 취한 것은 ‘너는 안다’라는 단정보다는 청자에게 어느 정도의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화자도 단정해서 ‘너는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청자의 거부 반응을 피하기 위한 뜻도 담겨 있다. (39나)는 부정 어휘 ‘있다’와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에 의한 이중 부정 형식으로 내용은 “그 아이는 집에 있다.”는 긍정의 뜻이다. ‘집에 있다’라는 단정보다는 ‘집에 있긴 있는데’ 화자나 청자가 바라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9가, 나)는 장형 부정문의 구조인데 이중 부정 형식으로 해석되는 것은 ‘모르다’, ‘있다’에 이미 부정소 ‘아니’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39다, 라)는 이 통사 구조와는 조금 다르지만 좀더 강한 긍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39다)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화자의 생각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타의 부정의 ‘못하다’와 ‘있다’가 공기하면서 ‘가능성’, ‘강조’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39라)는 “내가 가야 한다”는 긍정, 단정, 강조의 뜻이다. 이중 부정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중 부정 표현의 통사 구조를 통한 부정 영역은 다음과 같다.

(39') 가. [[가이 몰르지] 아니한다] / [가이 [몰르지 아니한다]]
 나. [[집이 엇지] 아니한다] / [집이 [엇지 아니한다]]

(39)에서 부정소 ‘아니’·‘못’과 부정 어휘 ‘있다’·‘모르다’가 공기하면서 이

중 부정 표현이 가능한 것은 부정 어휘 속에 부정소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중 부정은 화자의 생각을 단정,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청자의 생각보다 긍정의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이중 부정문에 대응되는 긍정문이 있는데도 그 긍정문을 사용하지 않고 이중 부정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발화자의 심리 상태, 청자의 반응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화자의 발화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이중 부정문의 명제에 대해서 화자나 청자는 나름대로 작위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그럴 의도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이중 부정문의 형식을 취하는 화자의 심리 상태는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우회성을 띤 발화(화자의 소극적인 자세)를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다. 따라서 이중 부정문의 의미는 완전한 긍정의 의미가 아닌 그 중간 단계의 의미라 할 수 있다.

2.4. 부정 아닌 부정문



부정소가 쓰인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한다면 부정 아닌 부정문도 형식상 부정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부정문과는 그 특성이 다르다. 즉 부정소를 사용해서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문장을 긍정하고 확인하는 문장이다. 이중 부정문과 마찬가지로 부정 아닌 부정문도 부정소에 의한 문장이지만 내용은 긍정문이어서 논자¹⁹⁾에 따라 여러 명칭이 있다.

김동식(1981 : 81)의 설명을 보면 부정 아닌 부정문이란 “말하는 이가 자기의 전제를 놓고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형식”이라 하며, 이는 “앞에 진술된 내용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부정

19) 김동식(1980)에서는 확인 의문문, 장석진(1985)에서는 부가 의문문, 장경기(1987)에서는 유사 장형 부정 의문문, 박정규(1995)에서는 회의문이라 했다. 김동식(1981 : 81)에서 확인문과 회의문을 일반 부정문과 구분하기 위하여 假否定(부정 아닌 부정)이라고 하였다. “가부정이란 근원적으로는 부정이었는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는 회의문은 제외하고 확인 의문문만을 다루며, ‘부정 아닌 부정’의 용어를 쓰고자 한다.

아닌 부정문은 질적으로 화맥에서의 칭·화자간의 전제와 문장에서의 억양에 의해 구별된다는 사실이 중양어와 같다. 부정 의문문은 주어진 명제의 진위 여부를 묻지만, 부정 아닌 부정문은 발화된 명제를 ‘진’으로 규정하고 청자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이다. 장석진(1985:168)에 의하면 “전형적인 부가 의문문은 본문과 꼬리 사이에 휴지가 없고 그 사이에 어떤 토씨—는, 도, 요 등—도 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다음 예문을 통해서 여러 기능을 알아보겠다.

(42) 가. 가원 큰 부재 아니꽂? (그 아이는 큰 부자이지 않습니까?)

나. 짓도 보람난 일 아니라? (그것도 보람 있는 일이지 않니?)

다. 저 성안 가민 제일 좋은 집 아니라?

(저 城內를 가면 제일 좋은 집이지 않니?)

라. 거 광령 서편의 동산 엇어? (그 광령 서쪽의 동산 있지 않니?)

(42)는 표면 구조상 부정 의문문이지만 내용은 긍정이다. 부정소가 결합되어서 주어진 명제를 단언하며 청자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 즉 화자는 자신의 발화 내용이 참임을 확신하고 있고, 화자의 확신에 청자가 동의하길 원하고 있으며, 초점이 ‘아니다’에 놓여 있어야 한다. 여기서 ‘아니다’는 지정사 부정이 아니고 주어진 명제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한다. 즉 ‘이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부정 의문문은 문말 억양이 상승하고, 부정 아닌 부정문은 문말 억양이 하강한다. 여기서 제주 방언과 중양어에 다른 점이 있다. (42)의 통사 구조를 보면 지정사 부정과 같은데, ‘부정 아닌 부정’으로 쓰이고 있다. 즉 중양어에서는 ‘지정사 -이지+않니’가 되는데, 제주 방언에서는 ‘-이지’가 쓰이지 않으며 부정 서술어 ‘아니라’가 부정의 의미 없이 확인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42가)는 “그는 큰 부자이다”, (42나)는 “그것은 보람있는 일이다”, (42다)는 “城內로 가면 제일 좋은 집이다”, (42라)는 “광령(地名) 서쪽에 동산이 있다.” 등을 뜻하므로 의미로 보아 긍정적인 발화이다. ‘아니다’가 ‘확신’이나 ‘재확인(강조)’의 의미로 사용되어 화자의 분명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42라)에서 화자는 ‘동산이 있다’는 확신에 찬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즉 ‘엇어’는 ‘있다’는

존재에 대한 확인의 뜻이며 “동산 아니라?”와 같은 문장이다. 부정 어휘 ‘엇다’도 ‘아니다’와 마찬가지로 부정 아닌 부정문에 쓰임을 알 수 있다. 부정어 ‘아니다’와 ‘엇다’의 부정 응답에서처럼 혼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4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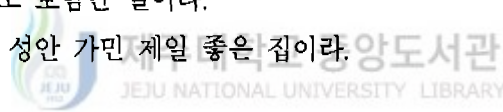
(42)에서 ‘이다’로 문장이 끝날 수 있는데, ‘아니라’가 부가되어서 화자의 생각을 확인하고 있다. ‘아니라?’는 ‘그렇지’의 뜻으로 선행 문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즉 ‘아니’를 생략하면 ‘이다’는 바로 명사와 결합해서 긍정문이 된다. 따라서 이 때의 ‘아니’에는 부정의 의미가 없이 ‘확인’의 의미로 쓰임을 알 수 있다.

(42)에서 부정소 ‘아니’를 제거하면 (42’)와 같이 긍정문이 된다. 그러므로 부정 아닌 부정문에 쓰인 ‘아니’는 ‘확인·강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화자의 심리 상태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 가. 가원 큰 부재라.

나. 것도 보람난 일이라.

다. 저 성안 가민 제일 좋은 집이라.



다음은 장형 부정 의문문의 통사 구조와 같지만 부정 아닌 부정문으로 쓰이고 있는 예문이다.

(43) 가. 저기 큰 당 잊지 안햐여? (저기 큰 당 잊지 않아?)

나. 옛말에도 잊지 안햐우파? (옛말에도 잊지 않습니까?)

다. 가의 줌 자지 안햐서? (그 아이 잠 자지 않니?)

(43가)는 “저기 큰 당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화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큰 당이 있는 위치”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청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그래서 화자의 확신이 신뢰성을 갖게 된다. (43나)는 “옛말(속담)에도 있다”는 화자의 경험에 의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 문장이다. (43다)는 “그 아이는 잠을 자고 있다”라는 긍정의 뜻이다. 이렇게 형식은 부정이지만 내용은 긍정문인

부정 아닌 부정문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하는 것은 화자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면서 청자의 동의를 구하려고 할 때 쓰인다고 할 수 있다.

(43)에서 종결어미 ‘-지’로 문장이 끝날 수도 있지만 ‘안ㅎ여?’를 부가해서 화자의 전제를 확인하고 있다. ‘안ㅎ여?’는 ‘그렇지?’에 해당하며, 화자의 판단에 확신을 주며, 그 확신에 대해서 청자의 동의를 구하고(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지 아니하다’는 표면상 부정 서술어이지만 내용상 주어진 명제를 확인, 긍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장형 부정문의 구조와 동일하지만 ‘-지’로 문장이 끝날 수도 있어서 이 때의 ‘-지’는 종결어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형 부정 의문문과는 다르다.

부정 아닌 부정문의 통사 구조를 보면 (42)처럼 ‘명사+아니다’, (43)처럼 ‘동사+안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부정 어휘 ‘아니다’가 명사구에 후행하는 통사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며, 부정 서술어 ‘아니다’(안하다)는 동사에 후행하는 특성임을 확인하게 된다. 부정 아닌 부정문은 ‘평서문+부정 의문문’의 복합 형식인데 후행 서술어가 평서문의 사실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42), (43)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정 아닌 부정문일 때에도 부정소의 통사 제약은 일반 부정문과 같음을 알 수 있다. (42)에서 서술어 ‘아니라’는 선행 요소로 명사를 요구하는데, 이는 지정사 부정일 때의 통사 특성과 같다. ‘아니다’ 역시 부정문에서처럼 동사를 선행 요소로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소의 위치나, 선행 요소의 선택은 장형 부정 의문문이나 부정 아닌 부정문이나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부정 아닌 부정문의 형식은 장형 부정 의문문의 형식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보문소 ‘-지’가 시제 형태소와 통합한 문장인데, 공기 여부에 따라서 부정 아닌 부정문과 장형 부정 의문문을 구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44) 가. 큰 당이 잇었지 {안ㅎ여?/ *안헤서?} (…있었지 않니/ *않았니?)

나. 옛말에도 잇었지 {안ㅎ우파?/ *안ㅎ엿수파?}

(…있었지 않습니까?/ *않았습니까?)

김동식(1981)에서 보면 장형 부정문은 시제 형태소와 보문소 ‘-지’가 결합할

수 없는데, 부정 아닌 부정문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고 해서 두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44)에서 통사 특성을 살펴보면 보문소 '-지'가 시제 형태소와 통합할 수 있어서 부정 아닌 부정문임을 알 수 있다. 즉 '잊었지'로 문장이 끝날 수 있어서 시제 형태소가 서술어인 '있다'와 통합되었다. 즉 부정 의문문은 부정 서술어에만 시제가 허용되고, 부정 아닌 부정문은 본용언에만 시제 통합이 허용된다. '-었지 안혀' 형에서 보면 과거시제 형태소(미래시제는 안됨)만 동사와 통합하고 있다 즉 시제와 통합된 동사의 동작에 대한 확인·동의를 요구한다. 이는 '-었지'로도 문장이 끝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5) 가. 잊지 안혀→*잊지 않아→*잊잖아

나. 아떨이지 안혀→*아떨이지 않아→*아떨이잖아

(46) 가. *있지 안하니→있지 않니→있잖니

나. *자지 안하니→자지 않니→자잖니

(45)와 (46)을 비교해 보면 제주 방언인 (45)는 중양어에서와 같은 축약형이 쓰이지 않는다. 즉 축약형은 제주 방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중양어인 (46)을 보면 오히려 본형은 비문법적이고, 주로 축약형이 쓰이는데 이는 중양어는 축약의 단계까지 변화되었지만, 제주 방언은 그 전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중양어에서 축약형에는 부정의 의미는 전혀 없으며, 부정소를 분리하기도 쉽지 않다. 축약형 '잖'이 단일 형태로 굳어졌고, 이 축약형에 강세가 있다. 이 때 본형보다 부정의 의미가 약화되고 화자의 의도가 좀더 강하게 반영된다.

부정 아닌 부정문의 통사 구조가 종결어미 '-지'로 끝날 수 있는데, '아니혀?'가 문미에 덧붙여서 선행 명제를 긍정, 확인해 주고 있다. 이 때 '아니+혀'에서 '아니'는 부정문에 쓰이는 부정소의 기능이 없고, 화자가 자신의 발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청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역설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확인·동의를 요청하는 기능으로 부정소 '아니'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정 아닌 부정문에서 긍정의 사실을 전제하고서 청자의 동의, 확인을 얻으려는 심리 상태가 반영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부정 아닌 부정

문은 긍정적 진술이나 긍정적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여기에 쓰인 부정소 ‘아니’는 부정적 의미를 상실한 채 청자의 동의나 확인을 구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Ⅲ. 어휘의 부정 표현

이 장에서는 ‘말다’·‘엇다’·‘모르다’·‘아니다’ 등의 부정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네 어휘를 부정 어휘로 설정한 것은 대립적인 긍정 어휘와 통사상의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의미상 ‘부정 : 긍정’이라는 이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문이라고 하면 대개 부정소 ‘아니’·‘못’이 사용된 문장을 일컫는데, 이런 명시적인 부정소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다·엇다²⁰⁾·모르다’, ‘아니다’ 등의 부정 어휘가 쓰인 부정 표현의 통사 기능은 물론 담화론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단일 부정 어휘이지만 통사적으로 보면 부정소를 내포하고 있다.

부정문과 긍정문에서 서로 대립하는 어휘를 보면 “말다-□”·“엇다-잇다²¹⁾”·“아니다-이다”·“모르다-알다” 등이 있으며, 이는 서로 대립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에 어떤 어휘를 삽입할 수 있는가이다. 이 연구에서는 “□”에 “하다”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겠다.

‘모르다’·‘아니다’는 중앙어와 의미·통사 기능이 유사하며, ‘말다’와 ‘엇다’는 중앙어와 다르게 쓰인다. 부정문에서 ‘말다’는 ‘행위 금지’라는 기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의미 외에 부정소 ‘아니’의 의미인 ‘단순 부정’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제주 방언의 특징이라면 부정 응답으로 ‘아니다’ 자리에 ‘말다’와 ‘엇다’가 쓰이는 점이다.

우선 ‘말다’의 여러 기능을 살펴보고 나서 ‘엇다’·‘아니다’·‘모르다’의 여러 기

20) ‘엇다’와 ‘웃다’는 이형태(없다, 없다도 있음)이며 중앙어 ‘없다’에 해당된다. ‘없다’에서 어간말 자음군 단순화 규칙에 의해서 ‘엇다’로 실현되는데, 이는 ‘잇다’의 영향이기도 하다. ‘잇다’와의 비교 논의를 위해서 ‘엇다’를 기본형으로 설정했다.

21) 중세 국어에도 제주 방언에 쓰이는 ‘잇다, 이시다, 싯다, 시다’ 등의 형태가 있었으며, 이들의 실행은 음운 조건에 의한다. 이는 중앙어 ‘잇다’에 해당하며 ‘이시다’와 ‘시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잇다’와 ‘싯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실현된다. 이 연구에서는 부정 어휘 ‘엇다’와 형태상의 통일을 기하고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잇다’를 기본형으로 설정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능을 논의하겠다.

3.1. ‘말다’의 부정 표현

중양어 부정법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부정소 ‘아니’와 ‘못’이 쓰인 단형·장형 부정문이며, ‘말다’는 부정소가 아니고 서법에서 문장 종결형에 따라 선택되는 부정 서술어라 해서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도 있다. 그렇지만 제주 방언에서 ‘말다’²²⁾는 의미·통사·담화 기능 등이 중양어에 비해 독특하다.

‘말다’는 명령·청유문에서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와 상보적 관계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말다’가 쓰이는 명령·청유문의 구조가 장형 부정문의 구조와 같고 부정의 뜻이 있으나, 이 문장에서는 부정소 ‘아니·못’이 쓰일 수 없는 데서 얻어진 결론이다. 박순함(1967)은 이 때 대체되는 부정소가 ‘아니’인 것으로 보았으나, 송석중(1967)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정민(1977)은 평서문이나 다른 문장에서도 ‘말다’가 나올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특별히 원망 동사 등의 경우와 비교하여 ‘말다’로 대체되는 구조는 ‘아니하다’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복(1979)에서는 ‘말다’가 ‘아니하다’의 상보적 분포 관계로만 보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일 뿐이고, ‘말다’는 ‘중단’의 의미로 인해 부정 명령에 쓰인다고 하였다. 즉 ‘말다’의 의미를 ‘금지’로 보는 것은 “‘말다’ 자체의 의미가 아니고 문맥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말다’의 의미는 ‘동작(행위)이나 상태의 중단’”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정수(1975), 이효상(1993)은 ‘아니하-’, ‘못하-’와 더불어 ‘말-’도 부정 보조동사로 보고 있다.

여러 논자들은 ‘말다’를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와의 상보적 분포 관계로 다루었으며, 보조동사의 문법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기본 의미는 ‘금지’, ‘중단’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정 어휘 ‘말다’가 제주 방언에서는 그 영역이 확대되어 쓰인다.

22) ‘말다’가 부정소인가, 부정 어휘인가 하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부정소 ‘아니’·‘못’은 동사 앞이나 뒤에 올 수 있으며, 품사는 부사이다. 여기서 부정 어휘인 ‘말다’는 부정소 ‘아니’나 ‘못’처럼 동사 앞에 올 수도 없고, 장형 부정문에서만 쓰이는 부정 서술어이다. 따라서 부정 어휘 ‘엇다’나 ‘모르다’처럼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부정 어휘로 다루고자 한다.

즉 명령·청유문에 쓰이는 것은 물론 부정 응답에서도 쓰이고, 평서·의문문에서도 ‘아니다’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어에 비해서 그 쓰임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말다’의 이와 같은 여러 기능을 살펴보고, 의미와 통사 특성은 어떠한지, 또한 ‘말다’의 대립적으로 ‘하다’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

3.1.1 ‘말다’의 의미·통사 기능

이 절에서는 부정소 ‘아니’·‘못’ 대신에 명령·청유문에 쓰이고 있는 ‘말다’의 의미·통사 기능을 살펴보겠다.

1) ‘말다’의 의미 기능

(1) ‘말다’의 기본 의미

부정 어휘 ‘말다’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① 말림(금지)이나 그만둠(中止)(최현배 1971 : 398 ; 여찬영 1975 : 174 ; 허 용 1975 : 431 ; 박상규 1977 : 19 ; 신원재 1987 : 98), ② 동작(행위)이나 상태의 중단(이상복 1979 : 31), ③ 상태나 행동을 막음(한 길 1977 : 64), ④ 동작 실행의 단절성(김성화 1989 : 150) 등이 있다.

따라서 ‘말다’의 의미의 공통점은 ‘금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은 명령·청유문의 통사 특성에 부정의 의미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제주 방언에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지 또는 다른 의미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말다’의 기본 의미를 ‘행위 금지’²³⁾라 정의하고자 한다. ‘말다’의 선행 요소가 동작성을 띠므로 주어의 동작이 실현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따라서 ‘말다’는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만 ‘행위 금지’라는 기본 의미를 드러낸

23) 문순덕(1997)에서는 ‘말다’의 기본 의미를 ‘행위 멈춤’으로 정의했는데, ‘행위 금지’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말-’은 명령형 어미 ‘-아라’와 결합하므로 이미 어떤 행위 요구가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말-’은 그러한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이다.

(1) 가. 선생이 글 가르치당 말앙 나감저.

(선생이 공부 가르치다 말고 나간다.)

나. 이 말을 아시안티나 꿀앙 말주.

(이 말을 동생에게나 말하고 말겠다.)

(1가)에서 ‘말앙’은 선행절의 행위를 중단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 가르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나간다’로 해석할 수 있다. ‘행위 금지’(중단)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급한 일이 생겨서, 가르치기가 싫어서, 준비 부족으로 가르칠 수 없어서, 자료를 구하러” 등 자의적, 타의적인 금지가 발생한다. ‘-당 말-’은 현재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중단하는, 그만둔다는 뜻을 갖고 있다.

(1나)에서 ‘말다’는 동생에게 말하는(하소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행동은 그만두겠다는 뜻이다. 즉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화를 내거나 등) 행위까지도 그만두겠다는 뜻이다. (1)에서 ‘말다’는 ‘중단하다·그만두다’라는 뜻이며, 본동사로 쓰이고 있다.

(2) ‘말다’의 부차 의미

‘말다’가 부정 서술어로 쓰일 때는 보문소 ‘-지’와 공기하는데 (2)는 이와 같은 통사 구조도 아니고, 명령·청유문도 아니면서 ‘말다’가 쓰이는 문장이다. 부정 명령문에 쓰인 ‘말다’에는 화자의 의지가 들어 있게 마련이다. 다음 문장에 쓰인 ‘말다’는 이와는 다르다. 여기서는 거기에 어떤 의미·통사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 말하자면 ‘행위 금지’의 기본 의미를 갖고 있는 ‘말다’가 기본 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① “긍정·강조·확인”의 의미

(2) 가. 야원 녹자말자 좀 들어. (이 아이는 눅자마자 잠 든다.)

나. (밥) 먹곡 말곡. (먹고 말고.)

다. 가의 가건 말주. (그 아이 가면 말지.)

(2가)에서 ‘-자말자’는 동시성과 계기성을 띠며 연결어미로서 기능하고 있다. 주어의 반복, 습관적인 동작의 멈춤을 나타낸다. ‘-자말자’는 ‘눅는 동작이 완료되어서 그 시간이 짧음’을 뜻한다. 중앙어에서는 ‘ㄹ 탈락’인데 제주 방언에서는 ‘ㄹ’이 탈락하지 않는다. 김성화(1989: 168)에서는 ‘-자마자’와 같은 중복형에서 ‘말다’에는 “주동사의 기능이 남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나)는 “그렇다마다, 그렇고 말고”라는 뜻이며, ‘말다’는 긍정, 강조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밥 먹읍디가?(밥을 먹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일 수 있다. “먹고 안 먹고가 없이 먹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 말하자면 이 ‘말다’에도 부정의 의미는 내포되어 있다. 즉 ‘말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가, 나)는 표면 구조상 긍정, 강조의 뜻으로 쓰인 것 같지만 ‘행위 금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2다)에서 ‘말다’는 주어가 가는 행위를 ‘그냥 놔 두다’는 정도의 의미이다. 주어의 행위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자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여기서 ‘말다’에는 본동사의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다') 가. 가의 집아 이시렌 흐라. (그 아이 집에 있으라고 해라.)

나. 학교 가켄 홉디다. (학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 가건 말주. (가면 그냥 놔 두자.)

(2다)는 (2다')에서 (ㄷ)으로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말다’에는 말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주어의 행동을 그냥 놔 두겠다는 뜻과,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무관심의 감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말다’도 선행 동사의 행동을 확인, 인정하고 있다.

(1), (2)에서 ‘말다’의 선행 요소는 동작 동사임을 알 수 있고, 연결어미의 특

성도 있지만 ‘말다’에는 ‘행위 금지’라는 기본 의미가 있으며 선행절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다. ‘말다’는 명령·청유문 외에 평서문에서도 부정의 의미인 ‘행위 금지’의 의미가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명령·청유문에서는 자연스럽게 실현되고, 그 외 문형에서도 실현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양어와 대동소이하하다.

② 단순 부정 “아니”의 의미

(2)에서 ‘말다’가 평서문에 쓰일 때에 “긍정·강조·확인”의 의미가 있음을 보았다. 다음 예문을 통해서 또다른 의미를 알아보겠다.

(3) 가. 너가 독을 삶아인지 말아인지 몰르켜.

(네가 닭을 삶았는지 안 삶았는지 모르겠다.)

나. 제사 때에 조상이 와서 응감을 하는 건가, 마는 건가?

(제사 때에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인가 안 먹는 것인가)

다. 느네 아들이 결혼 하시냐 말아시냐?

(네 아들이 결혼을 했느냐 안했느냐)

라. 나가 집이 돌아가저 말저 하는디.

(내가 집에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하는데.)

마. 주건 주는 냥, 말건 마는 냥 하라.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하라.)

바. 다시랑 하지 말민 벌금 안 받아 가져.

(다시는 하지 않으면 벌금 안 받아 가져다.)

사. 이 사람이 그 집의 살지 말든 말았지 난 몰르켜.

(이 사람이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않았지 난 모르겠다.)

아. 그 일을 말쟁 해도 말지 못하게 한다.

(그 일을 안하려고 해도 그만두지 못하게 한다.)

자. 학교 가지 말켜. (학교 가지 않겠다.)

(4) 가 늘근 한아버를 와 볼다 말다. (두초, 8:23)

나. 拾遺는 能히 머물다 말다. (두초 15:42)

(3가~마)에서 ‘말다’의 기능은 중양어와 비슷하지만, (3바~자)는 제주 방언에서만 자유롭게 발화되는 문장이다.

(3가)에서 ‘말다’에는 명령문에 쓰인 ‘행위 금지’의 의미는 없고, 부정소 ‘아니’의 기본 의미인 ‘단순 부정’의 의미가 있다. 여기서 ‘말다’는 ‘안 삶았다’는 뜻이다 즉 화자는 청자의 행위나 의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이거나, 청자의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고, 청자의 행위에 관심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작의 발생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아직 아니 삶았으면 삶지 말라”는 명령문도 가능하고, ‘삶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말다’가 쓰였다. ‘말다’는 시제 형태소와 결합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과거시제 형태소와 결합하고 있다. (3나)에서 ‘말다’는 ‘안하는 것인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죽은 조상이’ 주어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화자의 발화는 불확실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 혼자만의 독백일 수도 있고, 청자와의 대화시 화자와 청자 모두가 그 행위에 대한 불확실함을 표현할 수도 있다. 여기서도 ‘말다’는 ‘행위 금지’보다는 ‘먹는 행동’을 단순히 부정하는 단순 부정 ‘아니’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부정소 ‘아니’ 대신 ‘말다’가 쓰인 것은 “하지 말라, 안해도 좋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뜻한다. (3다)에서 ‘말아시냐?’는 ‘안했느냐?’라는 뜻이다. 여기서도 ‘말다’는 ‘단순 부정’을 의미하는 부정소 ‘아니’의 대응이다. 부정소 ‘아니’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말다’에 시제 형태소가 결합되었으며, ‘말다’는 선행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의문문이다. (3라)에서 ‘말저’는 ‘안 돌아갈까’이다. ‘말다’는 ‘돌아가는 행동’을 단순히 부정하며 종결어미 ‘-저’가 있어서 화자의 의지가 내포된 것처럼 여겨진다. 여기서 ‘말다’는 화자 자신의 행동을 금지할 수 있다. (3마)에서 ‘말다’는, 화자는 청자의 행동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다. 부정소 ‘아니’ 자리에 ‘말다’가 쓰인 것은 단순 부정의 ‘아니’보다도 청자의 행동에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말다’는 ‘주는 동작’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

(3바)에서 ‘말다’는 ‘아니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즉 “주어가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중지한다면”이란 조건이 붙는다. 화자는 청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제안이기는 하지만 약한 명령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역시 선행 동사를 부정하고 있다. (3사)에서 ‘말든 말았지’는 “살지 않으면 안 살았지”라는 뜻이어서 단순 부정의 의미인데, ‘말다’에 화자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뒤의 ‘말았지’는 선행 ‘말든’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말다’에는 주어의 행동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생각이 담겨 있다. (3아)에서 앞의 ‘말다’는 부정소 ‘아니’의 뜻이고 뒤의 ‘말다’는 ‘그만두다’라는 의미이며 본동사로 쓰이고 있다. ‘말다’에 의도형 어미인 ‘쟁(려)’이 결합되어서 화자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3자)에서 ‘말다’에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라는 화자의 의지, 의도가 확실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의도형 어미 ‘-(으)크-’²⁴⁾가 있어서 화자의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며, ‘말다’는 단순 부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3아, 자)는 주어가 1인칭일 때 성립하며 이때 부정소 ‘아니’가 의지 부정임은 2장에서 확인하였다.

(4)는 중세 국어인데 여기서도 역시 ‘말다’는 부정소 ‘아니’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본동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에서 본동사의 기능이 있는 것은 국어의 통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말다’가 명령·청유문에 쓰일 때는 ‘행위 금지’의 의미이며, 선행 요소로 동작 동사가 와야 한다. 대체로 시제 형태소와는 결합되지 않으나 부정소 ‘아니’의 의미로 쓰일 경우 평서·의문문과 공기하며 시제 형태소와 결합할 수 있다. (3가, 다, 사)에는 시제 형태소가 결합되어 있고, (3나, 다)처럼 의문문에도 쓰이며, (3라, 아, 자)처럼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의도의 선어말어미가 결합되어 있어서 화자의 의지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말다’가 평서·의문문에 쓰일 때는 화자의 의지·의도를 나타내는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24) 제주 방언에 쓰이는 형태소 ‘-(으)크-’는 평서문에서 주어가 1인칭이고, 의문문일 때는 주어가 2인칭이면 서술어가 동작 동사여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각주 10)에서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말다’는 선행 요소로 동작 동사를 요구하지만 ‘말다’ 자체에도 동작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현평효 1985; 홍종립 1993 참조).

(3)에서 ‘말다’는 타의에 의한 ‘행위 금지’보다는 자의에 의한 ‘행위 금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정 명령·청유의 ‘말다’가 통사 구조에 따라서 평서·의문문에도 쓰임을 알 수 있으며, 이 때의 의미는 ‘행위 금지’보다 그 의미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문 (3)에서 ‘말다’의 통사 특성과 다른 것은 ‘말다’ 자체의 의미보다는 부정소 ‘아니’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소 ‘아니’의 통사 기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말다’가 ‘행위 금지’의 의미 외에 단순히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에서 통사 구조를 보면, ‘말다’는 ‘아니+선행 동사’의 복합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는 동일 동사의 반복형이어서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선행 동사를 부정하고 있다. 여기에 쓰인 ‘말다’에는 본동사의 기능이 있다. ‘행위 금지’인 기본 의미 외에 부정소 ‘아니’처럼 ‘단순 부정’의 의미가 있으며, 부정소 ‘아니’ 대신 ‘말다’가 쓰인 것은 부정소 ‘아니’보다는 좀더 강한 화자의 의지(의지 부정)가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부정의 강도(의미 정도)를 “말다₁>말다₂>아니”(말다₁은 행위 금지, 말다₂는 단순 부정)로 정리할 수 있다.

‘말다’의 기본 의미는 ‘행위 금지’이며 부정소 ‘아니’의 기본 의미는 ‘단순 부정’인데, ‘말다’가 부정소 ‘아니’의 자리에서 실현될 때는 거의 ‘단순 부정’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예문 (31)과 같은 부정문에서 부정소 ‘아니’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굳이 ‘말다’를 쓰고 있는 것은, ‘말다’ 자체가 갖고 있는 ‘행위 금지’의 의미와 부정소 ‘아니’가 갖고 있는 ‘단순 부정’을 합친 의미의 문장이 필요할 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말다’를 사용할 때에는 화자의 의지가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다’의 품사는 동사이다.

이정민(1977 : 107)에서 평서문의 경우 주절에 원망 동사가 있으면 ‘말다’가 쓰일 수 있다고 했다. 제주 방언의 용법을 살펴보면 (5)와 같다.

(5) 가. 잔칫날 벚름 불지 {말아사/아니혜사} 혼다.

(잔칫날 바람 불지 말아야/않아야 한다.)

나. 널랑 가지 {말아도/아니해도} 좋다.

(너는 가지 말아도/않아도 좋다.)

(5)에서 ‘말다’와 ‘아니하다’는 수의적으로 선택되고 있는데, 물론 그 의미는 조금씩은 다르다. 실제 발화시에는 단형 부정문인 “바람이 안 불어야”의 사용 빈도가 높다. (5가)의 ‘말다’에는 ‘화자의 소망’이 내포되어 있는데, ‘소망’보다는 좀더 강한 화자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아니하다’는 단순 부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연결어미 ‘-아사(아야)’와 결합해서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다. (5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니하다’에는 단순 부정의 의미가, ‘말다’에는 ‘화자의 의지’가 내포된 금지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원망 동사가 쓰인 평서문에서 화자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아니하다’보다 ‘말다’를 쓰는 것이 의미 전달면에서 효과적이다.

(5') 가. 바람 불지 {말기를/아녀기를} 바람저.

(바람 불지 말기를/않기를 바란다.)

나. 바람 불지 {말민/안하민} 좋켜. (바람 불지 않으면 좋겠다.)

(5가)를 (5')로 대치할 수 있다. (5')에서 ‘말다’에는 화자의 기원과 소망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바라다’라는 원망 동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다’도 직접 부정 명령의 의미보다 ‘바라다’와 쓰여서 ‘행위 금지’의 의미가 약화되었다. 박영준(1994 : 211)에서도 (5'가)에 ‘바람 불지 말아라’와 같은 “기원적 명령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않-’과 ‘말-’이 수의적인 선택”이 된다고 보았다. 즉 명령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때에 ‘아니’와 ‘말-’이 혼용된다. 즉 ‘말아사 한다’에는 ‘바라다’라는 원망 동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5'가)에서 “바람 불지 아녀-”는 ‘바람 부는 행위’에 대한 부정이지만, 그 현상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망 동사가 쓰여서 화자의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말다’가 쓰인 것은 “바람 부는 행위가 멈출” 것을 강하게 희망하는 화자의 염원이 ‘아녀’보다 잘 드러난다. (5'나)는 ‘바라다’ 대신 ‘좋겠다’로 대치해 보았다. ‘좋겠다’에도 ‘화자의 희망’이 내포되어 있어서 문장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물론 (5')에서 ‘바람 부는 동작’은 인간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대상이지만, 그럴 수 있다면 좋겠다는 화자의 희망이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연 현상에 대한 행위 금지를 바랄 때는 ‘아니하다’보다 ‘말다’가 적절하다. 박영준(1994 : 213)에서의 주장대로 ‘말다’와 ‘아니하다’가 무조건 혼용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의 의미가 함축된 문장에서만 교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말다’와 ‘아니하다’는 의미와 통사 기능이 다르다.

③ “싫다”의 의미

(6)가. 나 한 볼 콩 말땡 하여?

(나이가 많은 말이 콩을 싫다고 하겠느냐?)

나. 큰 쇠 으물 말땡 하느냐?

(큰 소가 먹이를 싫다고 하느냐?)

(6)은 제주 방언의 관용구인데 ‘말다’가 ‘싫다’ 자리에 쓰이고 있어서, 부정 응답에서 ‘싫다’ 자리에 ‘말다’가 쓰이는 것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말다’는 ‘싫다’의 뜻으로 쓰였으며, ‘거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싫다고 하겠느냐”, “거부하겠느냐”라는 뜻과 같다. 여기서 ‘말다’는 주어의 감정(好, 不好)을 나타내며, 부정 어휘가 쓰인 부정문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긍정문이다. 즉 “콩을 싫어하지 않고 좋아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정 아닌 부정문과 비슷하다. 그러나 실제 발화시에 ‘말다’ 대신에 ‘싫다’가 쓰이지는 않는다. 제주 방언에서 ‘말다’는 ‘싫다’의 영역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말다’의 기본 의미와 부차 의미를 살펴보았다. 즉 ‘말다’와 부정소 ‘아니’가 구별해서 사용되는 것은 ‘말다’의 의미는 “부정+화자·주어의 의지”라 할 수 있다. 원래 ‘말다’는 ‘행위 금지’를 기본 의미로 해서 ‘긍정·강조·확인’, ‘단순 부정 아니’, ‘싫다’(거부)의 부차 의미가 있음을 보았다.

평서문, 의문문에서는 부정소 ‘아니’와 ‘못’이 쓰이는데 명령·청유문에서는 ‘말다’가 쓰인다. ‘말다’는 대상에 대해 거부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화자(주어)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어서 명령·청유문에 쓰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부

정소 ‘아니’·‘못’과 부정 어휘 ‘말다’는 단순히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는 ‘부정’의 의미를 내포한 상태에서, 문맥에서 여러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본다면 부정소, 부정 어휘의 공통적인 의미는 [단순 부정]이라 할 수 있다.

2) ‘말다’의 통사 기능

여기에서는 ‘말다’에 본동사의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본래 보조동사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여러 논자들이 제시한 문법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최현배(1971 : 398)에서는 부정 보조동사로 명명했고, 신창순(1971 : 12)에서는 부정 타동사라 했으며, 전병쾌(1984 : 36-37)에서는 명령 부정문의 부정소로 다루었다. 송석중(1967 : 121)에서는 ‘말-’은 부정소 ‘아니’·‘못’과 달리 동사 앞에 오지 못하므로 부정소가 아니라 동사 어간 자체라고 해서 동사로 보고 있다. 이상복(1979 : 14)에서는 부정 조동사로, 한 길(1977 : 64)에서는 보조용언으로, 김성화(1989 : 166)에서도 ‘말-’이 “본래 주동사였으나 ‘-(지/다가/고) 말’에서는 조동사화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말다’는 본동사 또는 보조동사의 문법적인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영준(1994 : 207)에서 보면 명령문에서 장형 부정문만이 성립하는 것은 “‘말다’가 부정이라기보다는 ‘금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이유는 첫째, ‘말-’이 본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는 어휘 자체의 기원성에 의한 것과 둘째, ‘금지’의 의미가 부정 명령문의 기본 의미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은 명령문이 갖고 있는 속성에 의한 것이다.”라고 해서 본동사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현희(1994 : 88)에서는 “본동사로서의 ‘말-’은 부정 표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두다’, ‘사직하다’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7) 가. 그런 말 꺾지 {말라, *아니하라, *못하라.} (그런 말 말하지 말라.)

나. 우는 책 흐지 {말게, *아니하게, *못하게.} (우는 책 하지 말자.)

다. 검질 매지 {*말다?, 아니헨다?, 못헨다?} (검 매지 않았니?)

라. 책 던지지 {*말아서, 아니해서, 못해서.} (책 던지지 않았다.)

(7)에서 보면 ‘말다’는 명령·청유문에서만 쓰이며 선행 요소로는 동작 동사만 취한다. 이것은 명령, 청유가 청자의 행동을 수반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즉 평서·의문문에 쓰이는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 대신 명령·청유문에서는 ‘말다’가 쓰임을 알 수 있다(4장 참조). 따라서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못하다’와 ‘말다’는 상보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못하다’는 동작이나 상태가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평서·의문문에서만 쓰인다. 부정소 ‘아니’는 단순 부정, 부정소 ‘못’은 타의 부정, ‘말다’는 ‘행위 금지’를 기본 의미로 갖는다.

다음은 중세 국어에서 ‘말다’의 쓰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8) 가. 너희들히 거슬 뿐 양 말라. (석상 24 : 12)

(너희들이 거역할 뜻을 갖지 말라.)

나. 너희 天人들히 하 슬허 말라. (석상 23 : 8)

(너희 天人들이 너무 슬퍼 말라.)

다. 願흔든 어마니미 그려 마르쇼셔. (석상 11 : 20)

(원하건대 어머님께선 그리워 마십시오.)

(8)에서 ‘하지’의 생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문소 ‘-지’ 없이 ‘말다’가 본동사로 쓰였는지가 문제이다. 장형 부정문은 ‘-지 말다’의 통사 구조인데, 중세 국어에서 이미 ‘말다’가 보문소 ‘-지’ 없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말다’가 본동사였음을 짐작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8)에서 ‘양하다, 슬허하다’처럼 ‘하다’ 접미사가 붙는 경우에는 ‘하지’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말다’의 선행 요소가 ‘동사’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므로 ‘하다’ 동사가 와야 하지만, 여기에 목적격조사 ‘을/를’을 통합하면 다음과 같다.

(8') 가. 너희들히 거슬 뿐 양을 말라.

나. 너희 天人들히 하 슬허를 말라.

다. 願흔든 어마니미 그려를 마르쇼셔.

(8')에서 '말다'는 타동사로 쓰이고 있는데, 제주 방언처럼 본동사의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말다'는 원래 동사로 쓰였는데 현대 중앙어에 오면서 보조동사로 문법화되었고 그 본동사의 흔적이 제주 방언 부정 응답에 남아서(예문 (3)에도 있음) 지금까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가. 나 말앙 성안티 굴으라. (나 말고 형에게 말하라.)

나. 느 말앙 어멍이 가사주. (너 말고 어머니가 가야지.)

다. 나 걱정 말앙 느나 잘 흐라. (내 걱정 말고 너나 잘 하라.)

라. 집치레 말앙 밧치레 흐라. (집 치레 말고 밧 치레 하라.)

(9)의 '말앙'에서 '-앙'은 중앙어의 연결어미 '-고(서)'에 해당된다. '말앙'의 선행 동사와 후행절의 동사가 동일한데, 이처럼 선행·후행절의 동사가 동일한 경우 선행절의 동사가 생략된다. '말다'에 의한 선행절만이 부정되고 후행절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문장이다.

(9가)는 '나에게 말하는' 행위를 멈추고 후행절의 행동은 해도 좋다는 뜻이며, (9나)는 네가 가는 행동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9다)는 '나를 걱정하는' 행동을 멈추길 요구하고 있고, (9라)는 집을 치장하는 행동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9가, 나)에서 인칭대명사와 공기하는 '말다'를 동사에서 전성된 보조사²⁵⁾로 보기도 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주어와 '말앙' 사이에는 보조사 '-은/는'이(문장에 따라 보조사 '-만'도 결합할 수 있다) 생략되어 있어서, 이 때의 '말다'는 보조동사의 기능이 강하며, '제외하다'의 의미가 있다. (9다, 라)에서 '말다'에는 타동사의 기능이 있으며 '그만두다'의 의미가 있다.

25) 김성화(1989 : 170)에서는 “너말고 네 아범”과 같은 문장에서 ‘말고’를 동사 ‘말-’에서 전성된 보조사로(의미는 단절) 보고 있다. 임홍빈(1987 : 83)에서는 이 ‘말-’과 부정 서술어 ‘말-’을 다르게 구분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9가, 나)에서 ‘말앙’이 인칭대명사에 결합된 보조사처럼 보이기 는 하지만 보조동사로 쓰이고 있다. 서정수(1994 : 866)에서는 보조사로 다루기보다는 동사 ‘말다’의 관용적인 용법으로 다루고 있다. 한 길(1977 : 60)에서는 이 ‘말다’는 서술어로서의 자립성이 없어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다’ 자체는 ‘행위 금지’를 의미하며 그 행위에 해당하는 동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가다, 먹다’와 같은 일반 동사에 비해서 불완전하지만 자립성을 띤다. 부정 응답에서 ‘난 말다’가 성립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9)에서 선행절을 완성하면 (9')와 같다.

- (9')가 나(안티)는 (꺠지) 말앙,
나. 는 (가지) 말앙,
다 나 걱정은 (ㅎ지) 말앙,
라. 집치레는 (ㅎ지) 말앙,

(9')에서 선행·후행절의 동사가 동일하니까 선행절의 동사가 생략되면서 보조사도 생략되었다. 따라서 이 때의 '말앙'은 인칭대명사에 바로 연결되는 보조사처럼 보일 뿐이다. "그것 말고 이것 주세요."에서 '말다'는 일반 동사로서의 기능이 있다. 따라서 지시대명사와 쓰인 '말다'가 동사이면 인칭대명사와 쓰인 '말다'도 동사로 볼 수 있다. "이 물건 말고 다른 것은 없어?"에서 '말고'는 '외에·제외하고'라는 뜻이다. 인칭대명사에 쓰인 '말다'는 보조동사이며 그 의미는 '제외하다'라 할 수 있고, 일반 동사로서의 '말다'는 '그만두다·중지하다'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사랑 말고 결혼이 좋다."에서도('사랑(은) 말고'에서 보조사가 생략됨) (9다)와 마찬가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중앙어에서 의존 명사 '대로, 만큼'이 [+유정]의 의미 자질을 가진 명사와 쓰일 때에는 보조사가 된다. 물론 '말다'가 동사에서 보조사로 문법화되었는지는 좀더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다.

(9)에서 '말다'가 쓰인 문장이 부정되면서 후행절의 행동을 허락하며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말다'는 부정 어휘이며 동사임을 알 수 있다.

한 길(1977: 60)에서도 (9가, 나)의 '말앙'처럼 동작성이 없는 명사(인칭대명사)와 같이 쓰이는 경우 "문맥 안에서 쓰여 전제문의 용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으며, 이 때의 '말다'는 "서술어로서의 자립성이 없어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고 했다. 복문인 경우 '말고'가 선행절에 쓰일 때 명사는 자립성이 있어서 '명사어간' 자체로도 문장 성분이 되므로 '하지'가 생략된다. 반면에 동사는 자립성이 없어서 어근 자체만으로는 문장 성분이 될 수 없으므로 보문소 '-지'가 생략되지 않는다.

(10) 가. 일흐지 실프민 말라. (일하기 싫으면 말라.)

나. 일천 석을 주노렝 말라. (일천 석을 준다고 말라.)

다. 창피헝 말앙 잘 흐라. (창피하다고 말고 잘 하라.)

(10)에서 ‘말다’는 중앙어에서도 자립성이 있지만 제주 방언에서 자립성 정도가 좀더 자연스럽다. 여기서 ‘말다’에 본동사의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1) 가. ㄹ장 술지니란 말고. (노언 上 19)

나. 내 庫엿 천량으란 말오, 그 外 옛너나몬 것과. (석상 24 : 47)

(내 창고에 있는 재물은 말고 그밖의 다른 것과.)

(11)은 중세 국어이다. ‘살찐이는 말고’, ‘재물은 말고’에서 ‘말다’는 불완전하지만 동사의 기능이 있으며, 그 의미는 ‘제외하다’, ‘그만두다’이다.

(11가)는 어떤 금지의 대상(동사)이 생략되었지만 보조사 ‘는’과 통합된 어휘를 제외하고 후행절을 긍정하게 된다. (11나)는 ‘내 창고에 있는 재물’은 안 된다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물론 문장 내용으로 봐서 그외 다른 곳에 있는 재물은 가져가도(사용해도) 좋다는 해석을 가정할 수 있다.

다음은 ‘말다’에 보조사의 기능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12) 가. 가의 공부흙이랑마랑 잡저.

(그 아이 공부하기는커녕 자고 있다.)

나. 가의 일흙이랑마랑 놀암저.

(그 아이 일하기는커녕 놀고 있다.)

다. 어멍 잘 읍디겐 흙이랑마랑 브레지도 아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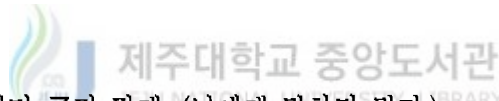
(어머니 잘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기는커녕 쳐다보지도 않더라.)

강정희(1992 : 715)에서는 ‘마랑’을 ‘는커녕’으로 해석해서 보조사로 다루고 있다. ‘이랑’은 중앙어 ‘은/는’에 해당하는 보조사이며, ‘마랑’은 동사 ‘말다’에서 보조사로 문법화되었다. 따라서 ‘이랑마랑’은 보조사로서 그 뜻은 ‘는커녕’, ‘는

고사하고' 등이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말다'가 부정 어휘이기 때문이다.

(12가)에서 '마랑'은 “그 아이가 공부하고 있을 것이란 믿음”을 깨뜨리고 있다 따라서 선행절의 '공부한다'를 부정, 강조하면서 '자는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12나)에서 “그 아이가 일하고 있을 것이란 믿음”을 부정하는 발화이며, '일한다'를 부정, 강조하고 있으며, '노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12다) 역시 인사성이 없음을 꾸짖고 있다.

(12)에서 '-마랑'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마랑'은 부정어 '아니다'처럼 쓰이고 있으며, 선행절을 부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랑마랑'은 선행절의 기대를 무시하고 체념할 때 쓰이며 선행절을 부정하고 있다. 즉 선행절은 물론 후행절의 내용을 부정적으로 표현한다고(못마땅하게 여기는 정도) 볼 수 있다. '-마랑'은 '말다'의 기본 의미인 '행위 금지'의 뜻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선행 동사의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선행 동사를 부정하는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13) 가. 늑신디 궂지 말게. (남에게 말하지 말자.)

나. 우리 일ㅎ지 말게. (우리 일하지 말자.)

다. 가의 걱정ㅎ지 말게. (그 아이 걱정하지 말자.)

(13') 가. *늑신디 궂 말게.

나. ?우리 일 말게.

다. 가의 걱정 말게.

(13')에서 보듯이 '하다' 동사에서는 '하지'의 생략이 자연스러우나, (13'가)와 같이 '동사 어간+지'인 경우에는 보문소 '-지'가 생략되지 않는다. (13'나, 다)에서 '하다' 동사인 경우 '하지' 생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하다' 동사인 경우에는 본동사로 보고, 후행하는 '말다'는 보조동사로 보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때의 '말다'를 본동사로 다루려고 한다. 왜냐하면 (13')에서 보듯이

‘말다’는 타동사로 쓰이고 있어서이다.

(14) 가. 이 방의 들게 말라. (이 방에 들게 말라.)

나. 가의 울게 말라. (그 아이 울게 말라.)

(15) 가. 다른 사람 가져 가게 말라. (노언 下 32)

나. 놀흐란 너무 둔겁게 말라. (번박 上 16 : 1)

다. 太子는 거죽말 묻흐시는 거시니 뉘으켜 마르쇼셔. (석상 6 : 49)

라. 늘근 넷 버디 슬케 흐디 말라. (두초 8 : 21)

예문에서 보듯이 중세 국어에는 ‘말다’가 보문소 ‘-지’ 외에 ‘-아/어, -게’에 후행하기도 하는데, 제주 방언에 남아 있는 형태로는 보문소 ‘-지’와 ‘-게’이며, ‘-아/어’에 후행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보문소 ‘-게’와 ‘말다’ 사이에 ‘하지’가 있어야만 문장이 성립하는 것은 중앙어이고, 제주 방언과 중세 국어는 ‘하지’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하는 공통점이 있다.

(14)는 제주 방언에서 지금도 토박이 화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문장이다. (15가, 나)는 중세 국어에서도 ‘-게 말다’ 문장이 쓰였음을 보여준다. 물론 보문소 ‘-게’의 선행 요소는 동작 동사이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서 통사의 통시성을 알 수 있다. 2.2.의 예문 (16)과 비교해 보면 보문소 ‘-디, -게’와 부정 서술어의 공기 현상이 제주 방언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15다)에서 보문소 ‘-아/어’와 ‘말다’의 공기 관계가 중세 국어에만 있는 통사 특성이다. (15라)는 ‘흐디’의 생략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라기보다는 ‘-게 흐디’ 사동문에 대한 부정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런데 (15)에서 보문소 ‘-게’와 ‘말다’ 사이에 ‘하지’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견해(박영준1994 : 223)도 있지만, ‘부정 : 긍정’의 관계로 본다면 ‘하지’ 생략설은 배제되어야 한다. 반면에 고영근(1987), 허 웅(1975), 홍종선(1986) 등은 ‘하지’ 생략설을 부인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원래 ‘-게 말다’ 형이 존재했다는 견해에 동의하는데 이 때의 ‘말다’는 동사이다.

‘말다’의 통사 기능을 좀더 살펴보자.

(16) 가. 경 말양 오늘 바치주²⁶⁾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바치자.)

나. 말다.

(16가)에서 화자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며 청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16나)처럼 부정 응답인 경우에는 주어의 강한 거부 의사가 담겨 있다. 즉 “오늘 바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다’에는 명제에 대한 거부 의사(행위 거부)가 내포되어 있으며 본동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16가)의 긍정 대답은 ‘경 흐주’가 된다. ‘그렇게 하자’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다’의 긍정이 ‘하다’가 될 수 있음을 설정할 수 있다. 중앙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가 되는데, 이 때는 ‘하지’의 생략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제주 방언인 경우에는 오히려 ‘하다’의 생략이 보편적이다. 즉 부사어 ‘경’이 서술어인 ‘말다’를 한정하고 있어서, 이 때의 ‘말다’에 본동사의 기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7) 가. 영화야, 청소 말아라.

나. 학생들, 줄지 말아라.



(17)은 중앙어인데 제주 방언과 대동소이하다. (17가)에서 ‘하다’ 동사 ‘청소 하다’에서 ‘하지’의 생략이 가능하며, ‘줄다’는 단일어여서 보문소 ‘-지’의 생략이 불가능하다.

부정소 ‘아니’와 ‘못’은 ‘하다’와 분리할 수 있고 동사 앞이나 뒤에 올 수 있으나, ‘말다’는 ‘말+하다’가 될 수 없어서 어휘 자체가 부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말-’의 위치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형 부정문은 있을 수 없다.

명령·청유문은 모두 청자의 행동과 관계가 있어서 ‘말다’에 선행하는 동사는 [+동작]의 의미 자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와 ‘말다’의 통사 제약이 있는 것이다.

통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 변화 과정이 오랄수록 그 흔적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각 지역 방언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유성을 상실하며 중앙어의

26) 각주 13)에서 보았듯이 제주 방언 종결어미 형태로는 ‘-저·주’가 있다. ‘-저’는 평서형(의도)에 쓰이며 화자의 긍정적 단절을 나타내고, ‘-주’는 평서, 청유, 허락, 의도, 추측 등의 서법에 모두 쓰인다(자세한 것은 현평효 1985 참조).

들에 동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도 ‘말다’는 ‘-디 말다’처럼 명령의 부정 어휘로 쓰이고 있다.

남풍현(1976 : 56)에서도 “‘말-’은 본래는 동작이나 행위의 중단을 뜻하던 단어가 부정법에 전용된 것으로, 동작 지속의 당위성에 대한 부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도 ‘말다’는 본동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정 어휘 ‘말다’는 일반 동사이며 단일어이고, 선행 요소로 동작 동사가 선택되며, 장형 부정문만이 성립한다. ‘말다’가 부정 서술어로 기능할 때 보문소 ‘-지’와 결합한 선행 동사의 행위(동작) 발생을 그만두게 하는 금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청자의 ‘행위 금지’를 요구하거나 부탁해야 하므로 선행 요소에 동작 동사가 필요한 것이다. ‘말다’는 본래 어휘적 표현의 본동사였으나 문법적 구성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의 기능과 보조사의 기능이 있음을 보았다.

‘말다’는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그 행위를 부정하며 ‘그만두다, 중지하다, 금하다’ 등의 뜻을 가진 어휘다. ‘말다’는 의미 자체가 화자나 청자의 의도, 요구에 따라 ‘행위의 금지’가 가능하다. 명령·청유문의 통사 특성상 동작 동사가 선택되며, 주어의 어떤 동작을 요구하는 문장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지 말다’가 쓰이는 것은 ‘말다’가 긍정문에서 보여 주었던 주어의 동작성을 중단하거나 금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행위든, 미래의 행위든 현재 발화 시점에서 멈추기를 명령, 부탁하게 된다. 따라서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는 이 두 문형에 쓸 수가 없고 대신 ‘행위의 금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다’와는 상보적 분포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1.2 ‘말다’의 담화 기능

담화란 발화된 문장과 그 배경이 되는 전제 등을 고려하며 화용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유문과 명령문에서 ‘말다’의 담화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정문은 초점의 대상에 따라 부정 범위가 달라지는데 초점이 중립일 때는 선행 동사가 부정된다.

(18=13) 가. 님신디 곧지 말게/ 말라. (남에게 말하지 말자/ 말라.)

나. 우리 일하지 말게/ 느 일하지 말라.

(우리 일하지 말자/ 너 일하지 말라.)

다. 가의 걱정하지 말게/ 말라. (그 아이 걱정하지 말자/ 말라.)

(18)은 부정 청유·명령문의 보기이다. 청유문의 담화 기능을 살펴보면, (18가)는 ‘남에게 말하는’ 행위가 있거나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쓰인다. 먼저 ‘높신디’에 초점이 놓이면(높신디 곧지 말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 담화 공간에 있는 우리끼리만 말하자”로 해석이 된다. ‘곧다’에 초점이 놓이면(높신디 곧지 말게) ‘말하는 행위’만 부정된다. 즉 “남에게 말하는 행위” 외에 다른 행동은 해도 좋다는 뜻이다. (18나)에서 ‘말게’는 선행 동사인 ‘일하다’를 부정하며 일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지 말자”는 뜻으로 거절의 의미가 들어 있다. (18다)에서 화자의 의도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아이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는 청자의 ‘행위 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즉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과, “우리들의 염려가 무의미하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18)에서 ‘말다’에는 행위 거부의 의미가 드러난다.

부정 명령문으로 쓰인 예문을 담화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정 청유에서 해석한 방법과 유사하며 다만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명령문임을 전제하면 된다. (18가)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남에게’만 말하지 말라이며, (18나)는 단순히 ‘일하는 행동’의 금지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청자의 어떤 행동이 화자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아도 좋다” 또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18다)는 “그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쓸데 없는 행위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너나 잘 처신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초점의 위치에 따라 부정 범위가 달라지지만 명령과 청유라는 문장만 다를 뿐이지 기본 의미는 같다. 따라서 ‘말다’는 명령·청유문에서는 ‘행위 금지’의 의미를 갖는다.

한 길(1977: 67)을 보면 부정 어휘 ‘말다’의 “주어가 [+유생적]이어야 하며, 주어가 1·2인칭일 때는 ‘아니하+말하는 이의 의지’로 분석이 되고, 3인칭일

때는 ‘아니하+주어의 의지’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명령·청유문은 통사 특성상 당연히 주어가 [+유정]이어야 하며, 동작 동사가 와야 하므로 주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작성이 있어야 한다. ‘말하는 이의 의지’, ‘주어의 의지’는 주어의 인칭과 관계가 있으며, ‘말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부정 어휘임을 알 수 있다. ‘말다’는 명령이나 요청에 대한 거절의 뜻으로 사용되므로 당연히 ‘화자의 의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단순 부정을 의미하는 부정소 ‘아니’에 ‘화자의 의지’가 더해져서 ‘행위 금지’를 부각시켜 준다. 그런데 주어가 3인칭일 때에는 ‘화자의 의지’가 반영될 수도 있다.

(19) 가. 불레낭 거끄당 손 다친다. 말라.

(보리수 나무 꺾다가 손 다친다. 말라.)

나. (그 뻘 부테 솜리弗드려 니르샤터) 말라 말라 다시 니르디 마라샤
 흐리니 (석상 13 : 44)

(19가)는 제주 방언이고, (19나)는 중세 국어이다. (19가)에서 ‘말라’는 ‘하지 마’의 뜻으로 쓰였다. 담화가 생략되고 ‘말라’가 단독으로 발화될 때는 ‘행위 금지’를 단정하고 있다. 이런 담화 생략은 보편적이다. 중앙어는 “하지 마”로 실현되지만, ‘말다’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물론 화자와 청자는 “거끄지 말라”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으며, 화자의 요구를 청자가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떠들고 있을 때도 어른이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말라(이)”라고 말한다. 즉 떠들지 말라는 뜻이다. 중앙어인 경우 어머니가 어린 아이에게 간단한 명령이나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하지 마! 안 돼.—이 경우에는 강한 부정, 거부, 단정의 표시일 수 있다). 화자는 “나무를 꺾다가 손을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청자는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자가 나무 꺾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나)는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 물론 후행절의 내용을 보면 금지의 의미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제주 방언처럼 ‘말라’ 단독으로 문장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말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된 내용일 수도 있다. 따라서 청자가 말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에서 보듯이 ‘말라’가 단독으로 서술어로 쓰이고 있으며 본동사임을 알 수 있다. 중앙어인 경우에는 이처럼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하지 마’로 쓰인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서 ‘말다’의 자립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중세 국어의 특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말다’에 선행하는 보조사의 쓰임을 통해서 담화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말다’의 의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보문소 ‘-지’와 통합하는 보조사의 형태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20) 가. 배염 뜨려난 막대기 거시도 말라.

(뱀을 때렸던 막대기를 건드리지도 말라)

나. 나 걱정하지랑 말라. (내 걱정하지는 말라.)

다. 밥 먹을 때 웃지만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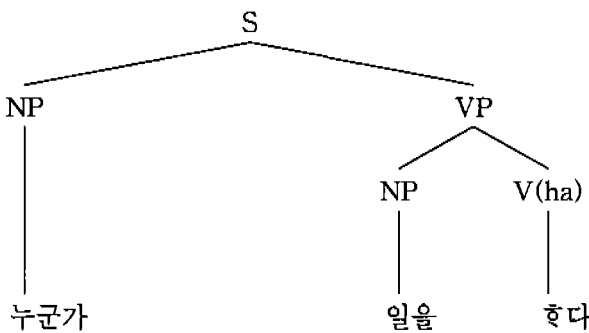
(20가)는 “막대기를 건드릴 수 있다”를 전제하고 있으며, 보조사 ‘도’ 앞에서 보문소 ‘-지’가 생략되었다. 보조사 ‘도’가 쓰여서 해석이 달라진다. ‘거시도’에는 “막대기를 건드리지 말 것은 물론 부러뜨리거나 던지지도 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며, ‘막대기’에 가해질 청자의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거시도’에는 포괄적인 ‘행위 금지’의 뜻이 담겨 있다. 보조사 ‘도’는 ‘또한, 역시’의 동일 의미로 사용되며 부정문에서는 부정의 강조로 쓰이고 있다. 보조사 ‘도’의 지배 영역은 (20가)인 경우에는 선행 요소에 한정되며, 보문소 ‘-지’가 생략되는 경우를 보면, ‘-지 말다’처럼 단독으로 쓰인 때는 생략되지 않고 보조사 ‘도’와 통합될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 (20나)에서 ‘랑(은/는)’은 ‘선택’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보조사이다. 부정 서술어 ‘말다’에 의해서 주어진 전제 또는 주어진 정보에 대한 부정을 나타낸다. “너 어떻게 지내니?”라고 질문했을 때 (20나)처럼 대답했다면 청자의 반응(염려, 걱정)을 거부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다)처럼 보조사 ‘만’이 결합되면 그 어휘만 선택되고 그 외의 행동은 해도 좋다는 전제가 성립한다. 즉 ‘웃는’ 행위만은 하지 말고 그 외 다른 행위는 해도 좋다는 뜻이다. 식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서 화자는 알고 있고 청자는 모르는 사항을 제한해서 알려 주고 있다.

(20)에서 ‘말다’는 역시 ‘행위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조사와 통합한 선행 요소를 부정하고 있다. 보문소 ‘-지’는 ‘도/는/만’과 같은 보조사와 통합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장형 부정문인 경우 보문소 ‘-지’와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못하다’·‘말다’ 사이에 조사가 개입할 수 있다. 이것은 조사의 통사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보조사가 쓰일 때는 부정문의 의미가 중의성에서 벗어나서 분명해진다. 보조사가 부정 서술어 ‘말다’의 의미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 금지’라는 기본 의미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보조사는 서술어에 제약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서술어가 선행 성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말다’가 서술어로 쓰였기 때문에 통사상의 제약 현상, 공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말다’의 여러 기능을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말다-하다’가 대립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를 논의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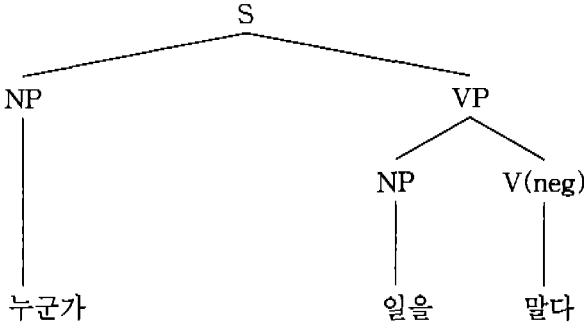
이 장에서 논의하는 부정 어휘들은 대개 “아니다-이다”·“없다-있다”·“모르다-알다”처럼 서로 대립적으로 성립하는데, ‘말다’는 대립적이 없다. 따라서 그 대립적은 “□”인데, 이 “□”에 ‘하다’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정의 ‘말다’와 긍정의 ‘하다’는 서로 대립적²⁷⁾으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21) 가. 긍정문



27) 여찬영(1975 : 174)에서는 중세 국어에서 평서문·의문문에서는 ‘아니하다’, ‘못하다’가 나타나고, 통사론적 제약에 의해 청유문·명령문에는 ‘말다’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말-’ 동사는 긍정 명령문에 나타나는 ‘하-’ 동사에 대립되는 것으로”, “긍정의 ‘하-’ 동사와 부정의 ‘말-’ 동사”는 서로 대립된다고 보고 있다.

나. 부정문



(21)에서 ‘흐다’와 ‘말다’는 동사로서 대립됨을 보고자 한다.

부정 서술어 ‘아니 흐다’·‘못 흐다’는 ‘부정소+흐다’로 분리가 가능하므로 ‘흐다’를 쉽게 추출할 수 있으나, ‘말다’는 부정 어휘이기 때문에 쉽게 형태 분석이 안 된다. 그래서 긍정의 ‘흐다’에 대한 부정은 ‘말다’라 할 수 있다. ‘흐다’의 선행 요소는 자립성(동작성)을 띤 명사이며 ‘말다’의 선행 요소는 동작성을 띤 동사로서 서술어의 기능을 지닌다. ‘흐다’와 ‘말다’도 본동사로서 동사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선행 요소 자체에도 동작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흐다’의 부정은 ‘{아니/못}흐다’인데 이 부정 서술어를 명령·칭유문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부정 어휘인 ‘말다’와 교체될 수 있다고 보며, 이렇게 교체가 가능하다면 ‘흐다’의 대립 짝은 ‘말다’임을 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긍정의 ‘흐다’에 대한 부정은 세 개의 부정 서술어가 다 대응되는데, ‘아니하다’, ‘못하다’는 ‘부정소+흐다’의 통사적인 복합 구성이어서 부정소를 분리할 수 있으며 부정 어휘로는 ‘말다’만 남는다. 따라서 동사 ‘흐다’에 대립하는 부정 어휘로는 ‘말다’가 될 수 있다.

(22) 가. 이 방의 들게 말라/말게.

나. 가의 울게 말라/말게.

다. 이 방의 들게 흐라/흐게.

라. 가의 울게 흐라/흐게.

(23) 가. 다른 사람 가져 가게 말라. (노언 下 32)

나. 놀흐란 너무 둔겁게 말라. (번박 上 16 : 1)

다. 조차 가게 흐라. (석상 6 : 9)

라. 물으란 먹게 흠새. (계축일기 : 185, 유창돈 1964 : 732)

(22)와 (23)을 비교해 보면 ‘말라’와 ‘흐라’의 선행 조건은 ‘동사+-게’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명령문과 청유문이 성립하는 통사 특성도 같아서, ‘말다’와 ‘흐다’가 대립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 방언이 중세 국어의 공통점이 있으나 중앙어와는 차이가 있음을 말해 준다. 중앙어에서도 ‘-게 하라’ 사용이 빈번하지만 제주 방언만큼 보편적이지는 않다. (22)는 제주 방언의 보편적인 문장이다. (22다, 라)는 ‘-게 흐다’ 사동문으로 볼 수도 있으며, (23라)는 중세 국어의 청유문이다.

(24) 가. 너희들히 거슬 뿐 양 말라. (석상 24 : 12)

나. 너희 天人들히 하 슬허 말라. (석상 23 : 8)

(25) 가. 옷 사람 두고 더은 양 흐야. (석상 9 : 14)

나. 衣冠흔 사르미 므스물 슬허 흐고. (두초 20 : 17)

(24), (25)에서 ‘말다’와 ‘흐다’가 대립쌍으로 성립함을 알 수 있다.

(22~25)에서 보듯이 긍정의 ‘흐다’ 동사에 대한 부정어로는 ‘말다’가 됨을 알 수 있다. ‘흐다’ 외에 일반 동사는 그 동사 자체가 부정된다. 따라서 ‘흐다’의 부정이 ‘말다’는 되지만, ‘말다’의 긍정이 항상 ‘흐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흐다’ 동사 외에 다른 동사도 있다. 따라서 ‘흐다’ 동사에 한해서만 ‘말다’와 대립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흐다’ 동사인 경우 선행 명사와 ‘흐다’의 분리가 용이하며 이때 ‘흐다’의 부정어로 ‘말다’가 쓰인다. 여기서 ‘흐다’와 ‘말다’에는 당연히 본동사의 기능이 있다.

다음 예문(송석중 1967 : 122~123)을 통해서 중앙어에서의 대립 관계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26) 가. 우리 {싸움을/술을/노래를} 하자.

나. 우리 {싸움을/술을/노래를} 말자.

(26)에서 보던 긍정문에서는 ‘하다’가, 부정문에서는 ‘말다’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가)는 {싸움을 하자/ 술을 마시자/ 노래를 부르자}인데, ‘하다’는 ‘먹다’와 ‘부르다’의 포괄동사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하다’를 쓸 수 있는 동사의 부정은 ‘말다’가 될 수 있다. 즉, 긍정의 ‘하다’를 쓸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부정은 ‘말다’가 될 수 있다. (26나)는 “{싸움을 하지/ 술을 마시지/ 노래를 부르지} 말자”인데 선행 동사가 생략되고 ‘말다’는 타동사로 쓰이고 있다. 여기서도 보듯이 동사 ‘하다’와 ‘말다’는 대립쌍이 되지만 ‘하다’ 동사를 제외한 다른 동사는 성립하지 않는다. ‘말다’의 대립쌍이 항상 ‘하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긍정의 ‘하다’에 대립되는 것이 ‘말다’라 할 수 있다.

‘하다’ 동사에서 선행 명사가 [+동작]의 의미 자질을 갖고 있으며, 부정 어휘 ‘말다’와 쓰이면 ‘하지’가 생략되어도 문장은 성립하며 의미에도 별 차이가 없다. 이것은 명사는 그 자체로 문장 성분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사 어간은 보문소 ‘-지’가 있어야 ‘말다’가 쓰인다. 따라서 ‘말다’는 보조동사로 굳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보문소 ‘-지’ 선택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서 장형 부정문임을 알 수 있다. ‘말다’는 ‘말+하다’로 분석할 수 없으므로 ‘말다’ 자체가 부정 어휘여서 장형 부정문만이 성립한다. 그런데 ‘아니하다’와 ‘못하다’는 부정소와 ‘하다’로 분석이 가능하며, 그 부정소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형·장형 부정문이 성립 가능한 것이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부정 어휘 ‘말다’의 기본 의미는 ‘행위 금지’이며, 본동사, 보조동사, 보조사의 통사 특성이 있다. ‘말다’는 명령·청유문이라는 특정한 문형에 쓰이기 때문에 선행 요소의 동작성, 즉 어떤 행위(동작)를 금지하는 의미 기능을 갖고 있어서 통사상의 제약이 따른다.

‘말다’는 ‘있다’나 ‘모르다’처럼 ‘부정소+긍정 어휘’로 해체 분석할 수는 없지만 동사의 흔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다’를 긍정의 대립쌍으로 설정하면 ‘하다’의 통사상의 부정은 ‘아니 하다’, ‘하지 아니하다’가 되며 어휘의 부정

은 ‘말다’가 됨을 살펴보았다.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주어의 희망이나 소망을 나타낼 때는 ‘말다’가 쓰이지만 ‘아니하다’로 대체된다. ‘말다’는 명령·청유문의 통사 특성 때문에 다른 문형에는 쓰이지 못하며, ‘아니하다’, ‘못하다’와 상보적 관계에 놓여 있다.

제주 방언에서 ‘말다’의 통사 특징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본동사의 기능이 있는 것과(예문 (3), (10)), ‘싫다’ 자리에 쓰이는 것과(예문 (6)), 보조동사의 기능이 있는 것과(예문 (9)), 보조사로 기능하는 것과(예문 (12)), 보문소 ‘-게’와 쓰이는 것(예문 (14))을 들 수 있다.

3.2. ‘엇다’의 부정 표현

중앙어에서 ‘있다’에 대한 부정 형식에는 ‘아니 있다’, ‘있지 아니하다’, ‘없다’가 있다. 긍정 어휘 ‘있다’가 ‘존재’·‘소유’의 의미로 쓰일 때 그에 대응되는 부정 어휘에는 ‘없다’가 있다. 이 ‘없다’에 대해서 한 길(1977)은 ‘부정소+긍정적 어휘’로, 이홍배(1970)은 ‘부정소+있-’으로, 송석중(1977)은 ‘부정을 포함한 어휘’라 하여 ‘안+긍정 어휘’로 분석했다. ‘없다’는 ‘아니다’처럼 명백히 부정소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들이 쓰인 문장을 부정문으로 보는 근거는 ‘아니 있다’의 대치 어휘로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부정 어휘 ‘엇다’의 부정 표현이 제주 방언에도 나타난다. 존재 부정인 ‘엇다’는 ‘부정소+긍정 어휘’로 해체 분석할 수 있으며, ‘엇다’는 ‘있다’와 대립적으로 성립함을 보고자 한다. ‘있다’는 ‘소유’와 ‘존재’의 의미를 갖는 존재 동사이다. 이 긍정 어휘에 대한 부정 어휘인 ‘엇다’도 ‘소유·존재’를 부정한다.

‘있다’에 대한 ‘엇다’는 어휘 차원의 대립쌍이며, ‘아니 있다’, ‘있지 아니하다’는 통사 차원의 부정문이다. ‘엇다’는 ‘존재 부정’ 외에도 제주 방언의 경우 부정 응답에서도 부정소 ‘아니’ 자리에서 쓰이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엇다’의 의미·통사·담화 기능을 논의하겠다.

3.2.1 '없다'의 의미·통사 기능

보통 '없다'는 '不在, 無, 斷續, 不能'의 의미가, '있다'는 '存在, 所有, 持續, 可能'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있다'가 '소유(有), 존재(在, 所在)'의 의미를 나타낼 때만 부정어는 '없다'(無, 無所有, 不在)가 되는데, 그 쓰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7) 가. 집의 사름이 없다. (집에 사람이 없다)

나. 이디 다른 반찬이 없다. (여기 다른 반찬이 없다.)

다. 난 아덜이 없다. (나는 아들이 없다.)

라. 난 무스운 거 없다. (나는 무서운 것이 없다.)

마. 난 의탁홀 디가 없다. (나는 의탁할 곳이 없다.)

(27)에서 '없다'는 '사름, 반찬, 아덜, 무스운 거, 의탁홀 디' 등 선행 명사구를 부정하고 있다. '있다'에 대한 '소유·존재'의 대상이 있어야 하므로 당연히 선행 요소로는 명사가 와야 한다. '없다'는 상태 동사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소유'·'존재'의 부정을 의미한다.

(27가, 나)에서 '없다'는 존재를 부정하므로 '부재'(不在)의 뜻이며, (27다~마)는 '소유'의 부정을 뜻하므로 '無'(無所有)의 뜻이지만, 존재의 부정인 '不在'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있다'가 '존재'의 의미일 때 처소(위치) 부사어가 첫 머리에 위치하며, '소유'일 때는 중주어의 구조가 된다. '있다'와의 대립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없다'를 긍정 어휘 '있다'로 대체해 보면 (27')와 같다.

(27') 가. 집의 사름이 있다.

나. 이디 다른 반찬이 있다.

다. 난 아덜이 있다.

라. 난 무스운 거 있다.

마. 난 의탁홀 디가 있다.

(27') 역시 '있다'에 '소유·존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선행 명사구의 소유·존재를 단정하고 있다. '소유'인 경우에는 소유주가 무엇인가(소유할 것)를 갖고 있다는 뜻이며, '존재'인 경우에는 장소(처소)에 대상물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즉 '소유'는 '-가 가진 것'이며(-을 가지고 있다), '존재(소재)'는 '-에 있는'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재'는 '장소·처소' 등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킨다.

박양규(1975 : 94)에서는 '있다'가 “소유의 의미를 가질 때의 선행 요소는 긍정체언이고, 존재인 소재의 의미를 가질 때 선행 요소는 부정체언”이라고 했다. 즉 '있다'의 기본 의미는 '소재'인데 부차 의미를 '소유'라고 했다. 성광수(1976 : 110)에서는 “'있다1'을 '존재'로, '있다2'를 '소유'라 했다. 따라서 '있다'는 '존재'가 그 자체의 의미가 된다. 이현희(1994 : 14)에 의하면 존재 구문은 “NP₁에 NP₂ 있-으로, 소유 구문은 'NP₁이 NP₂ 있-”으로 규칙화하였다. 이 공식에 의하면 (27'가, 나)는 존재를, (27'다-라)는 소유를, (27'마)는 '소재(존재)'를 나타낸다. 'NP₁에'는 [-유정 체언]이며, '집의(에), 이디(이곳에)'가 해당된다. 'NP₁이'는 [+유정 체언]이며, '나는'이 해당된다. (27), (27')에서 '있다'와 '있다'의 선행 환경은 명사구임을 알 수 있다.

'있다'가 '있다'의 부정 어휘임을 알아 보기 위해서 '부정소 아니+있다'로 단형·장형 부정문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28) 가. 집의 사람이 아니/못 있다.

나. 이디 다른 반찬이 아니/못 있다.

다. 난 아덜이 아니/못 있다.

라. 난 므스운 거 아니/못 있다.

마. 난 의탁홀 디가 아니/못 있다.

(29) 가. 집의 사람이 있지 아니하다/ *못하다.

(집에 사람이 있지 않다/ *못하다.)

나. 이디 다른 반찬이 있지 아니하다/ *못하다.

(여기 다른 반찬이 있지 않다/ *못하다.)

다. 난 아들이 있지 아니하다/ *못하다.

(나는 아들이 있지 않다/ *못하다.)

라. 난 무서운 거 있지 아니하다/ *못하다.

(나는 무서운 것이 있지 않다/ *못하다.)

마. 난 의탁할 곳이 있지 아니하다/ *못하다.

(나는 의탁할 곳이 있지 않다/ *못하다.)

(28)이 비문법적인 것은 부정소 ‘아니’·‘못’이 존재 동사 ‘있다’에 선행할 수 없기 때문이며, ‘있다’에 대한 부정의 대체 어휘인 ‘없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 어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통사적인 부정문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있다’가 ‘-을 가지다’라는 동사에 후행할 때에는 부정 서술어 ‘못하다’와 공기할 수 있다.

(29)에서 ‘못하다’가 선택되지 못하는 것은, ‘있다’가 소유·존재의 동사이기 때문이다. (29)에서 ‘있지 아니하다’ 대신에 ‘없다’를 대입하면 (27)로 환언된다. ‘있-’의 장형 부정이 어휘화해서 ‘없다’가 됨을 알 수 있다. ‘없다’가 ‘있지 아니하다’로 대체되어도 의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있다’의 부정어는 ‘없다’가 될 수 있으며, ‘있다’의 대립적으로 ‘없다’를 설정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²⁸⁾ (29)에서 ‘있지 아니하다’는 선행 명사의 ‘소유·존재’를 부정하고 있는데 부정소 ‘아니’는 주어가 1인칭일 때에는 ‘주어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의지 부정’의 의미가 강하고, 3인칭인 경우에는 단순히 그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단순 부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27)처럼 부정 어휘 ‘없다’가 쓰일 때는 ‘단정, 강한 부정’의 의미로 ‘無’이지만, (29)처럼 장형 부정을 사용할 때에는 ‘간접, 약한 부정’의 의미가 있다. 즉 “사람이, 아들이, 무서운 것이,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이다”라는 화자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정 어휘 ‘없다’를 쓸 때보다 장형 부정문의 형식을 사용할 때에는 ‘-인 상태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내포된다.

화자가 장형 부정문을 사용할 때는 간접적이고 약한 부정의 의미가 있고,

28) 한 길(1977 : 51, 71~72)를 보면 ‘없다’는 ‘있지 아니하다’로 분석되며, ‘있다’가 심층 구조에서 부정 변형이 이루어져서 표면 구조에서는 ‘아니+있’으로 재분석되기 때문에 해체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부정 어휘 '있다'를 사용할 때는 직접적이고 강한 부정의 의미, 그 부정을 단정하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방언 토박이 화자들은 대부분 장형 부정문보다 부정 어휘 '있다'를 자주 사용한다. 장형 부정문을 발화할 때에는 화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완곡하게 전달하려는 심리 상태가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성광수(1976 : 120)에서 '가지다'에 '소유·보관'의 의미를 가할 경우엔 '있다'와의 연결에서 진행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있다'가 소유의 의미로 쓰일 때는 '-을 가지다'로 대체가 가능하며, '가지다'는 타동사여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30) 가. 난 아덜을 ㄴ정 있저. (나는 아들을 가지고 있다.)

나. 난 므스운 거를 ㄴ정 있저. (나는 무서운 것을 가지고 있다)

다. 난 의탁할 디를 ㄴ정 있저. (나는 의탁할 곳을 가지고 있다.)

(30)에서 '-을 ㄴ정 있다'는 '소유'의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소유'나 '존재'의 의미 속에는 어떤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있다'는 '소유·존재'의 부정이므로 그 상태가 완료된 '가지고 있다'의 부정을 '있다'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있다'는 "동작의 상태가 계속되거나 진행되는 의미로 쓰일 수 있으며 '없다'는 쓰일 수 없다." (한 길 1977 : 45)는 것은 '있다'에는 동사 특성이 있고 '없다'에는 형용사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29다~마)에서 동사 'ㄴ지다'가 '있다'에 선행한다면 부정 서술어 '못하다'가 선택된다. 따라서 '있다'가 '소유'의 의미로 동사 'ㄴ지다'와 공기할 때에는 부정 서술어 '못하다'가 성립하지만, '존재'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부정 서술어 '못하다'와 공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부정 서술어 '못하다'는 '타의 부정'의 의미이며, '가지고 있다'가 화자의 동작을 의미하는 기능이 있어서 동작성을 요구하는 부정소 '못'의 선행 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31) 난 그 집의 더 있지 못했져. (나는 그 집에 더 있지 못했다.)

(31)에서 ‘잇다’는 ‘머무르다’는 상태 지속의 뜻으로 쓰였다. 즉 ‘더 머무르지 못했다’는 뜻이며, 부정 서술어 ‘못하다’는 타의 부정의 의미이다. ‘머무르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부정 서술어 ‘못하다’와 공기한다. ‘머무르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사어가 쓰여서 그 기간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데, 시간 부사어 ‘오래’와도 공기할 수 있다.

(32) 난 갈 수 었다. (나는 갈 수 없다.)

(32)에서 ‘엇다’는 ‘존재·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불능’의 의미로 쓰였고 화자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중앙어와 같다. ‘엇다’의 일차 부정 대상은 동사 ‘가다’이며, ‘-르 수’와 공기하는 선행 요소는 [+동작]이어야 한다. 여기서 ‘불능’은 “갈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원인이 외부에 있음을 나타내는 부정소 ‘못’의 의미인 ‘타의 부정’과 같다. ‘엇다’ 대신 ‘잇다’를 대입하면 긍정문이 되는데, 이 때의 ‘잇다’는 “갈 수 있는 상태”인 ‘능력’을 뜻한다.

‘엇다’의 통사 기능을 좀더 살펴보겠다.

(33) 가. 가의 집의 었다. (그 아이 집에 없다.)

나. 가의 집의 었지 아니하다/ *못하다.

(그 아이 집에 없지 않다/ *못하다.)

다. *가의 집의 아니/못 었다.(*그 아이 집에 안/못 없다.)

(33가)에서 보면 ‘엇다’ 자체가 부정 어휘임을 알 수 있다. (33나)는 이중 부정으로 긍정의 ‘잇다’로 대체하면 자연스럽다. 여기서 ‘엇다’가 존재의 부정으로 쓰인 경우 ‘존재’는 3인칭일 때 주어의 의지에 달려 있어서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가 쓰였다. (33다)가 비문법적인 것은 ‘엇다’에 이미 부정소가 내포되어 있어서 부정소의 겹침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며, ‘엇다’가 상태 동사여서 부정소 ‘못’이 동작 동사와만 통합한다는 통사상의 제약 때문이기도 하

다. 부정소 ‘못’이 동작 동사와만 공기함은 앞의 2.1.2에서 보았다. 부정소 ‘아니’와 공기할 수 없는 것은 ‘엇다’가 이미 존재 부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주어의 의지가 개입된 ‘의지 부정·단순 부정’은 쓸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있다’나 ‘엇다’의 부정문인 경우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가 선택되고 ‘못하다’는 쓰이지 못한다. 이러한 통사 기능이 같아서 대립적으로 성립함을 알 수 있다.

(34) 가. 나가 아니 갈 수야 엇수다. (내가 안 갈 수야 없습니다.)

나. 가난한 사람 못할 일 엇다. (가난한 사람 못할 일 없다.)

(34)처럼 부정소와 부정 어휘에 의한 이중 부정문이 성립하는 것으로 봐서 ‘엇다’는 부정 어휘임을 알 수 있다(2.3 참조).

다음은 ‘엇다’와 ‘있다’의 문종결에서의 통사 기능을 살펴보겠다.

(35) 가. 는 집의 {있/ *엇}어라. (너는 집에 있어라/ *없어라.)

나. 나영 집의 {있/ *엇}게. (나하고 집에 있자/ *없자.)

다. 가의 집의 {이지/어시}냐? (그 아이 집에 있느냐/없느냐?)

라. 가의 집의 {있/엇}다. (그 아이 집에 있다/없다.)

(35)에서 보면 ‘있다’는 모든 종결형에서 성립하는데, ‘엇다’는 명령·청유문에서는 성립하지 못한다. 따라서 ‘있다’는 동사 특성이 강하고, ‘엇다’에는 형용사의 특성이 있다.

(36) 가. 우리 이디 있지 말게. (우리 여기 있지 말자.)

나. 느 이디 있지 말라. (너 여기 있지 말라.)

(35가, 나)에서 ‘엇다’의 명령·청유문이 (36)과 같이 ‘있지 말-’로 쓰일 때에는 문장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36)은 존재 동사 ‘있다’에 ‘행위 금지’의 부정 어휘 ‘말다’가 통합되어서 “존재하는 상태를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가

명령·청유문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처럼 부정 어휘 ‘엇다’도 이와 유사하다. 여기서 ‘잊지 말라(자)’는 ‘없다’의 의미보다는 ‘없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엇다’는 ‘부정소+긍정 어휘’로 분석할 수 있다. (36)을 제시한 것은 ‘잇다’가 ‘소유·존재’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그에 대한 부정어로 ‘엇다’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37) 가. 난 무스운 거 흐나도 엇다. (나는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다.)

나. 벨로 뜨난 말이 엇다. (별로 다른 말이 없다.)

다. 우린 아무 췌도 엇수다. (우리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37)은 ‘엇다’가 부정 극어(흐나도, 벨로, 아무)와 공기함을 보여 주는 예문이다. 부정소와 부정 어휘는 부정 극어와 공기한다는 통사 기능이 성립함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엇다’는 부정 어휘임을 알 수 있다.

(38) 들은 옛말{도/은/만} {엇수다/잇수다.}

(38)은 보조사 ‘도/은/만’과 ‘엇다’가 공기함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도 ‘잇다’와 ‘엇다’의 통사 기능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잇다’의 ‘소유·존재’의 대상은 선행 명사이며, ‘엇다’의 부정 대상도 역시 선행 명사이다.

3.2.2 ‘엇다’의 담화 기능

다음은 ‘엇다’의 담화 기능을 살펴보겠다.

(39=27) 가. 집의 사름이 엇다.

나. 이디 다른 반찬이 엇다.

다. 난 아떨이 엇다.

라. 난 무스운 거 엇다.

마. 난 의탁홀 디가 엇다.

‘엇다’의 부정 대상은 표면 구조에 발화된 내용에 한정된다. (39가)는 “사람은 집에서 산다”를 함축하고 있어서 “집에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집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뜻이기도 해서 ‘엇다’는 ‘존재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다(집의 사람의 엇다.) 따라서 청자의 기대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뜻도 된다. (39나)는 ‘반찬’이라는 물질 명사가 선행하므로 ‘엇다’는 존재의 부정을 나타낸다. 즉 이 곳(먹는 음식이 놓여 있는 장소)에는 지금 화자 앞에 놓여 있는 반찬 외에 다른 종류의 반찬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과, “그냥 주어진 대로 먹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39다)는 “나에게는 아들이 없다”로 존재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나는 아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無所有’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아들이 없어서 외롭거나,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9라)는 ‘무섭다’라는 감정의 부정을 의미한다. 무서운 대상이 없어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답성이 있다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마음 속에 내재해 있는 무서움증(그 대상이 사람이든 사물이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과, “나는 무서움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뜻도 된다. (39마)는 처소를 뜻하는 ‘곳’이 발화되었기 때문에 ‘엇다’는 존재의 부정임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내가 의지할 대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와, “의지할 만한 가족이 없는 외로운 처지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39다~마)에서 ‘소유’는 화용상의 의미이다.

(39)에서 보듯이 ‘엇다’를 ‘소유·존재’의 부정으로 분명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이것은 ‘소유’와 ‘존재’가 모두 ‘상태 지속’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유’의 부정인 경우 소유주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존재의 부정인 경우 “무엇인가가 장소(처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 가. 아바님, 무신 일이 잇수과? (아버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 엇다, 아녀.

(41) 가. 가의 집이 이시냐? (그 아이 집에 있느냐?)

나. 엇수다, 아니우다.

(40가)에서 ‘잇다’는 ‘사건의 존재’를 의미한다.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라는 뜻이다. (40나)에서 ‘엇다’는 ‘어떤 사건도 없다’는 사건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즉 “아무 일도 일어나지(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 말하기 싫을 때의 응답이기도 하다. 긍정 어휘 ‘잇다’에 대한 부정 응답으로 부정 어휘 ‘엇다’가 쓰이고 있다. 여기서 ‘엇다’와 ‘아니’는 부정 응답에서 교체 가능한 어휘임을 알 수 있다.

(41가)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주어가 집에 있느냐?’라는 존재 여부를 묻고 있다. (41나)에서 ‘엇수다’라는 응답은 ‘존재’에 대한 부정이다. 중앙어인 경우 부정 응답으로 ‘아니’가 쉽게 쓰이지만, 제주 방언에서는 ‘엇다’가 친근하게 쓰인다. 물론 ‘아니’가 발화되기도 한다(부정 응답에 대해서는 4장 참조).

(40), (41)에서 알 수 있듯이 ‘잇다’는 ‘존재 상태’를 의미하며 존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명사가 선행 요소가 된다. 응답으로 쓰인 ‘엇다’는 묻고 있는 ‘존재 상태’를 부정하고 있다. 중앙어에서는 ‘있느냐?’에 대한 부정 응답으로 ‘아니’, ‘없다’가 쓰인다. 제주 방언도 ‘아니’·‘엇다’가 쓰이지만 ‘엇다’의 쓰임이 보편적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긍정 어휘 ‘잇다’와 부정 어휘 ‘엇다’는 서로 대립적으로 성립하며 그 의미는 ‘存在·所有 : 不在·無’이다. 이는 중앙어와 같으며 차이점이라면 ‘엇다’는 부정 응답에서 ‘아니’ 자리에도 쓰인다는 점이다. ‘잇다’는 ‘소유’·‘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며, ‘소유주’와 ‘처소’라는 대상이 있음도 알 수 있다. ‘엇다’는 ‘부정소+긍정 어휘’로 분석할 수 있다.

3.3. ‘아니다’의 부정 표현

부정 어휘 ‘아니다’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 앞서 이에 대응되는 ‘이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다’는 ‘서술격조사, 지정사, 계사, 형용사’ 등으로 불리며, 이렇게 異稱이 있다는 것은 여러 문법 기능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이다’를 서술격조사로 보는 견해에서는 ‘이다’는 명사와 통합하므로 ‘이다’의 부

정어인 '아니다'는 명사를 부정하는 '명사 부정'(김동식 1980, 임홍빈 1973에서는 명사문 부정이라 함)이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다'를 지정사라 하고, 그 부정인 '아니다'를 지정사 부정이라고 부르겠다.

공정문에 쓰이는 '이다'의 대립짝에는 '아니다'가 있다. '아니다'는 부정소 '아니'와 '이다'로 형태 분석할 수 있다. '아니다'는 엄밀히 말하면 '엇다'나 '모르다', '말다'처럼 단일 부정 어휘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미 대부분의 토박이 화자들은 하나의 단일어처럼 인식하고 있으며, '이다'의 부정짝이 가능하므로,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제주 방언에서 '아니다' 형태는 잘 쓰이지 않으며 '아녀'²⁹⁾ 형태가 빈번하게 쓰인다.

3.3.1 '아니다'의 의미·통사 기능

우선 '아니다'는 단일어처럼 인식되어서 쓰이지만 '아니+이다'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니+이다'→'아니다'로 설정된다. 이 때 부정소 '아니'는 지정사 '이다' 앞에 놓여서 단형 부정문처럼 쓰이고 있다. 즉 '이다'는 의존성이 있어서 선행 요소와 결합해서 서술어가 된다. 따라서 이런 '이다'가 부정 부사인 '아니'와 결합해서 서술어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앞에서 논의했던 부정소 '아니'와 지정사 부정의 '아니'는 동일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부정소의 대표적인 형태를 '아니'로 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니다'를 형태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인정한다면 부정소 '아니'는 '명사+이다' 앞에 놓여야 하는데 이는 비문법이 된다. 따라서 '아니+이다'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다'의 부정이 '아니다'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후행적 환경인 통사 기능이 유사해야 한다. 그러면 먼저 '아니다'의 통사 기능을 살펴보면서 '이다'의 통사

29) 지정사 부정의 '아녀'는 종결어미 '-어'와 축약되어서 '아니+이어'→'아녀'가 되었는데, 중앙어에서는 '아냐'로 쓰인다. 실제 발화에서는 '아니여', '아녀', '아니라', '아이러', '아니'가 쓰이며 '아니다'는 잘 안 쓰인다. 물론 표준어 교육을 덜 받은 계층에만 해당된다. 논의 전개상 형태를 통일하기 위하여 '아니다'를 기본형으로 삼는다. '아녀'의 형태가 강원 방언, 경기 방언, 전라 방언, 충북 방언에도 쓰이는 것으로 보아서 중세 국어에 보이는 '아냐/아녀'의 형태가 아직까지도 각 방언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과 비교해 보고, 그 대립쌍이 성립됨을 논의하겠다.

(42) 가. 이 사람은 그자 사람이 아니여/아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 우리 어명이 아니여. (우리 어머니가 아니다.)

다. 이던 밧이 아니여. (여기는 밧이 아니다.)

라. 야원 학생이 아니여. (이 아이는 학생이 아니다.)

(42)에서 ‘아니다’의 선행 조건을 보면 모두가 명사이다. 여기서 ‘아니다’는 선행 명사를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소 ‘아니’가 그와 통합하는 지정사 ‘이다’를 한정, 부정하면 ‘이다’가 부정이 되지만 결국은 ‘이다’의 지정 대상인 선행 요소를 부정하게 된다. ‘이다’를 지정사로 보면 부정소 ‘아니’는 동사 앞에 놓이는 단형 부정문이 된다.

* (43) 가. 그건 아니 그짓말이여.

나. 이건 아니 술이여.

다. 이건 아니 미신이여.

(43)이 비문법인 것은, 부정소 ‘아니’는 지정사 ‘이다’와 통합되어야지 명사구(서술어)에 선행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는 ‘하다’ 동사인 경우 부정소 ‘아니’가 명사 어간과 ‘하다’ 사이에 개입하는 것과 같다(공부 아니 한다). 즉 부정문은 ‘명사+아니+이다’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명사와 지정사 ‘이다’가 통사적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긍정문은 ‘명사+이다’의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동사에 선행하는 부정소 ‘아니’와 ‘이다’에 선행하는 부정소 ‘아니’는 동일한 부정소라고 할 수 있다.

부정소 ‘아니’는 다음절어 앞에는 올 수 없는 통사 기능이 있는데(2.1.1 참조), “그는 사람이다.”인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들려면 부정소 ‘아니’가 동사 앞에 선행해야 한다는 원리에 따라 “*그는 아니 사람이다/ 그는 사람이 아니다.”가 된다. 따라서 ‘사람’인 명사와 지정사 ‘이다’는 분리 가능하다. 즉 ‘아니

다'는 '아니+이다'로 분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니 사람이다'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니다'는 '이다'를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소 '아니'가 '이다'와 통합되어서 부정 서술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아니'는 부정 부사인 '아니'와 동일한 형태이며 그 통합 조건이 '이다'일 뿐이다.

지정사 '이다'는 선행 명사와 통합해서 서술어의 기능을 갖지만 '아니다'는 자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니다'는 자립성이 있으며 독립된 단어로 인식되면서 서술어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42)를 긍정문으로 만들어서 통사 기능의 유사성을 알아보겠다.

(44) 가. 이 사람은 그자 사람이여.

나. 우리 어명이여.

다. 이딘 빛이여.

라. 야원 흑생이여.

(44)에서 서술어는 '명사+이다'인데 '이다'는 선행 명사를 지정하고 있으며, (42)와 비교해 보면 '아니다'처럼 선행 환경의 명사라는 통사 기능이 같고 의미는 '긍정 : 부정'이다. 긍정문인 경우 '이다'는 바로 명사에 연결되고, 부정문인 경우 명사와 '아니다' 사이에 보격조사 '이'가 삽입된다. 이것은 장형 부정문을 만들 때 출현하는 보문소 '-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부정 서술어 '아니다'가 오면 보격조사 '이'가 선택된다.

따라서 지정사 부정인 '아니다'는 지정사 '이다'와 대립짝이 된다. '이다'는 선행 요소인 명사와 결합해서 서술어가 되며 선행 명사를 지정해 준다. '아니다'는 선행 명사인 특정 명사를 확인, 강조하는 부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45) 가. 그건 그것말 아니여.

나. 이건 미신 아니여.

다. 玉體創癥이 혼두 곧 아니시니. (용가 114)

(45)처럼 부정문일 때는 보격조사 ‘이’가 수의적으로 생략되기도 한다. 중앙어에서나 제주 방언에서 격조사의 생략이 자유롭다. 이것은 보문소 ‘-지’의 수의적 탈락과도 유사하다. 부정 서술어가 쓰일 때는 통사 기능상 이와 호응하는 문법 요소가 통합됨을 알 수 있다.

(45다)에서 보듯이 중세 국어에서도 ‘아니다’ 앞에서 보격조사 ‘이’가 생략된다. 보격조사 ‘이’의 생략은 중세 국어에서부터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46) 가 *그건 그것말이{어라, 아니어라.}

나 *우리 어명이{게, 아니게.}

다. 가원 사름이{여, 아니여.}

라. 이견 미신이{냐, 아니냐?}

(46)을 보면 지정사 ‘이다’와 부정 서술어 ‘아니다’는 평서문과 의문문에서는 성립하는데,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성립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명령문과 청유문은 동작 동사가 와야 하는데, ‘이다’와 ‘아니다’의 선행 요소가 [-동작]이기 때문에 평서문과 의문문에서만 성립함을 알 수 있다. 굳이 그 성격을 논하자면 ‘이다’와 ‘아니다’는 형용사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다’와 ‘아니다’의 통사 특성을 좀더 살펴보기 위해서 각각을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47) 가. 그갓 사름이 아니지 아니하다/ *못하다.

나. 그건 그것말이 아니지 아니하다/ *못하다.

다. 우리 어명이 아니지 아니하다/ *못하다

(48) 가. 그건 그것말이지 아니하다/ *못하다.

나. 이견 미신이지 아니하다/ *못하다.

(47), (48)에서 부정 서술어 ‘못하다’가 쓰여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가 쓰일 때에는 문장이 성립하긴 하지만 실제 쓰이지는 않는

다. (47)은 ‘아니다’의 부정문인데 이중 부정문처럼 쓰이고 있지만 긍정의 ‘이다’로 치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여찬영(1975: 169)에서는 “계사 ‘이다’가 부정소 ‘아니’의 ‘ㅣ’의 영향을 받아서 어간 ‘이-’가 탈락되고 어미 ‘-다’만 남아서 ‘아니다’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부정소는 ‘아니’만 가능하고 ‘몰’은 선택될 수 없다고 보았다. 2.1.2에서도 논의했듯이 부정소 ‘못’의 선행 요소가 [+동작]의 의미 자질이 있어야 하므로 지정사와 공기하지 못하는 것 같다. 즉 ‘이다’가 지정을 의미하므로 타의 부정인 ‘못’과는 공기할 수 없는 것이다.

(48)에서 ‘-지 아니하다’ 대신에 ‘아니다’를 대입하면 문장이 자연스러우며, (48)을 ‘이다’의 장형 부정문으로 처리하여 여기서도 단형·장형 부정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논자(임홍빈 1987)도 있지만, 실제 발화시에 (48)은 발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다’의 대립쌍으로 ‘아니다’를 설정할 수 있으며, 지정사 부정에서 단형·장형 부정문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김동식(1980: 84)에서도 “‘아니’는 원래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명사문에서는 ‘이-’가 나중에 도입되는 것이므로 단형·장형 부정문의 구별은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이다’는 앞에서 논의한 ‘말다’나 ‘엇다’처럼 고유 의미는 없지만, 선행 명사를 긍정, 단정해 주는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부정 어휘인 ‘아니다’는 선행 명사를 부정, 단정하며 화자의 분명한 태도(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연결어미와 함께 사용된 문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49) 가. 그 사람은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여.

나. 난 생인(生人)이 아니고 귀신이여.

다. 느 아니민 나 일 안햏켜. (네가 아니면 나는 일 안햏다.)

(49가)는 ‘사위’를 부정하고 있다. 즉 ‘사위’라는 존재를 부정하며 그가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다. (49나)는 ‘생인’을 부정하고 있다. 즉 “나는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귀신이다”라는 뜻이다. (49다)에서 “네가 아니면 내가 왜 일을 하겠느냐? 즉 너 때문에 일을 한다.”,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도 하

지 않겠다 네가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선어말어미 ‘-(으)크-’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며 중양어 ‘-겠-’에 해당된다.

(49)에서 ‘아니+라/고/민’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니’와 연결어미가 통합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니+이다’로 형태 분석하는 타당성을 얻은 셈이다. (49)에서 ‘아니다’는 선행절을 부정하며 후행절을 긍정, 단정하고 있다. 여기서도 ‘아니다’의 선행 요소는 ‘명사’임을 알 수 있다.

(50) 아닌게아니라, 밤중의 질 일런 왔수다.

(아닌게아니라, 밤중에 길을 잃어서 왔습니다)

(50)은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 길을 잘못들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의 응답일 수 있다. 이 문장은 ‘아니다’의 중복 표현으로 긍정의 의미인 ‘그렇다’라는 뜻이며 후행절의 내용을 인정, 강조하고 있다. ‘아닌게아니라’는 앞에 말한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과연 그렇다’, ‘사실은’이라는 긍정의 뜻을 나타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상에서 보듯이 ‘이다’의 선행 요소가 명사구이므로 그 부정어인 ‘아니다’의 선행 요소도 역시 명사구이며 [+상태]라는 의미 자질을 둘 다 갖고 있다. 보통 부정소는 피수식어 앞에 놓이므로 ‘아니+이다’가 되어야만 조건이 성립되며, 이를 분석하지 않고 ‘아니다’를 한 단어로 본다면 ““그것은 아니 거짓말이다.”처럼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다’ 동사 ‘걱정하다’가 부정문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소 ‘아니’가 ‘걱정’과 ‘하다’ 사이에 놓여서 동사 ‘하다’를 한정, 부정하는 이치와 같다. 지정사 ‘이다’도 선행 요소와 통합해서 서술어가 되지만, 부정문이 되려면 선행 요소와 ‘이다’ 사이에 부정소 ‘아니’가 놓여서 ‘이다’를 한정, 부정해야 한다. 따라서 ‘아니다’는 ‘아니+이다’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때의 ‘아니’는 단형·장형 부정문에 쓰이는 부정소와 동일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러 특성에서 제주 방언과 중양어가 별 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3.2 ‘아니다’의 담화 기능

다음은 ‘아니다’의 담화론적 기능을 알아보려고 한다.

(51=42)가. 이 사람은 그깟 사람이 아니여.

나. 우리 어머님이 아니여.

다. 이딴 뱃이 아니여.

라. 야원 학생이 아니여.

부정 서술어 ‘아니다’의 부정 대상이 초점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51가)는 특별한 사람임을 함축하고 있다. ‘그 사람의 언행, 업적’ 등 그에 관한 정보를 얻어서 내리는 판단이어서 화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된다. 또 하나는 “그 삶은 어머니?”라고 질문했을 때의 대답일 수도 있어서 그깟 사람(보통 사람)임을 부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은 보통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닌 특별한 사람이다. 또한 ‘보통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존재 부정으로 볼 수 있다. (51나)는 “이 분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우리 어머니이다.”라는 뜻이며, ‘우리 어머님’을 부정하고 있다. 역시 화자의 확신이 있어서 명제를 단정하고 있다. “이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어머니’라는 대상의 존재를 부정하며, “다른 사람이 우리 어머니이다”라는 존재 대상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 (51다)는 “누군가가 여기가 밭이다”라고 발화했을 때의 부정 응답이기도 하고, “밭이긴 하지만 화자가 생각하기에 좋은 밭의 개념이 없을 때”의 발화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니여’에는 화자의 단정이 들어 있다. 이는 또한 과거에는 밭이었던 곳인데 지금은 밭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누군가 땅이 필요한데 ‘밭’이면 안 되고, 지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타당성을 용인하는 화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는 ‘뱃’이 부정되고 있다. (51라)에서 ‘학생’이 부정되면 이 아이는 아직 학생이 아니라는 뜻과, 학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야원’이 부정되면 단순히 ‘이 아이는’ 학생의 신분이 아니라는 뜻이다. 역시 화자의 단정이 반영되어 있다.

‘아니다’는 실제 발화된 문장을 부정하며, 화자의 주·객관적인 의지, 확신에 대한 단정적인 문장이 된다. 즉 긍정의 선행구를 부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존재’라는 것은 앞에서 논의했던 ‘있다’의 존재 부정과는 좀 다르다. 지정사 부정에서 ‘아니다’는 화자의 대상에 대한 확신과 같은 분명한 태도를 나타내서 청자의 반론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긍정의 ‘있다’가 화자의 확신(의지), 강조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아니다’는 부정을 뜻하는 화자의 확신이나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있다’와 ‘아니다’는 앞에서 논의된 부정 어휘처럼 고유한 기본 의미는 없지만, 긍정과 부정이라는 서술어의 기능을 갖고 있다. ‘있다’는 주어진 명제를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하며, ‘아니다’는 주어진 명제를 지정하는 것을 부정한다. 따라서 ‘아니다’는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추상적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존재 부정’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4. ‘모르다’의 부정 표현

흔히 ‘모르다·알다·생각하다·기억하다’ 등을 인지 동사라 부른다. “인간은 인식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알게 되는데 이러한 인식 활동을 표현하는 동사”가 인지 동사이다(이현희 1994 : 465). 인식 활동의 대상은 “구체적인 사물뿐만 아니라 어떤 사태(사건이나 과정, 상태 등)와 사실, 그리고 명제까지도 포함되는 특징”(우형식 1991 : 414)이다. ‘알다’가 쓰인 문장은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어떤 사태 발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모르다’를 ‘알다’의 부정 어휘로 대립쌍을 설정하면 이와 같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알다’의 부정어가 ‘모르다’라 할 수 있는 것은 ‘알다’는 ‘정보’를 가질 때이고, ‘모르다’는 ‘정보의 부재’일 때이다.

‘모르다’는 부정소에 의한 부정은 아니지만, ‘있다’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써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 어휘이다. 긍정 어휘 ‘알다’가 부정소 ‘못’과 공기한 단형 부정문은 성립하지 못한다. 이는 ‘모르다’라는 대체 어휘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임홍빈(1987 : 77)에서는 부정문 성립 기준에서 ‘모르다’와 ‘있다’도 “부정 극성을 띤 성분과 공기 관계를 보이는 요소”여서 통사적인

부정문과 함께 부정문으로 다루고 있다. 앞의 3.2에서 보았듯이 ‘엇다’와 마찬가지로 ‘모르다’도 ‘부정소+긍정 어휘’로 분석해서, ‘못+알다’, ‘알지 못하다’가 됨을 보고자 한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서 긍정 어휘 ‘알다’와 그에 대응되는 부정 어휘 ‘모르다’의 의미·통사·담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3.4.1 ‘모르다’의 의미·통사 기능

장경희(1984 : 18~20)에서는 “‘모르다’의 핵심 의미를 ‘정보를 가지지 않다’로, ‘알다’의 핵심 의미는 ‘정보를 가지다’, ‘지식을 가지다’, ‘안면이 있다’, ‘이해하다’ 등 문맥적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가 없는’ ‘모르다’의 통사 기능을 논의해 보겠다.

(52) 가. 난 질을 몰라. (나는 길을 몰라.)

나. 난 가의 몰르쿠다. (나는 그 아이 모르겠습니다.)

다. 는 그 일을 몰른다. (너는 그 일을 모른다.)

(52)에서 ‘몰르다’는 선행 명사구를 부정하고 있다. 즉 목적어가 부정 대상이 된다. ‘모르다’와 ‘알다’의 대립쌍이 성립함을 알아 보기 위해서 ‘몰르다’를 ‘알다’로 대체하면 (53)과 같다.

(53) 가. 난 질을 안다.

나. 난 가의(를) 안다.

다. 는 그 일을 안다.

(53)의 부정으로 통사적인 부정문을 쓰지 않는 것은 (52)처럼 대체할 수 있는 부정 어휘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53)에서 ‘알다’는 인식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정보는 화자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다. (52)에서 ‘몰르다’와 마찬가지로 ‘알다’도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로 쓰이고 있다.

(54) 가. 난 질을 {알/모를} 수 있다.

나. 난 가의를 {알/모를} 수 있다.

다. 는 그 일을 {알/모를} 수 있다.

(53)에서 '알다'에는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안다는 확신”의 의미가 들어 있는데, (54)에서 '알 수 있다'가 쓰인 문장은 '확신'보다는 '가능성'의 의미가 있다. 즉 대상(목적어)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일 수도 있다. '모르다'·'알다'라는 인지 동사에 '-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결합되었다. 그래서 '-르 수 있는' 가능성·방법·능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모를 수 있다'가 쓰인 문장은 '모를 가능성'이 있다는 여유가 있다. 여기서 '알다/몰르다'+'-르 수 있다' 사이에는 다양한 정보가 존재한다.

그런데 (53)과 (54)의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니다. '모르다'·'알다'라는 단정, 확신과 '-르 수 있다'에 대한 가능성과 '-르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즉 '-르 수 있-'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수많은 점이 놓여 있으며, 점과 점사이의 간격 만큼 정보의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다음은 (53)을 '부정소+알다'의 형식을 이용한 단형·장형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았다.

* (55) 가. 난 질을 {아니/못} 안다.

나. 난 가의를 {아니/못} 안다.

다. 는 그 일을 {아니/못} 안다.

(56) 가. 난 질을 알지 못한다/ *아니한다.

나. 난 가의를 알지 못한다/ *아니한다.

다. 는 그 일을 알지 못한다/ *아니한다.

단형 부정문 (55)는 성립하지 않으며, 장형 부정문 (56)은 성립한다. 부정 서술어 '아니한다'와는 공기하지 않고 부정 서술어 '못한다'와는 공기하고 있다.

이것은 ‘알다’라는 인지 동사의 인식 활동이 새로운 정보를 얻을 경험이 없는 경우 ‘타의 부정’의 ‘못하다’가 쓰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알 수 있는 정보 제공은 타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서 부정 서술어 ‘못하다’가 선택되었다고 생각한다. (55)에서 ‘못+알다’ 대신에 ‘모르다’가 자연스럽게 실현되며, (56)에서 ‘-지 못하다’ 대신 ‘모르다’가 쓰이면 더 자연스럽다. ‘모르다’를 ‘알지 못하다’로 대체해도 의미상의 변화가 없으므로 ‘알다’의 대립쌍으로 ‘모르다’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모르다’는 ‘부정소+긍정 어휘’로 재분석(‘못+알다’로 재분석된다.)할 수 있다. 통사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장형 부정문을 만들어보기는 했지만, 실제 발화시에 제주 방언에서는 ‘몰르다’가 더 자연스럽게 쓰인다. 그런데 (56)처럼 장형 부정문을 사용할 때는 화자의 조심스런 태도가 반영된다. 이때에는 ‘몰르다’라고 단정하는 것보다 알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화자가 시인하기를 거부하거나 청자의 판단을 보류하려는 화자의 심리 상태가 반영된다.

(57) 는 알지 못ㅎ명³⁰ 무사 경 험시니?

(너는 알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57)은 연결어미와 통합된 경우 ‘몰르다’보다(“는 몰르명 무사 경 험시냐?”) ‘알지 못하다’ 구문이 자연스럽다. 여기서는 청자가 ‘정보를 가지지 못함’을 당연시하고 있어서 후행절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모르다’를 쓸 경우에는 화자는 청자의 ‘정보 부재’를 단정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다’를 쓸 경우에는 청자의 ‘정보 부재’ 정도가 약하게 들린다. ‘모르다’와 ‘알지 못하다’의 의미 차이는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화 상황에 따라, 화자·청자의 감정에 따라 그 정도를 강·약으로 나타낼 수 있다.

(58) 난 그걸 알지 {아니ㅎ켜/못ㅎ켜.}

(58)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으)크’가 쓰여서 화자 자신이

30) ‘못ㅎ+명’에서 제주 방언 ‘-명’은 중앙어 연결어미 ‘-면서’에 해당한다.

의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거나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뜻한다. 이 때는 부정소 ‘아니’와 ‘못’의 의미인 ‘단순 부정’과 ‘타의 부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가 단순 부정의 의미일 때는 (56)처럼 비문법적인데, (58)처럼 의지 부정의 의미로 쓰일 때는 문법적임을 알 수 있다.

(59) 난 이 책 몰르지 아니한다. (나는 이 책 모르지 않는다.)

(59)는 이중 부정문인데 ‘모르다’가 부정 서술어와 공기하는 것으로 봐서 ‘몰르다’는 부정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 ‘알다’의 부정 표현으로 ‘아디 못흐-’와 ‘못 알-’이 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정소 ‘아니’에 의한 부정문도 나타난다.

(60) 가. 오늬날 이 뜨들 못 아스불리로다. (석상 13 : 43)

나. 또 일줍 서럭 아디 못흐노니. (노언 上 43)

다. 아디 아니타 흐시며. (월석 14 : 71)

라. 어딘 사르물 플라 보아. (석상 11 : 33)

(60)에서 보듯이 류광식(1990 : 73)에 의하면 “‘모르-’(不知)와 ‘못 알-’(不能知)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즉 15세기에는 두 유형이 공존했었는데, 점차 ‘못+알’이 갖고 있는 능력 부정의 의미 곧 ‘不能’이라는 의미가 약화되어 ‘모르-’가 ‘못+알-’을 대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모르다’에는 ‘못+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타의 부정인 ‘못하다’만이 선택되며 ‘부정소(못)+긍정 어휘(알-’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세 국어에서 이미 두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중양어에까지 이어져 왔으며, 제주 방언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모르다’에는 ‘不知’와 ‘不能知’의 의미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다’의 부정형으로 장형 부정문 ‘아디 못-’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세 국어의 통사 특성인 (60가, 다)가 제주 방언과 중양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다.

(61) 가. 난 질을 몰른다.

나. *난 질을 {아니/못} 몰른다.

다. 난 질을 몰르지 안한다/ *못한다.

라. 난 질을 안다.

(61)은 '모르다'의 부정문을 만들어 본 것이다. (61가)를 부정하면 (61다)가 되는데, 일상 회화에서는 좀더 짧은 문장인 (61라)가 빈번히 쓰인다. '모르다'의 부정 표현으로는 장형 부정문만 성립한다. (61다)와 같이 이중 부정문도 긍정의 '알다'로 대체되어서 '모르다'의 긍정 어휘로는 '알다'임을 알 수 있다. (61나)가 비문법적인 것은 '모르다'에 부정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소의 겹침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정소 '아니'는 인지 동사 '모르다' 앞에 올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61다)가 이중 부정문으로 성립하는 것은 화자가 이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모르다'에 이미 不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타으 부정의 부정 서술어 '못한다'와 공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문종결형에서의 통사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62) 가. *난 그 맛을 이름을 {몰르게/알게, 몰라라/알아라.}

나. 는 그 맛을 이름을 {몰른다/안다, 몰르크냐/알아지크냐?}

다. 가의 이름을 들어도 {알지 말게/알지 말라.}

(62)에서 '알다'와 '모르다'의 후행 환경을 보면 청유, 명령 등의 서법이 올 수 없고, 평서·의문문으로만 실현됨을 보여 준다. (62가)의 명령·청유형을 (62다)처럼 치환하면 문장이 성립한다. 즉 청유의 '몰르게'를 '알지 말게(자)'로 바꾸고, 명령의 '몰라라'를 '알지 말라'로 바꾸면 문장이 성립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알려고 하지 말-'의 뜻으로 쓰일 때이다. 단순히 인식되는 대상이 아니고, 주어가 의도적으로 알려고 했을 때 발화되는 문장이다. 여기서도 명령·

청유문에서는 '말다'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인식 활동과 관계 있는 인지 동사이기 때문이다. 이 인지 동사는 [+과정]의 의미 자질을 갖고 있어서 '말다'와 공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앞의 보기와 다른 기능을 알아보겠다.

(63) 가난 을 줄 모르는구나.

(63)에서 '모르다'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주어의 숨겨진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체념, 원망의 문맥 의미가 있다. 이 때의 '모르다'는 '알다'의 부정어는 아니다.

긍정 어휘 '있다'·'알다'의 부정은, 부정소 개입 유형으로는 장형 부정문만이 성립함을 보았다. 이것은 이에 대응하는 부정 어휘 '없다'와 '모르다'가 '부정소+긍정 어휘'의 복합체임을 증명해 준다.

3.4.2 '모르다'의 담화 기능

다음은 '모르다'의 담화론적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64=52) 가. 난 질을 몰라.

나. 난 가의 몰르쿠다.

다. 는 그 일을 몰른다.

(64)에서 '모르다'는 청자가 원하는 '새로운 정보'를 화자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경험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공통적인 전제는 "누군가 무엇을 알고 있다"이다. 여기서 모르는 부정 대상은 초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4가)에서 '모르는' 대상이 '나'이면 "나만 질을 모르고 다른 사람은 알고 있다"는 뜻이며(난 질을 몰라.), '질(길)'에 초점이 놓이면 '길'과 관련된 모든 사태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뜻이다.(난 질을 몰라.) '길' 말고 다른 정보는 알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한 화자는 청자에게 자세히 답변하기 싫어서

모르는 체하거나, 시인하는 것을 거부할 때의 발화일 수도 있다. (64나)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안면·성격·직업’ 등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차 모르는 부정 대상이 ‘가의’이면, ‘가의’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심리 상태까지도 포함된다. 물론 ‘그 아이’와 관계된 질문 내용에 따라서 정보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선어말어미 ‘-(으)크’가 있어서 화자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여기서도 화자의 알리고 싶지 않은, 응답하기 싫은 거절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화자의 무관심한 응답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64가, 나)에서 ‘모르다’에는 ‘정보의 부재’ 외에도 화자의 ‘거절·거부’의 지가 포함되어 있다.

(64다)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를 함의하는데, (64가, 나)와는 좀 다르다. 화자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청자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정보의 부재’임이 드러난다. 그래서 청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청자의 정보가 낱고 보잘것 없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그리고 ‘너는 모른다’라는 화자의 의지와 단정적인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 즉 청자의 의사를 거부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모르다’의 부정 대상은 선행 명사구이며, 화자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정말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다. 어쨌든 “그 일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 ‘-에 대해서(관해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식 활동이다. 그리고 목적어 ‘질을, 가의, 그 일’ 등에서 목적격조사 ‘을/를’은 ‘-에 대해서’로 대치할 수 있다. 여기서 ‘몰르다’에는 단순 부정의 의미나, 화자의 발화에 대한 배타성(거부), 체념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의문-응답’에서 ‘몰르다’와 부정 응답으로 쓰이는 ‘엇다’의 호응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65) 가. 가의 몰르크냐? (그 아이 모르겠느냐?)

나. 엇다/엇수다, 아녀/아니우다.

(66) 가. 아덜도 그건 알안 가서? (아들도 그건 알아서 갔느냐?)

나. 엇다/엇수다, 아녀/아니우다(몰르켜).

(67) 가. 무사계, 웃는 모양이 아는 모양인게.

나. 엇다/엇수다, 아녀/아니우다.

(68) 가. 우리 아시 잇는 디 알아지크라?

(우리 동생 잇는 곳을 알 수 있겠느냐?)

나. 엇다/엇수다, 아녀/아니우다(몰르켜).

(65가)는 “너는 그를 안다”는 긍정적 사실을 전제하고 청자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이다. 화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청자에게 확인시키거나 알려 주려는 발화이다. ‘모르겠느냐’는 부정 물음에 대한 부정 응답으로 ‘엇다’와 ‘아니다’가 발화되었다. 이 ‘엇다’도 “모르는 상태 즉 대상에 대한 부재”를 의미하며, 새로운 정보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 ‘엇다’·‘아니다’는 “나는 모르겠다.”는 뜻이다. (66가)는 “아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았느냐?”라는 뜻이다. 그 부정 응답인 (66나)에서 ‘엇다’·‘아녀’는 “아들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다”는 뜻과, “정말 몰랐다”는 의미로 쓰였다.

(67가)에서 ‘알다’는 숨겨진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67나)에서 그 정보를 부정하는 ‘엇다’가 쓰이고 있다. ‘게’는 제주 방언에 쓰이는 종결보조사이며, ‘모양인게’에서 ‘-니게’는 종결어미이다. (68가)에서 ‘아는’ 대상은 구체적인 장소이다.

(65~68)에서 부정 응답으로 ‘아니다’와 함께 ‘엇다’가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엇다’는 ‘모르는 상태’ 즉 ‘정보의 부재’로 쓰이고 있다. ‘모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순 부정으로 쓰인다. 그러나 ‘엇다’와 ‘아녀’가 공존하는 것으로 봐서 두 어휘의 의미가 달랐을 것이나 지금은 다 같이 부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아녀’보다 ‘엇다’ 응답일 때는 화자의 의지가 좀더 강하게 표현되지 않으나 생각해 본다.

(65~68)에서 보듯이 중앙어에서는 부정 응답으로 부정소 ‘아니’가 발화되는 자리에 제주 방언에서는 ‘엇다/엇수다’가 발화되고 있어서 부정소 ‘아니’와 ‘엇다’가 공존함을 알 수 있다. 3.2.에서 보았듯이 ‘엇다’는 ‘존재·소유’의 부정 어휘인데, 제주 방언에서는 부정 응답으로도 쓰이고 있다. 부정 응답으로 쓰일

때 ‘엇다’의 의미는, ‘-에 대해서 아느냐’라는 질문일 때 ‘모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엇다’는 ‘알다’의 부정 응답인 ‘모르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제주 방언 토박이 화자들의 의식 속에 ‘엇다’가 부정 어휘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모르다’의 의미를 ‘정보의 부재’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 때 부재의 의미는 부정소 ‘아니’·‘못’이 갖고 있는 단순 부정, 타의 부정의 의미 외에 알고 싶지 않은, 필요성이 없는 단순 부정의 의미이기도 하다. ‘알다’가 정보의 보유 상태라면 ‘모르다’는 정보의 부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알다’는 ‘부정소 + 긍정 어휘’로 해체 분석이 가능하다.

원래 ‘엇다’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부정어인데 ‘모르다’에 대한 부정 응답에도 쓰이는 것은 인지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추상적인 대상이라도 ‘모른다’는 의미를 사용할 수 있어서, ‘엇다’의 의미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부정 응답 ‘엇다’는 “소유·존재의 부정+추상적인 대상의 부정(인식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제주 방언에서 ‘모르다’가 쓰인 것은 단순히 부정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모르다’는 응답자가 정말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장된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실제 담화상에 쓰인 ‘모르다’는 ‘알지 못하는’ 상황만이 아니라, 화자의 소극적인 대응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서 ‘모르다’는 배타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 ‘모른다’는 발화는 액면 그대로의 ‘모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거나 알고 있는 상황을 일부러 모르는 체하거나, 시인하기를 거부하는 화용적인 면이 있다. 즉 ‘거부·거절’하는 화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IV. 부정 응답 표현

3.1에서는 명령·청유문에 쓰인 ‘말다’의 의미·통사·담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와 다른 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제주 방언에서는 의문·명령·청유문에 대한 부정 응답이 중앙어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1~22)에서 보듯이 대표적인 부정 응답어는 ‘아니다’이며 ‘아니다’ 자리에 ‘말다/마우다, 엇다/엇수다’가 쓰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제주 방언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어휘들은 [부정 응답]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어휘별 고유 의미 영역을 갖고 있다. 즉, ‘엇다’는 존재 동사 ‘잇다’의 부정 외에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로도 영역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말다’는 중앙어인 ‘싫다’ 자리에서 쓰여서 그 사용 범주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쓰이고 있는 부정 응답어인 ‘말다’, ‘엇다’, ‘아니다’의 통사·담화 기능에 대해서 논의해보겠다.

4.1. ‘의문-응답’에서의 부정어

판정 의문문이 발화된 명제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 중에서 하나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설명 의문문은 새로운 정보를 알려 주며 그 물음에 대한 여부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부정 응답이 실현되는 판정 의문문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질문자의 의도, 목적에 따라서 응답자의 반응 즉,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 화자(질문자)의 요구 사항을 잘 파악하고 답변해야 하며, 그 요구 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아니다’, ‘엇다’ 등이 실현되며, 판정 의문문인 경우에만 이런 응답이 가능하다. 아래 예문을 통해서 부정 응답어의 통사·담화 기능을 알아보겠다.

(1) 가. 밥 먹었수과? (밥 먹었습니까?)

나. 엇다/엇수다, 아니(아녀³¹)/아니우다, *말다/ *마우다.

(2) 가. 이디 오는 디 고생하시냐? (여기 오는 데 고생했느냐?)

나.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 *마우다.

(3) 가. 가의 안 놀암시냐? (그 아이 안 놀고 있느냐?)

나.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 *마우다.

(4) 가. 느 밥 못 먹어시냐? (너 밥 못 먹었느냐?)

나.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 *마우다.

각 물음에 대한 부정 응답으로 (나)가 쓰이고 있는데, ‘엇다’(無)와 ‘아니다’(否)는 쓰이지만 ‘말다’(止)는 쓰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말다’는 의문문의 부정 응답에서는 제외된다. 왜냐하면 ‘말다’는 명령·청유문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부정 응답인 경우에도 역시 명제는 명령·청유문이어야 한다는 통사상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정 의문문에서 화자는 객관적(중립적)인 태도를 지니며 화행에 대한 진위 여부(가부 판정)를 묻고 있다. 질문 내용을 긍정하면 ‘예’, 부정하면 ‘아니다’의 반응이 나온다. 각 (나)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응답 문장 모두가 생략되었다.

(1가)에서 청자의 행위 여부에 대한 화자의 질문에 ‘먹지 않았다’라는 답변으로 (1나)가 실현되었다. ‘엇다’는 존재 동사인데, 부정의 응답으로 사용된 것은 행위의 부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에서 ‘-아시-’(고생+흐+아시+냐)와 (4)에서 ‘-어시-’(먹+어시+냐)는 ‘완료 존속상’이며, (3)에서 ‘-암시-’(놀+암시+냐)는 ‘미완료 존속상’이다(문순덕 1999; 홍종립 1993; 현평효 1985 참조).

(1), (2)에서 존재 동사 ‘엇다’의 부정 대상은 추상적인 존재의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밥을 먹었다’, ‘고생했다’라는 긍정문에 시제 형태소가 결합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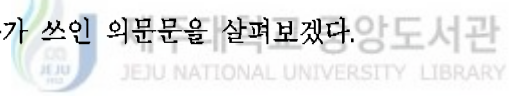
31) 각주 29)에서 설명했듯이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아니다’는 잘 안 쓰이고 ‘아니’와 ‘아니여’, ‘아녀’가 쓰이는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 문장부터는 ‘아니다’로 사용하겠다.

있어서 행동(동작)의 완료, 지속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행위의 존재로 본다면 그 부정의 의미도 가능하다 반면에 (3), (4)는 ‘부정 물음-부정 응답’의 쓰임인데 동사 ‘놀다, 오다’에 대한 부정 물음이며, 그 응답은 부정어가 쓰였지만 실제로는 긍정의 의미이다. 부정 물음이든 긍정 물음이든 부정 응답에는 ‘엇다’, ‘아니다’가 쓰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제주 방언 토박이 화자들은 부정 응답시 ‘엇다’나 ‘아니(아녀)’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수의적으로 선택, 사용하고 있다. 물론 젊은층에서는 보편적으로 ‘아니다’를 쓰지만 노인층으로 올라갈수록 ‘엇다’와 ‘아니’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1~4)에서 ‘엇다’와 ‘아니다’는 단순 부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제주 방언 토박이 화자들이 두 부정 어휘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은 ‘엇다’를 ‘소유·존재’의 부정 외에 ‘아니다’와 같은 단순 부정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앙어에 비해 부정 응답어로 두 어휘가 쓰이는 것은 ‘엇다’가 ‘아니다’의 의미 영역까지 확대되었음을 뜻한다. 여기서 ‘엇다’는 화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한 부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지정사가 쓰인 의문문을 살펴보겠다.



(5) 가. 오늘 보름가? (오늘 보름이냐?)

나.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 *마우다.

(6) 가. 느 오늘 당번가? (너 오늘 당번이냐?)

나.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 *마우다.

(7) 가. 가의 순이 아니라? (그 아이 순이 아니냐?)

나.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 *마우다.

(8) 가. 이 물건 집의 거 아니라? (이 물건 집의 것이 아니냐?)

나.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 *마우다.

(5), (6)은 '이가?'의 선행 명사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를 묻고 있다. 중앙어인 경우에는 '이다'로 풀었기 때문에 그 부정어인 '아니다'만이 응답되는데, 제주 방언에서는 '아니다' 외에 '엇다'도 쓰이고 있다. 여기서 '엇다'는 '상태 부정'이라 할 수 있다. 강정희(1992 : 710~711)에서는 이 때의 “‘엇다’는 응답자의 부정적인 반응이 구체적이며 심적 태도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엇다'를 '존재·상태'의 부정으로 보고 있다. (7), (8)에서 부정 의문문에 대한 부정 응답으로 역시 '엇다'가 쓰이고 있다. '아녀' 응답은 당연한데, '엇다' 응답이 가능한 것을 보면 '엇다'에는 '아니다'와 같은 단순 부정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자의 판단도 개입되어 있다.

(5~8)에서 부정 응답 '아니다'는 단순히 질문에 대한 부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엇다'가 쓰일 때에는 '엇다, 명사+아니'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5), (6)에서 '보름이다', '당번이다'라는 상태가 '오늘' 하루 동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다'는 선행 명사의 '존재·상태'를 지정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 의미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시간 부사어와 함께 쓰이는 문장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거 옷가?'에서는 단순히 '옷'을 지정해 줄 뿐 '존재·상태'의 의미는 없다. 따라서 '이다'의 본래 기능인 '지정'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에는 단순히 질문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순 부정으로 볼 수 있으나, '엇다'로 응답한 경우에는 응답자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어서 다른 생각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판정 의문문에서는 부정 응답으로 '엇다'가 빈번히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엇다'는 존재·상태 동사로서 요구하는 내용의 거부를 “존재의 부재”로 해석할 수 있다. '아니다(아녀)' 자리에 '엇다'가 쓰이는 것은 제주 방언에서 부정 어휘의 선택 폭이 넓음을 의미한다.

(9) 가. 느 책 이시냐? (너 책 있느냐?)

나.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 *마우다

(9)에서 '이시다(잇다)'는 '소유'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이는 중앙어와 같

다. ‘있다’에 대한 부정 응답으로 ‘없다’가 쓰이는 것은 당연하다. 부정 응답의 기본 형태가 ‘아니다’여서 단순한 부정의 의미인 ‘아니다’가 발화되며, ‘있다’의 부정 어휘로 ‘없다’도 발화되고 있다. 따라서 응답이 ‘아니다’일 때에는 단순 부정의 의미가 강하고, ‘있다’일 때에는 “나에게는 책이 없다,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소유의 부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있다’는 응답에서도 ‘소유·존재’의 부정을 나타내며, 이렇게 ‘소유’나 ‘존재’의 부정을 강하게 표현해야 할 때에 이 어휘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1~4)를 통해서 담화론적 측면에서 부정 응답에서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겠다. 의문문에서도 초점의 위치에 따라 응답 내용이 달라진다.

(1가)에서 화자는 이미 밥을 먹은 상태에서 혼자 먼저 먹은 것이 미안해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또는 화자가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단순히 청자의 ‘밥 먹은’ 행위를 묻는 것일 수도 있으며, “먹지 않았으면 드십시오” 또는 “아직 시간이 안 되었는데 벌써 먹었습니까?” 등의 의미가 내포될 수 있다. 그러나 화자는 청자의 ‘밥 먹은 행위’ 여부를 간단히 묻는 것일 수도 있다. (1나)에서 ‘있다’는 응답자의 거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초점이 ‘먹었수과?’에 놓이면(밥 먹었수과?) 즉 “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 먹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잘 드러난다. 초점이 ‘밥’에 놓이면(밥 먹었수과?) ‘밥’을 제외한 다른 것을 먹었다는 뜻이다. 즉 ‘밥’만 먹지 않았다는 뜻이다. ‘밥’이 나에게 소속된 소유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면 ‘있다’는 소유의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다’는 객관적인 단순 부정으로 쓰이고 있다. 말하자면 단순히 ‘먹지 않았다’는 동작의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있다’는 ‘먹었다’에 대한 부정 응답이므로 행위 부정이라 할 수 있다. 초점이 어디에 놓이든 부정 응답으로 (1나)가 실현됨을 알 수 있다.

(2가)는 화자가 청자의 고생한 행동을 위로해 주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고, 단순히 의례적인 질문일 수도 있다. 또는 화자가 생각할 때 그렇게 고생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반문하고 있다. 화자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물을 수도 있다. (2나)에서 ‘있다’나 ‘아니다’의 응답은 단순히 질문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지만, ‘있다’인 경우에는 “고생될 만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경험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즉 ‘있다’에는 “청자가 생각하는 고

생의 정도가 나에게서는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응답자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아니다’는 서술어인 ‘고생하다’에 대해서 단순히 ‘고생하지 않았다’보다는 표면적인 내용에 대한 부정의 의미이다. 부정 응답 ‘엇다’는 전제된 질문의 행위를 부정하고 있다. ‘엇다’를 소유·존재의 부정 어휘라고 하는데, 부정 응답에서는 ‘행위 부정’의 의미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에서 화자는 “그 아이가 당연히 놀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서 청자에게 그 유무를 묻고 있다. 화자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있다. 부정 물음이기 때문에 부정 응답으로 ‘아니다’가 쓰였지만 실제 내용은 긍정이다. ‘엇다’에는 응답자의 확신이 들어 있다.

(4)에서 화자는 청자가 이미 밥을 먹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묻고 있다. 즉 “밥을 먹지 못했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엇다’는 ‘아니다, 밥을 먹었다’를 포함한다. ‘밥을 못 먹은 동작(행위)’을 부정하는 응답이다. 이 때 ‘엇다’는 질문자의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요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정소 ‘못’의 의미인 타의 부정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자가 아직 밥을 먹지 않은 상황에서 ‘안 먹었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부정소 ‘못’ 대신 ‘아니’를 대입하면 ‘안 먹었느냐’가 되는데, 이 때는 단순 부정의 의미로 쓰인다.

‘부정 물음-부정 응답’에서도 ‘엇다’는 담화 생략 자체가 무의미하며, ‘아니 ±동사’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엇다’나 ‘아니다’는 단순 부정의 기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엇다’에 좀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부정소 ‘아니’보다 ‘의지·강조·단정’의 의미가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10) 가. 어디 서월서 들읍디가? (어디 서울에서 들었습니까?)

나.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 *마우다.

(11) 가. 나가 그디까지 갈 말이나? (내가 그 곳까지 가야 되겠느냐?)

나.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 *마우다.

(10가)는 판정·설명 의문문이 된다. 판정 의문문인 경우 ‘서월서’에 초점이 놓이면 들은 장소만을 부정하며 그외 다른 장소에서 들었음을 의미한다. 즉

“우연히 그냥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또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들었습니다.”라는 뜻이 된다. (10나)에서 ‘엇다’는 ‘서울에서’라는 장소를 부정하고 있다. (11가)에서 주어와 화자인 경우에는 부정을 전제로 하는데, ‘그디깅지’에 초점이 놓이면,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발화된 문장은 긍정 의문문인데 실제로는 ‘-지 않겠다’는 주어의 강한 의지가 내포된 부정문이다. (11나)는 “그곳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다.

(10), (11)에서 부정 응답 ‘엇다’와 ‘아니다’는 장소를 부정하는 것 같지만 서술어인 ‘듣다’, ‘가다’를 부정하고 있다. 여기서도 두 부정어는 단순 부정이면서 ‘엇다’에 행위 부정의 의미를 첨가할 수 있다.

판정 의문문은 응답으로 ‘예·아니’를 요구하므로 부정 응답에 쓰인 ‘아니다’·‘엇다’는 단순히 화자의 질문을 부정하고 있다. ‘엇다/엇수다’는 존재 동사인데, 부정 응답에서는 화자의 질문 내용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즉 “그러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엇다’의 기본 의미는 ‘소유·존재’의 부정이며, ‘엇다’(부정 응답에서)의 의미는 “단순 부정 + 행위 부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소유·존재의 부정 + 추상적인 대상의 부정”이다. 이 때 부정 대상인 서술어는 동사일 때이다.

‘의문-부정 응답’에서 부정 어휘 ‘엇다’와 ‘아니다’가 지금은 제주 방언에서 거의 의미 구별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부정 응답시 ‘엇다’나 ‘아니다’에 강세가 있으면 좀더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강세가 없으면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응답하는 화자의 심리 상태가 반영되었을 때 부정 정도를 강·약으로 표현할 수 있다. 원래 ‘엇다’는 ‘소유·존재’의 부정어인데, 부정 응답에서 쓰인 것은 질문에 주어진 행위를 부정하는 의미로 쓰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히 ‘아니다’의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초점이 중립일 때에는 동사인 서술어가 부정된다. 따라서 부정 응답이 ‘엇다’로 발화될 때에는 의문문에서 주로 서술어가 부정되는데 ‘엇다’ 자체에 부정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아니다’로 응답할 때는 “아니, 부정소 아니+동사”의 통사 구조이며, 물론 담화 생략이 자연스럽지만(‘아니’ 이하) ‘엇다’는 담화 생략 부분을 설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다. 이것은 ‘엇다’가 강한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엇다’와 ‘아니다(아녀)’의 의미 차이를 구별하자면, ‘엇다’는 “아니+부정되는 초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부정의 의미 정도를 보면 ‘엇다’가 ‘아니다’보다 그 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엇다>아니다”).

따라서 제주 방언 언중들이 ‘엇다’를 부정 응답으로 사용할 때에는 ‘아니다’와는 구별해서 발화했을 것이며(의미에 강·약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나), 두 부정 어휘의 의미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두 어휘가 같은 뜻으로, 수의적으로 선택되고 있다 즉 단순히 교체되어 쓰이고 있다(‘엇다>아니다’→‘엇다=아니다’). 물론 지금도 세대간의 차이는 나타난다 중앙어의 영향과 표준어 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아니(다)’를 자주 사용하며, 노인층으로 갈수록 ‘엇다’ 응답이 우세하다.

4.2. ‘명령－응답’에서의 부정어

명령문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자의 행동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명령·요구하는 것이며 화자 중심의 문장이다. 따라서 화자의 청자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 반응이 부정 응답으로 실현되는 명령문의 통사·담화 기능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12) 가. 느 이거 해 블라. (네가 이것을 해 버려라.)

나. 말다/마우다, 싫다, *엇다/ *엇수다, *아니다/ *아니우다.

(13) 가. 느 장개 가라. (너 장가 가라.)

나. 말다/마우다, *엇다/ *엇수다, *아니다/ *아니우다.

(14) 가. 밤의 불장난흐지 말라. (밤에 불장난하지 말라.)

나. 말다/마우다, *엇다/ *엇수다, *아니/ *아니우다.

(15) 가. 이레 오지 맙서. (여기 오지 마십시오.)

나 말다/마우다, *엇다/ *엇수다, *아니/ *아니우다.

예문에서 명령문에 대한 부정 응답으로 ‘말다/마우다’만이 선택되는 것은 명령문의 통사 특성과 관계가 있다. 즉 ‘말다’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만 쓰인다는 통사 특성이 부정 응답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명령문은 발화시 현재, 청자의 행위(동작)가 일어나기를, 화자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바란다. 또한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의 상황은 무시한 채 요구하는 문장이다. 따라서 응답시 화자의 긍정·부정 의사 표현이 강력히 제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각 예문 (나)의 응답에는 ‘안하겠다’는 응답자의 거부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말다’에는 응답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3.1.1에서 ‘말다’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듯이, 명령·청유문에서 기본 의미는 ‘행위 금지’이고, 부정 응답인 경우에는 ‘행위 거부’로 쓰인다. ‘무엇을 하다’, ‘장가 가다’라는 긍정문에 대한 ‘행위 금지’의 응답으로 ‘이것을 안 하겠다’, ‘장가를 안 가겠다’ 등의 부정 행위가 실현된다. ‘말다’가 ‘아니다’보다 화자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부정 응답에 쓰인 ‘말다’를 강정희(1992 : 714)에서는 “부정적 의지”로 정의하고 있다.

(12), (13)에서 부정 응답 ‘말다’에는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장가가지 않겠다.”라는 화자의 강한 거부 의지가 들어 있으며, (14), (15)에는 “밤에 불장난 하겠다, 이곳에 오겠다”라는 응답자의 의지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말다’가 부정 응답으로 쓰일 때에는 응답자의 행위(동작) 금지 의지를 나타낸다. ‘말다’는 주어진 명제의 동사(서술어)를 부정하므로 [+동작]의 의미 자질과 관계가 있다 “하다, 가다”라는 행위가 존재하거나,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거부한다. ‘말다’는 “난 말다”라는 발화에서 주어인 ‘나’가 생략되었으며, 이 때 ‘말다’에는 동사로서 자립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부정소 ‘아니’도 단독으로 발화되는데 이는 부사여서 가능하다. ‘말다’가 완전히 보조동사로 문법화되었다면 부정 응답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인데, 제주 방언에서 독자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아서 본동사의 기능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부정 응답에서 당연히 응답자의 ‘거부 의사’가 포함된다. 따라서 ‘말다’의 의미는 단순 부정+응답

자의 거부 의지”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위 보기를 통해서 담화론적 측면에서 ‘말다’가 부정 응답으로 쓰일 때의 의미를 알아보겠다. (12~15)의 응답을 보면 중앙어 ‘싫다’ 자리에 ‘말다’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2)에서 ‘말다’에는 ‘-을 하는’ 행위 거부의 의사가 표현되어 있어서 ‘-을 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으로 쓰였다.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못하겠다”라는 의지 부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청자는 화자의 제의를 거절하고 있다. 여기서 ‘불다’는 중앙어 ‘버리다’라는 뜻이며, 제주 방언 보조동사이다. 중앙어에서는 부정 응답으로 ‘싫다’가 발화된다. 이때 ‘싫다’는 화자의 강한 거부 의사 표현 보다는 ‘거부하고 싶은 정도’의 감정이 내포된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말다’의 부정 정도가 더 강하며, 제주 방언에서 실제 발화시에 노인층에서 ‘싫다’는 잘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서는 원래 명령에 대한 부정 응답으로 ‘말다’만 쓰이다가 화자가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싫은, 소극적인 의사가 반영되면서 ‘싫다’를 발화했다고 여겨진다. (13)에서 “장가 가는 행위”를 부정하는 응답으로 (13나)가 실현되었다. ‘말다’로 응답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거부 의사가 강력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가가가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못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장가 가는 행동의 거부’라는 응답자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12), (13)에서 ‘말다’에는 화자의 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청자의 강한 ‘거부’ 의사가 들어 있으며 “-을 안하겠다/못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14), (15)에서 ‘부정 물음-응답’인 경우에도 역시 ‘말다’가 쓰임을 알 수 있다. (14가)는 화자의 의식 속에는 보통 어린 아이들이 밤에 불장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발화이다. 따라서 청자의 행동을 막고 싶은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 (14나)는 ‘불장난 하겠다’는 응답자의 의지와, 화자의 요구에 대한 청자의 ‘거부’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15가)는 누군가 이 장소에 올 수 있다는 가능성과, 어떤 일을 할 때 방해될까 봐 하는 발화로 볼 수 있다. 여기서도 ‘말다’는 “이 곳으로 오겠다”는 응답자의 의지가 드러나며, 화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12~15)의 응답에서 ‘말다’는 ‘싫다’의 의미로도 쓰였지만 ‘못하겠다, 안하겠다’라는 응답자의 거부 의지도 내포되어 있다. 여기에는 ‘의지 부정·타의 부정’의 의미가 들어 있다. 즉 화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 줄 수 없다는, 또는 요구 사항을 실천하기 싫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말다’에는 주어진 명제에 대한 부정의 내용도 들어 있지만, 응답자의 저항감도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싫다’도 심리적인 부정(거부)을 뜻하므로 부정 응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말다’나 ‘싫다’는 명제의 동작을 부정하고 있지만, 의미면에서 ‘말다’의 부정 정도가 강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본다면 ‘말다’는 부정 명령으로 쓰이며 기본 의미는 ‘행위 금지’인데, ‘부정 응답’에서는 “행위 거부”(화자의 의지 포함)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령문은 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화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싫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 응답이 쓰인다. 이 때 그 응답으로 쓰인 ‘말다’에는 청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부정소 ‘아니’의 의미와 유사한 ‘화자의 의지’, ‘거부’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말다’는 ‘아니+동사’의 뜻으로 쓰였다. ‘말다’가 ‘싫다’의 자리에 쓰이는 것으로 보아서 제주 방언이 중앙어보다 의미 범주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층에서는 대부분 ‘말다’로 응답하지만, 젊은층으로 내려올수록 ‘싫다’ 또는 ‘아니+동사’로 응답한다. 즉 부정 응답에서 세대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지금도 제주 방언 토박이 화자들 중에서 표준어 교육을 받은 세대도 나이가 들면서는 ‘싫다’는 거의 쓰지 않고 ‘말다’를 사용한다. 제주 방언에서 ‘말다’는 원래 부정 응답으로 쓰였고, 중앙어에 동화되면서 ‘싫다’가 ‘말다’의 자리를 잠식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말다’에는 ‘거절·부정’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데 비해, ‘싫다’에는 단순히 화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싶은, 곧 하기 싫은 정도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굳이 부정의 의미 정도를 강·약으로 구분하자면 ‘말다’가 ‘싫다’보다 강한 부정(“말다>싫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3. ‘청유—응답’에서의 부정어

청유문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행동에 대해서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제안하는 청자 중심의 문장이다. 청유문에서 부정 응답으로 쓰이고 있는 ‘말다’의 통사·담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6) 가. 우리 이디서 쉬멍 가게 (우리 이 곳에서 쉬었다가 가자.)

나. 말다/마우다, *엇다/ *엇수다, *아니다/ *아니우다.

다. 좋다, 싫다.

(17) 가. 밧되서 일헝게. (밭에서 일하자.)

나. 말다/마우다, *엇다/ *엇수다, *아니다/ *아니우다.

(18) 가. 집의 잇지 말게. (집에 있지 말자.)

나. 말다/마우다, *엇다/ *엇수다, *아니다/ *아니우다.

(19) 가. 바당 가지 말게. (바다에 가지 말자.)

나. 말다/마우다, *엇다/ *엇수다, *아니다/ *아니우다.

예문에서 보면 부정 응답으로 ‘말다’만이 쓰이고 있다. 판정 의문문에서는 ‘말다/마우다’가 제외되고, 명령·청유문에서는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가 제외되었다. 청유문은 화자와 청자의 공통 의사를 반영하므로 제안·요청에 대한 부정 응답에서의 어휘의 선택 제약은 통사론적 제약에 의한 것이다. 각 예문 (나)는 화자의 제의를 거절하는 응답이며, 제안하는 명제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청유문의 특성상 동사가 서술어가 되어야 하므로, 부정 응답 ‘말다’의 부정 대상은 주어진 명제의 서술어를 부정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16가)는 청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화자가 쉬고 싶은 경우 자신의 의사를 제안하고 있다. 응답어 ‘말다’에는 역시 청자의 강한 거부 의지가 드러난다. 즉

청자의 의지를 강력히 반영하는 어휘이다. ‘말다’는 ‘쉬고 가자’라는 화자의 제의를 거절하고 있으며, 현재의 행동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 중앙어인 경우 ‘싫다’(의미적으로 부정적인 문장)로도 쓰이는데, 이때에는 단순히 화자의 제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곳에서는 쉬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쉬자.”라는 제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어에서는 대체적으로 칭유에 대한 부정 응답으로 ‘싫다’가 발화된다. 제주 방언에서 젊은층으로 내려올수록 ‘싫다’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중앙어의 영향이고 지금도 노인층으로 올라갈수록 ‘말다’를 사용한다. 즉 제주 방언에서 ‘싫다’와 ‘말다’의 의미가 변별력이 있어서 선택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중앙어에서 ‘싫다’가 사용되는 자리에 제주 방언에서는 ‘말다’가 쓰인다. 따라서 ‘말다’가 ‘싫다’의 의미까지 포함해서 쓰임을 알 수 있다.

(17가)는 화자가 밭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밭으로 장소를 이동하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17나)는 ‘일하자’라는 동의를 요청하는 발화에 대한 부정 응답일 때이며, ‘말다’에는 ‘일하기 싫다’는 응답자의 의사가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일하는 행위’를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자는 화자의 제안을 단순히 거절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같이 일할 수 있다는 뜻일 때에도 이 부정 응답이 가능하다.

(18나)는 “집에 있지 말자”라고 제안했을 때의 청자의 반응이며, 이 때 ‘말다’는 화자의 제의 거절과 ‘집에 있겠다’는 행위 지속의 의지를 나타낸다. (19)는 ‘바다에 가지 말자’는 제안에 응답자가 거부하고 있는 응답으로 ‘말다/마우다’를 발화하고 있다. “나는 바다에 가겠다”라는 응답자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18), (19)에서 ‘말다’는 행위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정 응답으로 쓰인 ‘말다’는 그 제의를 거부, 거절하는 강력한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 중앙어 ‘싫다’보다 응답자의 심리 상태가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16~19)에서 부정 응답으로 ‘말다’만이 쓰이는 것은 청자의 행동을 제안하는 명제인데 그 제안을 거절하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의 ‘말다’의 의미는 ‘행위 거부’라 할 수 있다.

예문을 통해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주 방언 부정 응답에 ‘말다’가 쓰이는 것은 ‘말다’가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표현하는 어휘이기 때문이다.

‘말다’에는 화자가 요구하는 행위를 거부하겠다는, 곧 그 행위를 청자 스스로 금지하겠다는 의미가 있음을 보았다.

제주 방언에서 ‘말다’는 명령·청유문에도 쓰이지만 부정 응답에도 쓰여서 중앙어의 ‘싫다’의 자리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사용된다. 즉 ‘말다’의 기본 의미는 ‘행위 금지’인데, 부정 응답에서는 ‘행위 거부’로 쓰이고 있음을 보았다. 즉 ‘말다’는 명령·청유문에 쓰이므로, 화자의 명령이나 제안을 거절하겠다는 응답자의 의지가 반영된다.

중앙어에서 부정 응답으로 ‘말다’·‘엇다’가 발화되지 못하는 것은 통사 특성에 기인한다. 보통 부정 명령·청유문에 ‘말다’가 쓰이며, 그 응답은 평서문이 된다. 따라서 평서문에는 부정소 ‘아니’가 쓰이고 ‘말다’는 쓰일 수 없다는 통사 제약이 부정 응답에도 적용된다. 중앙어 화자들의 의식 속에는 문장 종결형에서 부정 응답어인 경우에는 ‘말다’·‘엇다’인 부정 어휘를 쓰는 것이 아니고, 부정소 ‘아니’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부정 어휘는 아니지만 ‘좋다’의 부정적인 반의어인 ‘싫다’가(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부정 응답에서 실현되는 것은 명령·청유문의 명제에 “해 줄 수 있니?”, “하는 것을 좋아 하니?”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제안에 대한 부정 응답에서 ‘싫다’가 쓰인다. 중앙어에서는 부정 응답어로 ‘싫다’가 쓰인다. 제주 방언에서 ‘말다’가 ‘싫다’보다 자유롭게 발화되는 것은 제주 방언 토박이 화자들의 의식 속에는 ‘싫다’보다 ‘말다’가 ‘화자의 거부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는 어휘(‘말다>싫다’)로 인식한다고 생각된다.

4.4. ‘평서—응답’에서의 부정어

앞에서 의문·명령·청유문에서의 부정 응답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평서문에서도 부정 응답으로 ‘엇다’가 쓰이는 상황을 고찰해 보겠다.

(20) 가. 난 몰 타고, 는 기냥 걸으니 기분이 좋지 못하다.

(나는 말을 타고 너는 그냥 걸으니 기분이 좋지 못하다.)

나.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 *마우다

(21) 가. 이견 죽은 낭이주. (이것은 죽은 나무이다.)

나.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 *마우다

(22) 가. 가의 무신 병 안 들렸수다.

(그 아이 무슨 병에 걸리지 않았습시다.)

나.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 *마우다

(20가)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청자는 그렇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괜찮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응답이 ‘엇다’, ‘아니다’로 발화되었다. 부정 응답이 ‘아니다(아녀)’인 경우에는 ‘아니다, 괜찮다’라는 뜻이며, ‘엇다’에는 좀더 강한 화자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엇다’나 ‘아니다’는 “나는 걸어가도 괜찮다”라는 마음의 상태와, 화자의 동작이 지속되길 허락하고 있다. 여기서 주어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를 써야 하는데, ‘못하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말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미안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1가)는 “이것은 죽은 나무이다.”라는 화자의 단정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어에서는 지정사 ‘이다’의 부정 응답으로 ‘아니다’가 쓰이는데, 제주 방언에서는 ‘아니다’가 발화될 자리에 ‘엇다’가 발화되고 있다. 즉 “죽은 나무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엇다’가 쓰였다. 여기서 ‘엇다’는 “죽은 나무다.”라는 지정을 부정하고 있다. 4.1.에서 보았듯이 ‘엇다’는 부정 응답에 쓰이는 어휘임을 확인할 수 있다.

(22가)에서 “그 아이는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았다”라는 발화인데, ‘엇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여기서도 ‘엇다’는 화자의 말을 부정하고 있다.

평서문에 쓰인 ‘엇다’는 중앙어 ‘아니다’에 해당하며 ‘의문-응답’에서의 기능과 같이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엇다’로 응답할 때에는 응답자의 의지가 분명하게 반영되며, ‘아니다’와 비교해 보면 부정 정도에서 화자의

심리 상태가 좀더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엇다’는 “단순 부정 + 화자의 의지”라 할 수 있는데, 중앙어의 영향으로 수의적인 교체가 이루어지며 지금은 ‘단순 부정’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엇다’가 ‘아니’보다 부정의 정도가 컸을 것이나, 지금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부정 응답시 ‘엇다’나 ‘아니’에 강세가 있을 때는 화자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고, 강세가 없을 때에는 단순 부정으로 쓰인다고 생각된다(‘엇다 > 아니다’ → ‘엇다 = 아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듯이 제주 방언에서는 부정 응답으로 ‘아니’보다 ‘엇다’와 ‘말다’가 보편적으로 쓰인다. 제주 방언에서 ‘엇다’는 의문문과 평서문의 부정 응답에서 쓰인다. ‘아니’라는 단순 부정으로 응답할 때보다 존재 부정의 ‘엇다’로 응답하면 화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반영되어 청자의 생각이나 ‘진’에 대한 내용을 거부하는 것이다. 굳이 부정 응답어의 의미를 구별하자면 ‘아니’도 주어나 화자의 의지 반영 정도에 따라 부정의 의미가 강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단순 부정이며, ‘엇다’는 ‘소유·존재’의 부정어인데 부정 응답으로 쓰이는 것은 역시 단순 부정의 의미와 화자의 의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아니’와 ‘엇다’가 구별 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봐서 이 어휘를 선택하는 화자의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명령·청유문에서 부정 응답어로는 ‘말다’가 쓰이며, 화자의 요구, 제안을 거절하는 응답자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 때의 ‘말다’의 의미는 ‘행위 거부’라 할 수 있다. 부정 어휘 ‘말다’는 주로 명령·청유문에 사용되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금지’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서법상 명령·청유문은 동작 동사가 서술어가 되어야 하며, 동작주의 행동과 관계되므로 이런 문형과 호응하고, ‘말다’는 당연히 동작주의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부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말다’의 통사 특성상 응답시에도 두 문형에서만 실현된다.

제주 방언의 경우 문장 종결형에서 부정 응답으로 부정어 ‘말다’·‘엇다’가 쓰임을 알 수 있으며, 통사 특성에 따라 성립하는 문형이 다를 뿐이다. ‘말다’와 ‘엇다’의 의미 범주가 넓은 것이 제주 방언의 특징이다. 즉 부정 어휘 자체의 고유한 기본 의미가 있지만 [부정]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고, 통사 특성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며, 그 쓰임이 선택되고 있다. 부정 응답시

쓰이는 부정 어휘는 어휘 자체의 기본 의미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 교체로 변화되었다. 노인층으로 올라갈수록 ‘말다’, ‘엇다’를 사용하고, 젊은층으로 내려올수록 ‘싫다’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도 제주 방언 토박이 화자들 중에서 표준어 교육을 받은 세대도 나이가 들면서 ‘싫다’는 잘 쓰지 않고 ‘말다’를 사용한다 즉 ‘말다’·‘엇다’·‘아니’가 부정 응답으로 쓰일 때에는 세대간의 차이와 의미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나, 지금은 의미면에서는 단순 교체로 변하였고, 세대간의 차이는 조금 남아 있다.

지금까지 제주 방언 부정 응답에 쓰이는 부정 어휘를 중앙어와 비교해 보았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장종결법	제주 방언	중앙어
의문문	엇다, 아니다	아니다
명령문	말다	싫다
청유문	말다(싫다)	아니다, 싫다
평서문	엇다, 아니다	아니다

V. 결 론

이 연구는 제주 방언의 부정 표현을 공식적으로 기술하여 중양어의 문법 체계와 제주 방언의 문법 체계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통시적인 고찰도 아우르며, 또한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부정 표현의 통사·의미 특성 등을 밝힘으로써, 제주 방언 부정 표현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주 방언의 여러 특성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단형 부정문의 기능을 논의한 결과, 제주 방언과 중양어는 서로 유사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우선 부정소 '아니'의 통사 제약 현상을 들 수 있다. 즉 중양어에서 '아니'는 다음절어에 선행할 수 없는데 제주 방언에서는 가능했다. 둘째는 부정소 '못'이 '타의 부정'의 의미 외에 '못 됐다'에서는 부정소 '아니'나 '없다'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제주 방언에서는 중양어보다 단형 부정문의 쓰임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단형 부정문이 우세한 것은 발음상 노력의 경제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화자의 생각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려는 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실제 회화시에는 간단한 의사 전달이 목적이므로 단형 부정문을 주로 사용한다.

장형 부정문의 통사·담화 기능을 살펴본 결과 제주 방언과 중양어가 유사함이 확인되었다 즉 '단순 부정', '타의 부정'의 기본 의미와 부정 서술어의 통사 특성이 같다.

장형 부정문의 특성 중에서 제주 방언이 중양어와 다른 점이 있다. 첫째 보문소 '-게'와 부정 서술어의 공기 현상이 중양어에 비해서 보편적이다. 둘째 중양어에서는 명사화소 '-기'가 쓰이는 데 제주 방언에서는 보문소 '-지'가 쓰이고 있고, 보문소 '-들'의 기능을 통해서 중세 국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중 부정문은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의 복합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즉 이중 부정문은 “부정소+부정 서술어”의 통사 구조이다. 이중 부정문에 대응되는 긍정문이 있는데도 그 긍정문을 사용하지 않고 이중 부정 형식을 사용하

는 것은 발화자의 심리 상태, 청자의 반응을 고려한 결과이다. 즉 화자의 발화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이중 부정문의 명제에 대해서 화자나 청자는 나름대로 작위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그럴 의도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이중 부정문의 형식을 취하는 화자의 심리 상태는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우회성을 띤 발화를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다.

부정 아닌 부정문의 통사 구조가 종결어미 ‘-지’로 끝날 수 있는데, ‘아니혀?’가 문미에 덧붙여서 선행 명제를 긍정, 확인해 주고 있다. 이 때 ‘아니+혀’에서 ‘아니’는 부정문에 쓰이는 부정소의 기능이 없고, 화자가 자신의 발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청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역설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그래서 확인·동의를 요청하는 기능으로 부정소 ‘아니’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정 아닌 부정문에서 긍정의 사실을 전제하고서 청자의 동의, 확인을 얻으려는 심리 상태가 반영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부정 아닌 부정문은 긍정적 진술이나 긍정적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여기에 쓰인 부정소 ‘아니’는 부정적 의미를 상실한 채 청자의 동의나 확인을 구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부정 아닌 부정문에서 부정 서술어는 주로 축약형 ‘잖니?’가 쓰이는데(‘있지 않아→있잖아, 있지 않습니까→있잖습니까, 자지 않니→자잖니’), 제주 방언은 중앙어에서와 같은 축약형이 쓰이지 않는다. 즉 “있지 안혀→있잖아”, “아덜이지 않니→아덜이잖니” 등에서 축약형은 제주 방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중앙어는 축약의 단계까지 변화되었지만, 제주 방언은 그 전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중앙어에서 축약형에는 부정의 의미는 전혀 없으며, 부정소를 분리하기도 쉽지 않다. 축약형 ‘잖’이 단일 형태로 굳어졌다. 이 때 본형보다 부정의 의미가 약화되고 화자의 의도가 좀더 강하게 반영된다. 이 축약형에 강세가 있다.

3장에서는 부정 어휘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부정 어휘 ‘말다’의 기본 의미는 ‘행위 금지’인데 ‘긍정·강조·확인’·‘단순 부정 아니’·‘싫다’의 의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다’의 통사 특성상 선행 요소로는 [+동작]의 의미 자질을 갖고 있는 동사가 와야 하므로 명령·청유

문에서만 쓰이며 담화 의미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양어와 마찬가지로 주어의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낼 때는 ‘말다’가 쓰이지만 ‘아니하다’로 대체된다. ‘말다’는 명령·청유문의 통사 특성 때문에 다른 문형에서는 쓰이지 못하며 ‘아니하다’, ‘못하다’와 상보적 관계에 놓여 있다.

동사 ‘하다’와 ‘말다’는 대립쌍이 되지만 ‘하다’ 동사를 제외한 다른 동사는 성립하지 않는다. ‘말다’의 대립쌍이 항상 ‘하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긍정의 ‘하다’에 대립되는 것이 ‘말다’라 할 수 있다.

제주 방언의 특징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말다’에 본동사의 기능이 있는 것, 보조동사의 기능이 있는 것, 보조사로 기능하는 것, 보문소 ‘-게’와의 공기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엇다’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긍정 어휘 ‘있다’와 부정 어휘 ‘엇다’는 서로 대립쌍으로 성립하며 그 의미는 ‘存在·所有 : 不在, 無’이다. 이는 중양어와 같으며 차이점이라면 ‘엇다’는 부정 응답에서 ‘아니’ 자리에도 쓰인다는 점이다. ‘있다’는 ‘소유·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며, ‘소유주’와 ‘처소’라는 대상이 있음도 알 수 있다. ‘엇다’는 ‘부정소+긍정 어휘’로 재분석할 수 있다.

또한 지정사 부정인 ‘아니다’의 여러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다’의 선행 요소는 명사구이므로 그 부정어인 ‘아니다’의 선행 요소도 역시 명사구이며 [+상태]라는 의미 자질을 둘 다 갖고 있다. ‘아니다’는 ‘아니+이다’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아니’는 단형·장형 부정문에 쓰이는 부정소와 동일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인지 동사 ‘모르다’의 의미·통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알다’가 정보의 보유 상태라면 ‘모르다’는 정보의 부재임을 확인하였다. ‘알다’는 ‘부정소+긍정 어휘’로 재분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모르다’의 의미를 ‘정보의 부재’로 규정했다. 여기서 부재의 의미는 부정소 ‘아니·못’이 갖고 있는 의지 부정, 타의 부정의 의미 외에 알고 싶지 않은, 필요성이 없는 단순 부정의 의미이기도 하다. 부정 어휘 ‘모르다’ 역시 중양어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데, 부정 응답에서 ‘모르다’와 ‘엇다’의 호응 관계가 다른 점이다. 따라서 ‘엇다’, ‘아니다’, ‘모르다’의 제 기능이 중양어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4장에서는 제주 방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부정 응답 표현에 대해서 논의

했다.

우선 부정 응답어 ‘엇다’의 쓰임을 보았다. 판정 의문문은 응답으로 ‘예·아니’를 요구하므로 부정 응답에 쓰인 ‘아니다’·‘엇다’는 단순히 질문을 부정하고 있다. ‘엇다’는 존재 동사인데 부정 응답에서는 화자의 질문 내용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즉 ‘그러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엇다’의 기본 의미는 ‘소유·존재’의 부정이며, ‘엇다₂’의 의미는(부정 응답에서) “단순 부정+행위 부정”이라 할 수 있다. ‘엇다₃’의 의미는(‘모르다’ 부정 응답에서) “소유·존재의 부정+추상적인 대상의 부정”이다.

평서문에 쓰인 ‘엇다’는 중양어 ‘아니다’에 해당하며 ‘의문-응답’에서의 기능과 같이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엇다’로 응답할 때에는 응답자의 의지가 분명하게 반영되며 부정소 ‘아니’와 비교해 보면 부정 정도에서 화자의 심리 상태가 좀더 강하게 반영되었다. 이 때의 ‘엇다’도 “단순 부정+화자의 의지”라 할 수 있는데, 중양어의 영향으로 수의적인 교체가 이루어지며 ‘단순 부정’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엇다’가 ‘아니’보다 부정의 정도가 컸을 것이나, 지금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부정 응답시 ‘엇다’나 ‘아니’에 강세가 있을 때는 화자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고, 강세가 없을 때에는 단순 부정으로 쓰인다.

제주 방언 토박이 화자들이 ‘엇다’를 부정 응답어로서 사용할 때에는 ‘아니다’와는 구별해서 발화했을 것이며(의미에 강·약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며), 두 부정 어휘의 의미 차이가 있었을 것이나, 지금은 두 어휘가 같은 뜻으로, 수의적으로 선택되고 있다. 즉 단순히 교체되어 쓰이고 있다.

다음은 부정 응답어 ‘말다’의 쓰임을 보았다. ‘말다’는 부정 명령으로 쓰이며 기본 의미는 ‘행위 금지’인데 ‘부정 응답’에서는 “행위 거부”(화자의 의지 포함)의 의미로 쓰인다. 부정소 ‘아니’의 의미와 유사한 ‘화자의 의지’·‘거부’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말다’가 ‘싫다’의 자리에 쓰여서 중양어보다 의미 범주가 확대되었다. 노인층에서는 대부분 ‘말다’로 응답하지만, 젊은층으로 내려올수록 ‘싫다’ 또는 ‘아니+동사’로 응답한다. 즉 부정 응답에서 세대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중양어에서 부정 응답으로 ‘말다’·‘엇다’가 발화되지 못하는 것은 통사 특성

에 기인한다. 보통 부정 명령·청유문에 ‘말다’가 쓰이며, 그 응답은 평서문이다. 따라서 평서문에는 부정소 ‘아니’가 쓰이고 ‘말다’는 쓰일 수 없다는 통사 제약이 부정 응답에도 적용된다. 중앙어 화자들의 의식 속에는 문장 종결형에서 부정 응답어인 경우에는 ‘말다’·‘엇다’인 부정 어휘를 쓰는 것이 아니고, 부정소 ‘아니’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부정 어휘는 아니지만 ‘좋다’의 부정적인 반의어인 ‘싫다’(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가 부정 응답에서 실현되는 것은 명령·청유문의 명제에 “해 줄 수 있니?”, “하는 것을 좋아 하니?”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제안에 대한 부정 응답에서 ‘싫다’가 쓰인다.

지금도 제주 방언 토박이 화자들은, 표준어 교육을 받은 세대도 나이가 들면서는 ‘싫다’는 거의 쓰지 않고 ‘말다’를 사용한다. 제주 방언에서 ‘말다’는 원래 부정 응답으로 쓰였고, 중앙어에 동화되면서 ‘싫다’가 쓰여서 ‘말다’의 자리를 잠식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말다’에는 ‘거절·부정’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데 비해, ‘싫다’에는 단순히 화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싶은, 곧 하기 싫은 정도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굳이 부정의 의미 정도를 강·약으로 구분하자면 ‘말다’가 ‘싫다’보다 강한 부정(“말다>싫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제주 방언의 경우 문장 종결형에서 부정 응답으로 부정어 ‘말다’·‘엇다’가 쓰임을 알 수 있으며, 통사 특성에 따라 성립하는 문형이 다를 뿐이다. ‘말다’와 ‘엇다’의 의미 범주가 넓은 것이 제주 방언의 특징이다. 즉 부정 어휘 자체의 고유한 기본 의미가 있지만 [부정]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고, 통사 특성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며, 그 쓰임이 선택되고 있다. 부정 응답시 쓰이는 부정 어휘는 어휘 자체의 기본 의미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 교체로 변화되었다. 노인층으로 올라갈수록 ‘말다’, ‘엇다’를 사용하고, 젊은층으로 내려올수록 ‘싫다’를 사용하고 있다. ‘말다’·‘엇다’·‘아니’가 부정 응답으로 쓰일 때에는 세대간의 차이, 의미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나 지금은 의미면에서는 단순 교체로 변화였고, 세대간의 차이는 조금 남아 있다. 이상과 같이 부정 어휘의 의미가 다의적인 것은 그 어휘 자체의 의미보다는 문맥 제약이나 담화론적 상황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제주 방언 부정 표현 체계(통사 특성)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단형 부정문은 “아니/못+동사”의 통사 구조이며,
- (2) 장형 부정문은 “-지 아니하다/못하다/말다”의 통사 구조이며,
- (3) 부정 어휘 ‘말다’·‘엇다’·‘아니다’·‘모르다’에 의한 부정 표현의 통사 구조로 되어 있다.

끝으로 제주 방언의 부정 어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말다 : (1) 기본 의미 : 행위 금지

(2) 부차 의미 :

- ① ‘긍정, 강조, 확인’
- ② 단순 부정 ‘아니’
- ③ ‘싫다’

(3) 통사 특성에 따른 의미 : 중앙도서관

- ① 본동사 : 그만두다
- ② 부정 응답 : 행위 거부
- ③ 보조동사 : 제외하다
- ④ 보조사 : 논커녕, 논 고사하고

2) 엇다 : (1) 기본 의미 : 소유·존재 부정

(2) 통사특성에 따른 의미 :

부정응답 : ① 단순부정+행위 부정

② 소유·존재 부정+추상적인 대상의 부정

3) 몰르다 : (1) 기본 의미 : 정보의 부재

(2) 통사 특성에 따른 의미 :

부정 응답 : 거부, 거절

참고 문헌

- 강근보(1972), “제주도방언 ‘있다’ 활용고”, 논문집 4, 제주대학.
- 강정희(1988), 제주 방언연구, 한남대출판부.
- (1992), “제주 방언 물음-응답 부정표현 체계에 대하여”, 국어학 연구 백년사, 일조각.
- 강명윤(1992), 한국어 통사론의 제 문제, 한신문화사.
- 강영봉(1982), “제주도방언에서의 의미통합의 한 유형”, 북천 십여택 선생 회갑기념 논총, 동간행위원회
- (1993), 제주도방언의 동물 이름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 (1995), “제주도방언의 어휘론적 연구”, 탐라문화 15,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고영근(1987), 표준 중세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고영근·남기심(1983), 국어의 통사·의미론, 탑출판사.
- (1985),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구종남(1992), 국어부정문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 김동식(1980), 현대국어 부정법의 연구, 국어연구 42, 국어연구회.
- (1981), “부정 아닌 부정”, 언어 6-2, 언어학회.
- (1990), “부정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김민수(1971), 국어문법론, 일조각.
- 김석득(1971), “한국어 부정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3, 국어국문학회.
- 김성화(1989), “-{지/다가/고} 말-’의 의미기능”, 국어국문학 102, 국어국문학회.
- 김영진 역(1992), 말과 행위, 서광사. (John. L. Austin(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 Clarendon.)
- 김영희(1975), “의문문의 이접적 특성”, 문법 연구 2, 문법연구회.
- (1976), “한국어 수량화 구문의 분석”, 언어 1-2, 한국언어학회.
- (1984), “하다; 그 대동사설의 허실”, 배달말 9, 배달말학회.
- 김지홍(1992), 국어 부사형 어미 구문과 논항 구조에 대한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 김태곤(1989), 중세 국어의 다의어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김홍식(1974), “제주도방언의 활용어미에 대한 연구”, 논문집 6, 제주대학.
 ——(1976), “어간말모음 탈락에 대하여”, 논문집 8, 제주대학.
 ——(1984), “제주도방언의 중간 자음에 대하여”, 논문집 20, 제주대학교.
- 남풍현(1976), “국어 부정법의 발달”, 문법연구 1, 문법연구회.
- 노대규(1983), “부사의 의미와 수식 범위”, 한글 180, 한글학회.
- 류광식(1990), 15세기 국어 부정문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문순덕(1997), “제주 방언 부정 응답 구문”, 탐라문화 18,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9), “동사구에 쓰이는 ‘-시’의 문법 기능”, 제주학 3, 제주학연구소.
- 박병수(1972), “A Study of Korean Noun Phrase Complement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verb ‘ha’ ”, Tower Press. Seoul,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
- 박병채(1989), 국어 발달사, 세영사.
- 박상규(1977),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부정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박순함(1967), A Transformational Analysis of Negation in Korean, Ph. D. Diss.(The University of Michigan)
 ——(1969), “on the prefixal negatives in korean”, 어학연구 5-1, 서울대 어학연구소.
- 박양규(1975), “소유와 소재”, 국어학 3, 국어학회.
- 박영준(1994), 명령문의 국어사적 연구, 국학자료원.
- 박정규(1995), 국어 부정문의 의미와 통사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 박종갑(1987), 국어 의문문의 의미 기능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 백봉자(1975), “한국어의 부정과 그 범주”, 연세어문학 6,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 서상규(1984가), “국어 부정문의 의미 해석 원리”, 말 9집, 연세대 한국어학당.
 ——(1984나), “부사의 통사적 기능과 부정의 해석”, 한글 186, 한글학회.
- 서정목(1985), “접속문의 의문사와 의문 보문자”, 국어학 14, 국어학회.
 ——(1987),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 서정목·이광호·임홍빈 역(1984), 변형문법이란 무엇인가, 을유문화사.
 (Radford. A.(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서정목·이광호·임홍빈 역(1990), 변형문법 : 그 만남의 첫강좌, 을유문화사.
 (Radford. A(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 A first cour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서정수(1974), “국어의 부정법 연구에 관하여 : 변형 생성 문법적 분석 연구를 중심으로”, 문법연구 1, 문법연구회.
 ——(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1985), “국어 의문문의 문제점”, 국어학 논총(김형기 선생 팔지 기념).
 ——(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성광수(1971), “부정 변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2, 국어국문학회.
 ——(1976), “존재동사 ‘있다’에 대한 재고”, 한국어문논총(우수 강복수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1980), “국어의 부가 의문문에 대하여”, 한글 168, 한글학회.
- 성기철(1986), 현대 국어 대우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국어 어순 연구”, 한글 218, 한글학회.
- 송석중(1967), Some Transformational Rules in Korean, ph. D. Diss.(The University of Indiana)
 ——(1971), “A Note on Negation in Korean”, linguistics 76.
 ——(1973), “Some Negative Remarks on Negtion in Korean”, 어학연구 9-2, 서울대 어학연구소.
 ——(1974), “동의성”, 국어학 2, 국어학회.
 ——(1977), “부정의 양상의 부정적 양상”, 국어학 5, 국어학회.
 ——(1979), “Positive Remarks on Korean Negation”, 어학연구 15-2, 서울대 어학연구소.
 ——(1981), “한국말의 부정의 범위”, 한글 173·174, 한글학회.
 ——(1993), 한국어 문법의 새 조명 : 통사 구조와 의미 해석, 지식산업사.
- 손호민(1978), “긴 형과 짧은 형”, 어학 연구 13- 2, 서울대 어학연구소.
- 신원재(1987), “현대국어 부정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창순(1971), “한국어의 부정”, 조선학보 58, 조선학회(일본 천리대).
 ——(1982), “국어 부정법 연구”, 언어 7- 1, 한국언어학회.

- 심재기(1975), “반의어의 존재 양상”, 국어학 3, 국어학회.
- 안병희(1959), “중기어의 부정어 「아니」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0, 국어국문학회.
 ——·이광호(1990), 중세 국어 문법론, 학연사.
- 양동휘(1976), “korean negation revisited”, 언어 1-1, 한국언어학회.
- 양인석(1971), Korean Syntax : Case Markers Delimiter,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백함출판사(1972).
 ——(1975), “Two Causative Forms in Korean”, 어학연구 10-1, 서울대 어학연구소.
- 엄정호(1987), “장형 부정문에 나타나는 ‘-지’에 대하여”, 국어학 16, 국어학회.
 ——(1989), “소위 지정사구문의 통사 구조”, 국어학 18, 국어학회.
- 여찬영(1975), “중세어 부정법 소고”, 연세어문학 6,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 오준규(1971가), Aspects of Korean Syntax ; Quantification. Relativization. Topicalization and Negation, ph. D. Diss.(The University of Hawaii)
 ——(1971나), “On the Negation of Korean”, 어학 연구 7-2, 서울대 어학연구소
- 우형식(1991), “인지 동사 구문의 유형 분석”, 국어의 이해와 인식(김석득 교수 회갑 기념), 한국문화사.
- 유동준(1983), “국어 부정문의 화용론”, 연세어문학 14·15,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 이권원 역(1987), 언화행위, 한신문화사.(John. R. Searle(1969), Speech A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이기동 역(1981), 문법이해론, 범한서적주식회사. (Givon. Talmy(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 Academic Press.)
- 이기동 편저(1983), 언어와 인지, 한신문화사.
- 이기용(1979), “두 가지 부정문의 동의성 여부에 대하여”, 국어학 8, 국어학회.
- 이상복(1979), “동사 ‘말다’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12.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 이승욱(1990), “중세어의 ‘-(으)ㅁ’, ‘-기’ 구성 동명사의 사적 특성”, 이정 정 연찬 선생 회갑 기념 논총 III.
- 이익환(1975), “국어의 보문화에 대하여”, 어학연구 11-2, 서울대 어학연구소.
 ——(1976), “Korean Negation Revisited”, 언어 1-1, 한국언어학회.

- (1979), “한국어 ‘까지, 마저’와 부정의 범위”, 언어 4-1, 한국언어학회.
- (1980), “의문문의 의미”, 어학 연구 16-2, 서울대 어학연구소.
- (1995), 의미론 개론(수정·증보판), 한신문화사
- 이익환·권경원 역(1992), 화용론, 한신문화사.(Stephen C. Levinson(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이정민(1970), “on Negation in Korean”, 어학연구 6-2, 서울대 어학연구소.
- (1977), “부정 명령의 분석”, 어학연구 13-2, 서울대 어학연구소.
- 이창용(1990), 국어 부정문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 이태영(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문화사.
- 이태욱(1996), 중세국어의 부정법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이현희(1994), 중세 국어 구문 연구, 신구문화사.
- 이홍배(1970), “on negation in korean”, 어학연구 6-2, 서울대 어학연구소.
- (1972), A study of korean syntax, 범한서적.
- (1972), “국어 부정문 기술에 있어서의 문제점”, 어학연구 8-2, 서울대
어학연구소.
- 이홍배 역(1987), 지배·결속이론, 한신문화사.(Chomsky(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ublications.)
- 이효상(1993), “담화·화용론적 언어 분석과 국어 연구의 새 방향”, 주시경
학보 11, 주시경학회.
- 이환묵(1977), “국어의 극어와 화용상의 가정”, 어학연구 13-2, 서울대 어학연구소
- (1982가), “부정표현 ‘아니’의 통사 범주와 그 의미”, 어학연구 18-1,
서울대 어학연구소.
- (1982나), 국어 함수표현에 관한 연구 -아니, 도, 또-,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이환묵·이석부 역(1987), 문법철학, 한신문화사.
- (Jespersen, O.(1942). The Philosophy of Grammar, Reprinted by North.
New York.)
- 엄정호(1987), “장형 부정문에 나타나는 ‘-지’에 대하여”, 국어학 16, 국어학회.
- 임지룡(1989), “국어 대립어의 의미 상관 체계”, 국어학 19, 국어학회.
- 임흥빈(1973), “부정의 양상”, 논문집 5, 서울대 교양과정부(인문사회과학편)

- (1978), “부정법 논의와 국어의 현실”, 국어학 6, 국어학회.
- (1987),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생활 10, 국어연구소.
- 장경기(1986), “국어 부정 의문문과 전제”, 어학 연구 22-1, 서울대 어학연구소.
- 장경희(1982), “국어 의문법의 긍정과 부정”, 국어학 11, 국어학회.
- (1984), 현대국어 양태범주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장석진(1973), “화의 생성적 연구”, 어학연구 9-2, 서울대 어학연구소.
- (1985), 화용론 연구, 탑출판사
- (1994), 종합문법론 : 담화와 화용, 서울대 출판부.
- 전병쾌(1984), 한국어 부정구조의 분석 : 변형·생성문법적 고찰, 한신문화사.
- 정승철(1994),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정원수(1988), “부정 형태 {-잖-}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회.
- 채 완(1979), “명사화소 ‘-기’에 대하여”, 국어학 8, 국어학회.
- 최규일(1984), “한국어 화용론의 기술과 의미 해석”, 9새결 박태권 선생 회
갑 기념 논총)
- 최기용(1993), “한국어 장형 부정문의 구조”, 생성문법연구 3-1, 생성문법 연구회.
-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사.
- 한 길(1977), 한국어 부정어에 대한 연구 : ‘아니다, 없다, 말다’의 해체 분석
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한정일(1987), 부정문의 화용론,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허 발(1979), 날말발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홍종선(1980), 국어 부정법의 변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1986), 국어 체언화 구문의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 홍종립(1993), 제주 방언의 양태와 상, 한신문화사.
- 황병순(1980가), “국어 부정법의 통시적 고찰”, 어문학 40, 한국어문학회.
- (1980나), “의문문의 특수성에 대하여”, 영남어문학 7, 영남대 국문과.
- 허 응(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광일·이석주·박양구 역(1980), 의미론, 한신문화사.
- (Kempson. R. M.(1977), Semantic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현평효(1985), 제주 방언 연구, 이우출판사.

Jackendoff, R.S.(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The MIT Press.

Katz. J. J.(1972), Semantic Theory, Haper and Row, New York.

Klima, Edward S.(1959), "Negation in English", In Fodor and Katz, The
Structure of Languag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1964.

Lakoff(1970), "Repartee, or a Reply to Negation, Conjunction and
Quantifiers", Foundation of Language 6.

Lyons, John(1977), Semantics I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A Study of Negative Expressions in Cheju Dialect

Moon, Soon-Deok

This study aims to examine both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of negative expressions in Cheju Dialect and to elici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negation between Standard Korean and Cheju Dialect. The negative expressions examined in this study include both short-form and long-form negative sentences with such explicit negative elements as 'ani', and 'mot', sentences formed by the negative answering words, sentences formed by negative lexicons such as 'əsta', 'molɪda' and 'ma lda', but with no explicit negative element, negative sentences with no negative meaning, and double negative sentences.

The Cheju Dialect data used in this study show that the older the speakers are, the more frequently they are used and that some of the data are not very frequently used among those who are young and educated. In this study, however, the negative expressions used in the past were taken as linguistic data, sinc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negative expressions in the original forms of Cheju Dialect.

In Chapter 2, I examined the functions of short-form negative sentences and long-form negative sentences. As for the short-form negative sentences, it was shown that there are lots of similarities between Cheju Dialect and Standard Korean. The difference was in the syntactic constraint on the negative element, 'ani'. That is, while the 'ani' cannot precede the following clauses in Standard Korean, it can in Cheju Dialect. It was also shown that the negative element 'not' has a meaning of 'negative of others'.

As for the long-form negative sentences, the difference between Standard Korean and Cheju Dialect was proven to be in the facts that

the cooccurrence of the complementizer '-ke' and negative predicate is more popular in Cheju Dialect than in Standard Korean, that whereas the noun-forming element '-ki' is used in Standard Korean, the complementizer '-ci' is used in Cheju Dialect, and that Cheju Dialec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 Korean through the functions of the complementizer '-dɨl'.

As for the negative sentences with no negative meaning, the contracted form 'canhni?' is usually used as a negative predicate, as shown in such Standard Korean phrases as 'issci anha → isscanha, issci anhsɨpnikka → isscanhsɨpnikka, caci ahnni → cacahnni'. In Cheju Dialect, however, such forms are not used at all. For example, the contracted forms such as 'isci anhɔjɔ → iscanha', and 'adɔlici anhɔjɔ → adɔlicanha' are not seen in Cheju Dialect. This contrast is due to the fact that Standard Korean is developed up to the stage of contraction, while Cheju Dialect is still at the previous stage of development.

In chapter 3, I examined the functions of negative lexicons. The basic meaning of negative lexicon 'malda' is 'prohibition of event' but it includes the subordinate meanings of 'affirmation, emphasis, confirmation', 'simple negation ani' and 'silhda'. Of all the characteristics of Cheju Dialect, it can be pointed out that four major ones are the function of main verbs, the function of auxiliary verb, the function of auxiliary particle and the cooccurrence of the complementizer '-ke'.

'əsda' is used in the place of 'ani' for negative answer. 'əsda' can be reanalyzed as 'negative element + affirmative lexicon'.

In chapter 4, I discussed the negative answering expressions as a characteristic of Cheju Dialect. In doing so, I examined the usage of 'əsda'. Since 'yes or no' is required as an answer to the 'yes-no' question, 'anida' or 'əsda' used in negative answering sentences means a simple negation to the question. On the other hand, 'malda', when used in command or suggestion, implies the answerer's will to

reject the speaker's command or suggestion. It is suggested here that the basic meaning of 'əsdɑ₁' is the negation of 'possession + existence', and that the basic meaning of 'əsdɑ₂' is "simple negation + negation of event" in a negative answer.

The meaning of 'əsdɑ₃' is "negation of possession or existence + negation of abstract object" in a negative answer of 'molɪda'. When used by the native speakers of Cheju Dialect, 'əsdɑ' used to be different from 'ənida' in their lexical meaning of negative answers, but now either one is optionally selected as a lexicon of the same meaning. That is, they simply alternate with each other. When stressed on 'əsdɑ' or 'əni' in case of negative answers, the sentence implies a strong opinion of the speaker. When unstressed, however, it is used as a simple negation.

This is followed by the discussion of the usage of 'malda' as a negative answering word. Used as a negative command, it is also used as a meaning of 'prohibition of event'. But it is also used as a meaning of 'rejection of event' including the will of the speaker in a 'negative answer'. It also includes the meaning of 'will of speaker' or 'rejection' which is similar to the meaning of the negative element 'əni'. In addition, 'malda' takes the place of 'silhda', which led to a wider semantic category in Cheju Dialect than in Standard Korean. Most speakers in old age group give an answer with 'malda', but as the age group lowers to the younger generation they give an answer with 'silhda' or 'əni + verb'. That is, there exists a sharp contrast in the negative answer between generations. It was shown that in Cheju Dialect negation words, 'malda' and 'əsdɑ' are used for the sentence-ending negative answer, and that the only difference in their usage is in the sentence patter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 of verbs.

A wider semantic category of 'malda' and 'əsdɑ' is one of characteristics of Cheju Dialect. Though the negative lexicons have the

basic meanings on their own, they include the common meaning of ‘negation’, and thereby their meanings are changing little by little, depending on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Though negative lexicons, which are used for the negative answer, have their own fundamental meanings, they were changed into simple alternate forms as the time passed.

The older the speakers are, the more frequently ‘malda’ and ‘a sda’ are used. The younger the speakers are, the more preferable ‘silhda’ is. Even at the moment, there is a tendency in which some of the educated native speakers of Cheju Dialect more often use ‘malda’ instead of ‘silhda’ as they grow older.

On the basis of what has been examined in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olysemy of negative lexicons in Cheju Dialect results from the contextual constraints or discourse situations rather than from the meaning of the lexicons on their own.

